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요일) 10:00 ~ 16:00

장소 :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2F)

프로그램 북

「이투데이 「이투데이피엔씨

대통령직속 인구전략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Population Policy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Contents

행사개요	イベント概要	003
프로그램	プログラム	004
환 영 사	歓迎の挨拶	005
강 연 1	講演1	007
사 례 1	事例 1(KOR)	020
	事例 1(JPN)	030
강 연 2	講演 2	039
강 연 3	講演 3(KOR)	079
	講演 3(JPN)	092
사 례 2	事例 2(KOR)	104
	事例 2(JPN)	122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행사개요

취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층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국가·복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2026년은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민간의 통합돌봄 체계 설계와 실행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웃 국가 일본은 이미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을 통해 재택, 의료, 개호, 생활지원, 주거를 연계하는 모델을 축적해, 생활권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밀착형 복합서비스 등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기업이 시설·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국내 통합돌봄 시행 원년으로 실제 정책과 현장 실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6 한일 시니어포럼’을 통해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원하는 니즈와 관련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통합돌봄의 올바른 정책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요

행사명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주　제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일　시	2026년 11월 5일(목) 10:00 ~ 16:00
장　소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2F)
주　최	이투데이, 이투데이피엔씨
후　원	인구전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 10:00	등록	**등록 / 네트워킹**
10:00 ~ 10:10	개회	**환영사**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 **축사**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10:10 ~ 10:30	시상식	**우수 통합돌봄 대상**
10:30 ~ 11:00	기조연설	**향후 통합돌봄정책의 추진방향**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11:00 ~ 11:30	강연 I	**한국형 통합돌봄 시행 원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11:30 ~ 12:00	사례발표 I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 돌봄을 실제로 통합했는가?** **이와나 레이스케**(岩名 礼介)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12:00 ~ 12:30	토론 I	**통합돌봄의 한계와 보완대책** **좌장**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 **패널**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
12:30 ~ 14:00	**오찬**	
14:00 ~ 14:30	강연 II	**사람을 돕는 기술, 에이지 테크에서 찾은 기회** **김영선**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장(노인학과 교수)
14:30 ~ 15:00	강연 III	**일본 시니어비즈니스 전문가가 말하는 기회** **: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의 동향과 사업 기회** **키이 노부유키**(紀伊信之) 일본종합연구소 고령사회혁신그룹 부장
15:00 ~ 15:30	사례발표 II	**일본 사례 분석** **: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야마기와 사토시**(山際聡) 주식회사 미라이 프로젝트 대표이사
15:30 ~ 16:00	토론 II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좌장** **신미화** 이바라키그리스도교대학 경영학부 교수 **패널** **김영선**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장(노인학과 교수) **키이 노부유키**(紀伊信之) 일본종합연구소 고령사회혁신그룹 부장 **야마기와 사토시**(山際聡) 주식회사 미라이 프로젝트 대표이사
16:00	**폐회**	

※ 위 프로그램 및 연사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대회위원장 이기일입니다. 오늘 ‘한일 시니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그리고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 발표자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는 21.6%를 넘어섰고 매년 1%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했고, 올해 3월 27일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을 끊김 없이 받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다듬어온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이제 전국 226개 시군구의 행정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도에 개호보험을 도입하고 2014년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고령화율이 30%입니다. 우리의 10년에서 15년 후의 미래가 지금 일본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본이 고령화율의 진행에 따라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일 시니어 포럼’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을 통해 통합돌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또한 이미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이런 흐름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오전에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과 다음 단계를 기조연설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년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20년 넘게 쌓인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설계 원리를 차례로 듣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은 첫 번째 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 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묻겠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보완할 과제도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가치의 언어에서 기회의 언어로 넘어갑니다. 통합돌봄이 자리를 잡으면 지역마다 방문 의료, 재활, 주거, 식사, 이동지원 같은 구체적인 수요가 생깁니다. 여기에 사람을 돕는 기술인 에이지 테크와 민간의 서비스가 더해지면, 제도의 바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김영선 AgeTech 연구소장님은 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키이 노부유키 부장님은 일본에서 먼저 확인된 기회의 영역을 짚어 주십니다.
야마기와 사토시 대표님은 돌봄 현장에 미용 서비스를 들여와 직접 사업으로 키워 온 경험을 들려주십니다.
신미화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시는 두 번째 토론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는 무엇인가" 입니다.

잠시 후에는 「우수 통합돌봄 대상」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통합돌봄 원년, 현장에서 앞장서 길을 낸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습니다. 대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 우수상에는 이투데이 대표이사 상을 드립니다.
제도는 중앙에서 만들지만, 그 제도를 주민의 일상으로 완성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수상하신 지자체의 노력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자극이 되고,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내 삶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모든 정책과 서비스가 결국 이 바람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실 때 내일 현장에서 바로 쓸 아이디어 하나, 새로 만난 협력 파트너 한 분, 혹은 더 깊이 고민해 볼 질문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다면, 이 포럼은 제 역할을 다한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1. 5.
이기일 올림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강연 I

한국형 통합돌봄 시행 원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유 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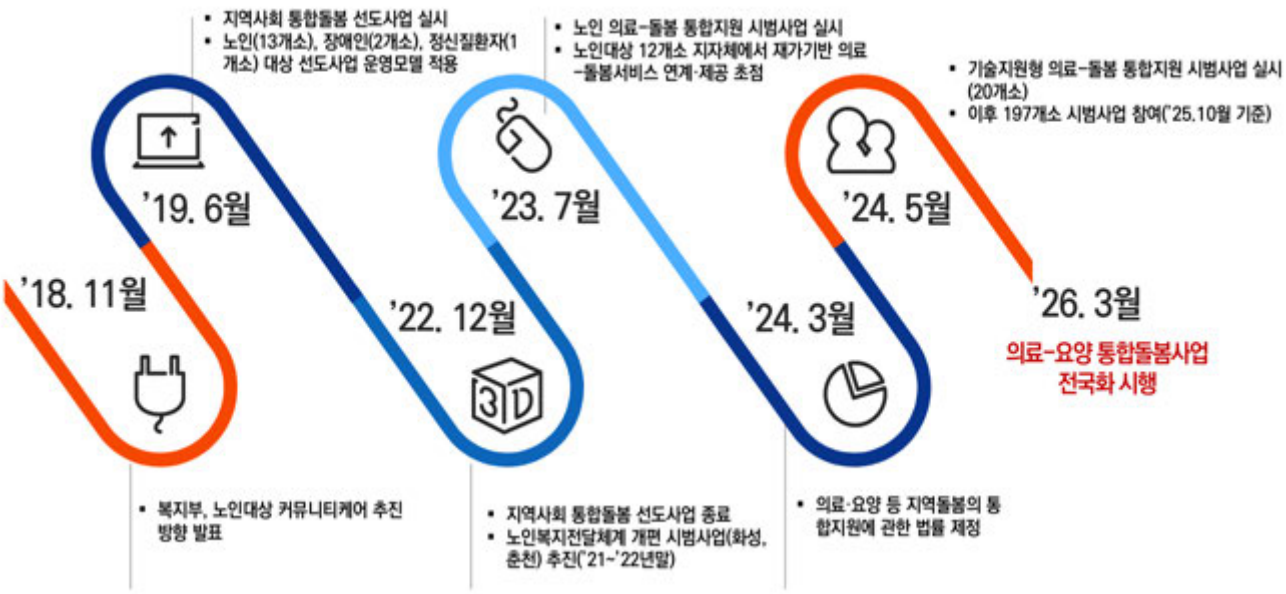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2026. 11.

유 애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aejungyoo@gmail.com

한국형 통합돌봄의 첫 걸음, 긴 여정의 시작



1

7년간의 시범사업, 우리가 경험한 것들

통합돌봄 정책효과성 검증

- 기존 선별적, 분절적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통합적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 지자체 책임성 강화 필요성 인식
-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경험 축적
- 재가거주기반 변화, 의료-요양비용, 응급실 이용, 요양시설/요양병원 이용 등에서 대조군 대비 실험군의 긍정적 시행결과 도출

제도권 내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 기존 보건의료/장기요양/보건복지사업의 우선 확충 필요
- 국가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유형 다양화, 서비스 량 확대
- 방문의료,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욕구가 높은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충 필요

전담인력 확보 및 보건소 연계 강화

- 통합돌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전문기관 등)의 인력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함
- 본청-보건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의 기획력 강화



시도 역할 강화

- 시도의 통합돌봄 사업추진 필요성 인식 제고
- 시군구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도 지원기능 강화(사업/예산 지원/교육 등)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비 예산 등 확대 필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 통합돌봄과 관련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자체, 전문기관, 관련기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사업홍보, 우수지자체의 노하우 공유, 컨설팅 등

* 유애정 외(2025),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이 발판

-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 · 제공'을 '통합지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노인 외 장애인 등 포함
- 통합지원 절차가 다른 법에 우선함,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 국가의 행정 · 재정적 지원 책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 수립 · 시행
- 의료 · 요양필요도 등 종합판정, 안내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 · 연계하고, 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서비스 내용에 주거지원 내용 포함
- 통합지원협의체 및 시군구 전담조직 운영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연계
- 전문인력, 전문기관 운영
- 시범사업 시행, 비용지원 등,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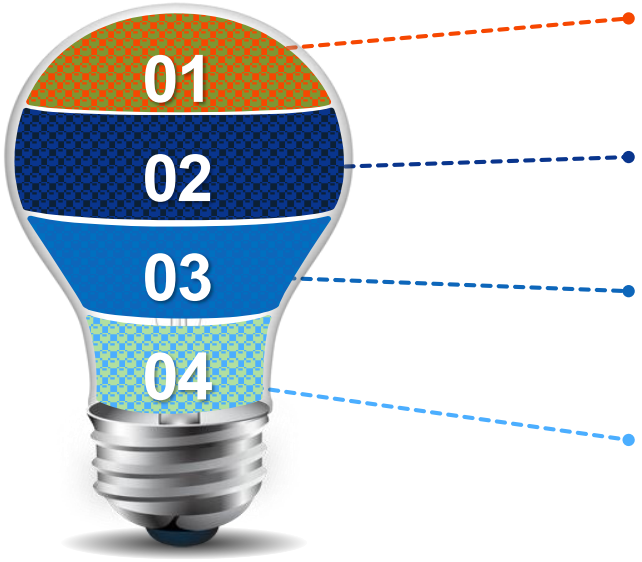

살던 곳서 오래 건강하게…'지역 통합돌봄'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열린세상] 지역 돌봄 통합지원, 초고령사회의 주춧돌

3

지금 누리는 곳에서 통합돌봄(국정과제 78번)

- (목표)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 (기대효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건강 성과지표 개선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시행
-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강화
- 장기요양, 재가의료, 일상생활돌봄, 노쇠예방 등 재가서비스 종류와 제공규모 대폭 확대
-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주택(중간집) 도입 및 단계적 확대

4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본사업 준비과정까지



법적기반 확보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인력배치 및 예산확보
- 전담공무원 인력 5,394명 확충
- '26년 사업비 총액(국비) 91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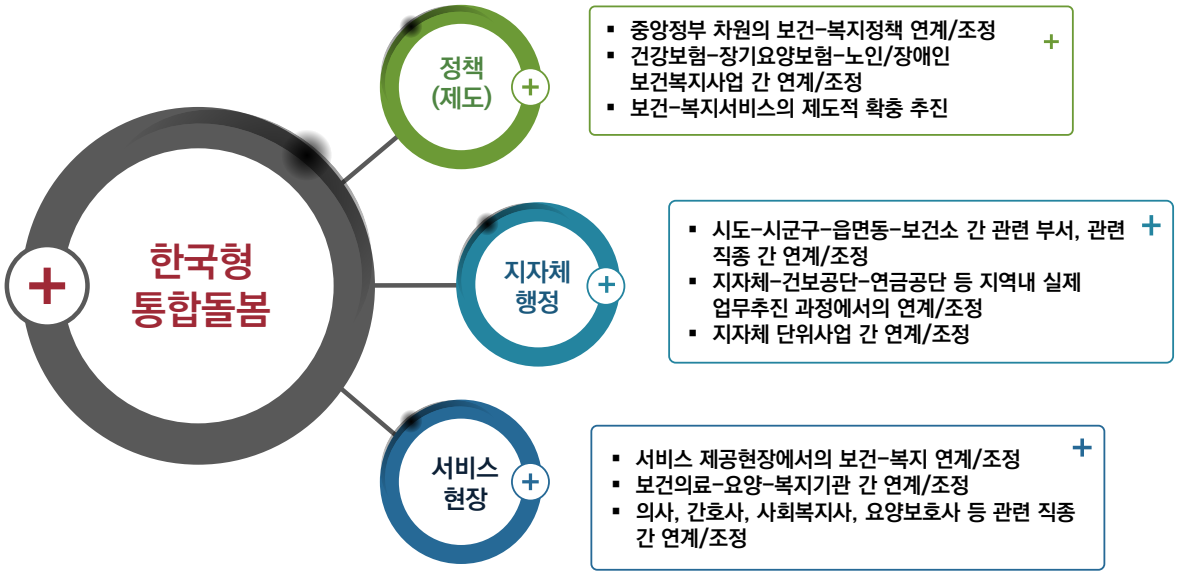
국가서비스 확대 노력
- 재택의료센터 확충, 보건소 역할 강화 등 주요 인프라(기능) 확대
- 장기요양, 노인맞돌사업 등 확대

지자체 내 추진기반 마련
- 전담부서 운영, 실행계획서 수립 등
- 지자체 내 관계자 대상 설명회, 교육
- 중앙-지자체 간 소통채널 운영

5

한국형 통합돌봄모델의 특징

통합돌봄이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복지정책 연계/조정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노인/장애인 보건복지사업 간 연계/조정
- 보건-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확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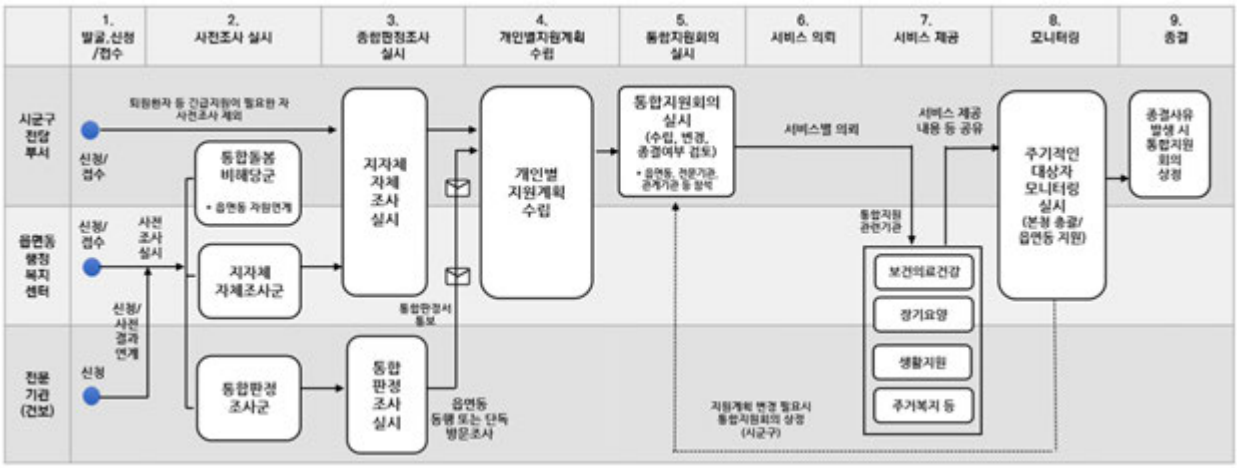
-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 간 관련 부서, 관련 직종 간 연계/조정
- 지자체-건보공단-연금공단 등 지역내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조정
- 지자체 단위사업 간 연계/조정

- 서비스 제공현장에서의 보건-복지 연계/조정
- 보건의료-요양-복지기관 간 연계/조정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종 간 연계/조정

6

한국형 통합돌봄모델의 특징

- 지역단위 통합돌봄 추진절차 마련
  - 시군구 본청 총괄 + 읍면동, 보건소 지원 + 전문기관 지원 + 민간기관 협업
  - 의료-요양-돌봄 종합적 필요도 파악(장애인의 경우 돌봄-의료적 추가욕구 파악)
  - 의료-돌봄서비스를 포함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다직종 협업에 기반한 통합지원회의 실시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관찰, 지역내 자원현황 파악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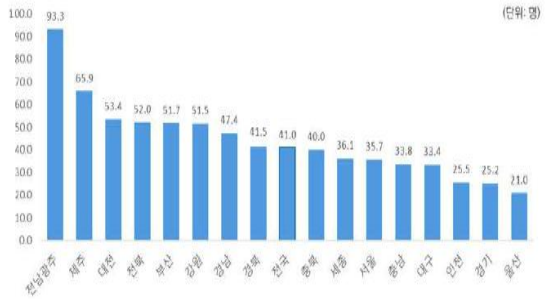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20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 지침(노인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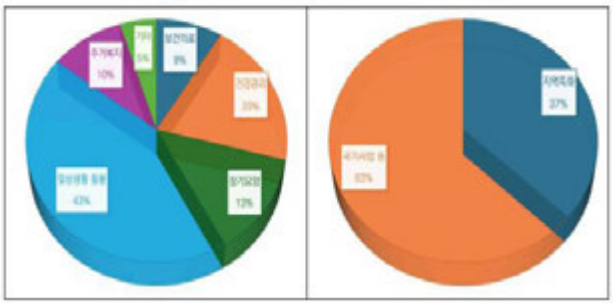
통합돌봄 전국화 이후,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 본사업 시행일 이후 100일 기점(6월 말 기준)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 46,215명
  - (신청자 유형) 노인 45,619명(98.7%), 장애인 16,568명(35.7%, 고령장애인 중복 포함)
  -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 당 41.0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자 수 가장 다수
-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이후 서비스를 연계받은 대상자 수는 37,304명
  - (서비스 제공 건수)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 연계. 총 건수는 123,595건이며 국가사업이 62.6%, 지역특화서비스가 37.4% 차지
  - (서비스 분야별) 일상돌봄 43.1%,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보건의료 9.1% 등

〈그림 3-5-1〉 시도별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그림 3-5-2〉 통합돌봄 서비스 분야별 비중 및 지역특화사업 비중



* 유애정 외(2026),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8

통합돌봄 전국화 이후,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9

속도감 있는 통합돌봄 담당조직/인력 확보 필요

- 2026.6.30일 기준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부서 현황파악 결과,
  - 시도/시군구에서 6,278명이 통합돌봄업무 담당(전담인력 비중 전체 19.3%, 본청 86.5%)
  - (시도) 전담인력 기준 부산(돌봄복지과), 경기도 6명(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배치
  - (시군구) 전담인력 기준 서울 성동구(통합돌봄국) 15명, 파주시/과천시/태백시 등 19개소의 경우 본청 전담인력 1명 배치
  - (읍면동) 전담인력 기준 청양군 21명(100%)/신안군 14명(100%)/서귀포시 19명(95%) 배치
- 2026년 하반기에 상당 수의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측되어 담당자 배치 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 마련 필요

구분	총계 (명)	전담					겸직				
		소계	시도 본청	시군구 본청	읍면동	보건소	소계	시도 본청	시군구 본청	읍면동	보건소
총계	6,278	1,211	54	845	177	135	5,067	29	133	4,653	252
시도	83	54	54	-	-	-	29	29	-	-	-
시군구	6,195	1,157	-	845	177	135	5,038	-	133	4,653	252

* 유애정 외(2026),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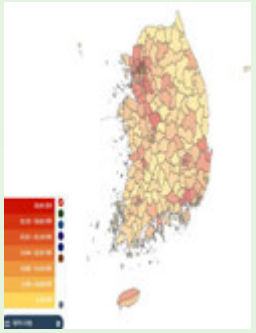
10

지역내 우선관리 대상자에 대한 초점화 필요

(노인) 잠재군

- 3,208,418명(전체 노인의 28.5%)
  -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 환자, 고령장애인 등 중복제거('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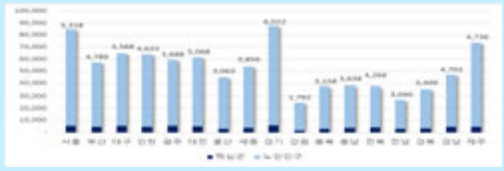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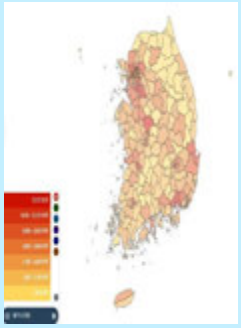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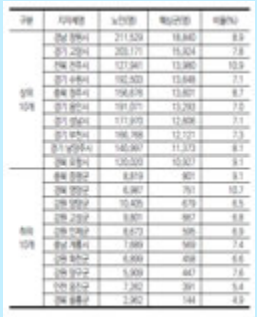


(노인) 핵심군

- 982,883명(전체 노인의 8.7%)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중 요양병원(시설) 위험이 높은 자,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 등 중복제거('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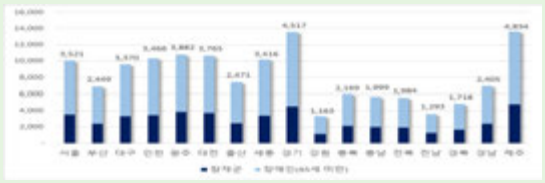
* 유애정 외(2026),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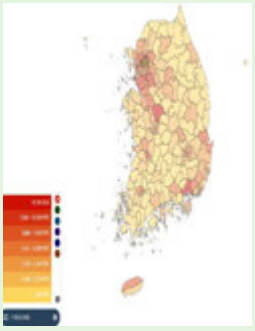
11

지역내 우선관리 대상자에 대한 초점화 필요

(장애인) 잠재군

- 607,987명(전체 65세 미만 장애인의 52.8%)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의료기관 퇴원환자 중복제거('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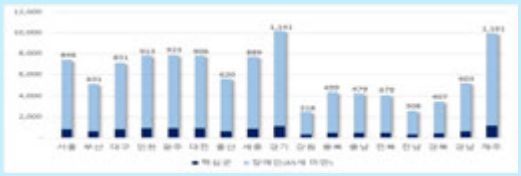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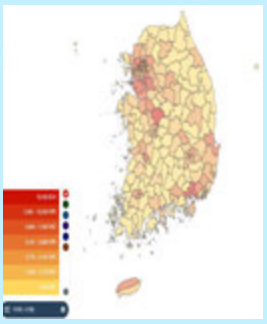


구분	지자체명	65세미만 장애인(명)	잠재군(명)	비율(%)
상위 10개	경남 창원시	23,249	11,796	50.7
	경기 수원시	22,544	11,242	49.9
	충북 청주시	20,414	11,169	54.7
	경기 고양시	19,432	10,108	52.0
	경기 부천시	17,345	8,966	51.7
	경기 용인시	17,402	8,782	50.5
	경기 성남시	15,932	8,374	52.6
	경기 안산시	17,788	8,369	47.0
	경기 화성시	17,826	8,230	46.2
	전북 전주시	15,649	8,108	51.8
하위 10개	전북 무주군	755	401	53.1
	경북 고령군	715	387	54.1
	대구 군위군	692	369	53.3
	경북 청송군	659	353	53.6
	전북 장수군	652	342	52.5
	경북 화천군	614	331	53.9
	경북 영양군	516	312	60.5
	전북 순창군	577	274	52.0
	경북 양구군	521	253	48.6
	경북 울릉군	187	68	36.4

(장애인) 핵심군

- 150,362명(전체 65세 미만 장애인의 13%)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기관 퇴원환자 중복제거('25.12.31)





구분	순위	지자체명	65세미만 장애인(명)	핵심군(명)	비율(%)
상위	1	경남 창원시	23,249	3,038	13.1
	2	경기 수원시	22,544	2,849	12.6
	3	경기 고양시	19,432	2,454	12.6
	4	충북 청주시	20,414	2,432	11.9
	5	경기 부천시	17,345	2,300	13.3
	6	경기 화성시	17,826	2,184	12.3
	7	경기 안산시	17,788	2,173	12.2
	8	전북 전주시	15,649	2,159	13.8
	9	경기 용인시	17,402	2,154	12.4
	10	경기 성남시	15,932	1,926	12.1
하위	1	경북 울릉군	187	19	10.2
	2	전북 순창군	577	57	10.8
	3	경북 영양군	516	61	11.8
	4	대구 군위군	692	66	9.5
	5	경북 청송군	659	74	11.2
	6	경북 양구군	521	77	14.8
	7	전북 진안군	831	84	10.1
	8	전북 장수군	652	84	12.9
	9	경북 화천군	614	86	14.0
	10	경북 안동군	769	91	11.5

* 유애정 외(2026),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12

지역내 우선관리 대상자에 대한 초점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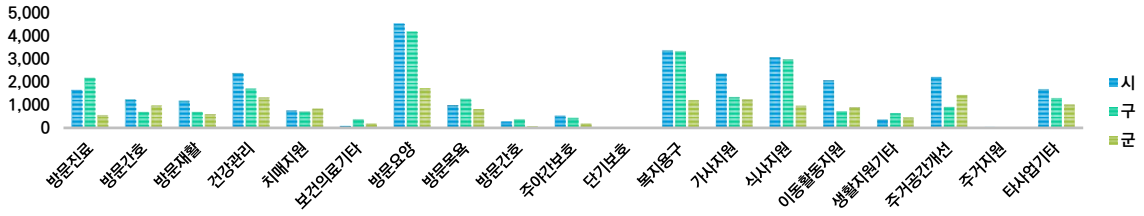
- 재가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의료-돌봄의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자
  - 시범사업 기간 중 대상자의 평균 서비스 이용기간은 7개월 남짓에 불과
  - 한정된 예산, 서비스 충분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대상자 확대 방향 설정 필요



13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필수서비스 확보

- 각종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미충족 욕구와 관련한 서비스 의향 확인
  - (노인실태조사, 2023년) 건강악화 시 재가서비스 필요 55.6%(일상생활지원 66.1%), 희망거주형태(현재 집에서 거주 48.9%)
  - (장기요양실태조사, 2023년) 향후 이용의향 방문요양 48.6%/주야간보호 32.6%
  - (사회서비스실태조사, 2023년) 향후 1년 내 이용의향 문화여가 30.0%/신체건강 27.2%/노인돌봄 15.3%/장애인돌봄 2.6%, 노년기의 경우 노인돌봄 49.2%/신체건강 30.3%, 1인 가구 노인돌봄 21.4%/신체건강 22.3%/문화여가 26.1%.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돌봄 33.2%/장애인돌봄 37.1%/신체건강 23.2%
- 시범사업 경험 기반 시군구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메뉴판 다양화 필요
  - 주말/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필요
  - 사업참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2.6세/일반대상자 13.6%/독거 62.4%, 노인부부 25.5%
  - (군지역의 경우) 방문요양>주거공간개선>건강관리>가사지원의 순으로 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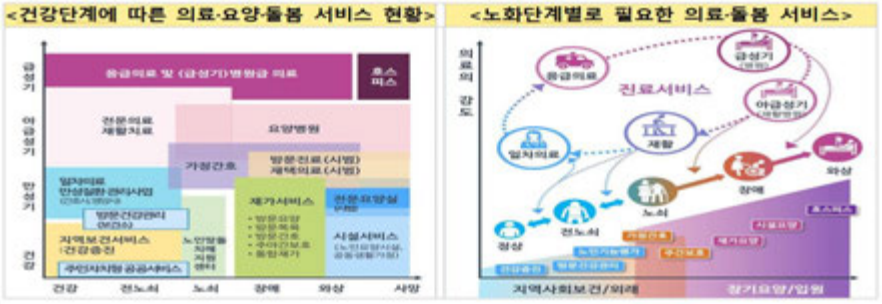


* 유애정 외(2026),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14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필수서비스 확보

- 현 제도권 내 서비스 제공 인프라, 유형, 서비스 량 부족
  -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 제도적 만성기 지역의료체계 강화
  - 퇴원환자지원 미흡 → 제도화 된 퇴원환자 지역복귀 지원체계 구축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량 부족, 서비스 유형 단편화 → 월 한도액 인상, 재가급여유형 신설 및 급여 확대 (방문요양시간 다양화, 주간보호 중증자 이용체계 강화, 단기보호 확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단편화 → 대상자 중심 서비스 내용 변화, 집중군 대상 확대
  - 지역단위 보건-복지서비스별 대상자 이용범위 한정 → 필수서비스 중심 단계적 확대
- 기존 제도 간 연계 및 재구조화 노력 필요 → 지역기반 각종 사례관리, 돌봄사업 등
- 여전히 취약계층지원에 치우친 서비스 제공 형태 → 보편적 대상자로의 단계적 확대



* 보건복지부,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2024.3.21.)

15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필수서비스 확보

- 기존 제도권 내에서 부재한 돌봄욕구에 대한 새로운 운영모델 도출 (시범사업)
  - 24시간 돌봄체계 운영을 위한 안심콜 운영 (광주 서구)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돌봄특화마을 구축 (광주 북구)
  - 퇴원환자지원을 위한 돌봄스테이션 운영 (진천군)
  - 주거-의료-돌봄이 결합된 돌봄주택 운영 (청양군, 안산시)
  - 건강관리-돌봄-식사가 결합된 돌봄건강학교 운영 (대전 대덕구)
- 일부 사업내용은 전국화 시행과정에서 지역특화사업(퇴원환자 연계사업, 중간집 등)으로 반영
- 요구도가 높은 특화서비스(운동지도,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의 경우 신규서비스로 우선 개발 필요







16

통합돌봄 지역격차의 진단과 대응책 마련

- 통합돌봄 추진 리더쉽의 차이
  - 지자체단체장, 관련 부서 담당자의 추진의지, 인식에 따른 기획력의 지역간 편차 존재
- 지역내 공공-민간 간 협업 경험의 차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지역내 협업기반이 구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사업운영 격차 발생
- 지역별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 차이
  - 지역특성(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반영되지 못한 인프라의 근본적인 차이 존재

< 지자체별 통합돌봄 공급 현황 (단위: 개소수, 대상군 1,000명 기준) >



*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자원현황 파악 ('25.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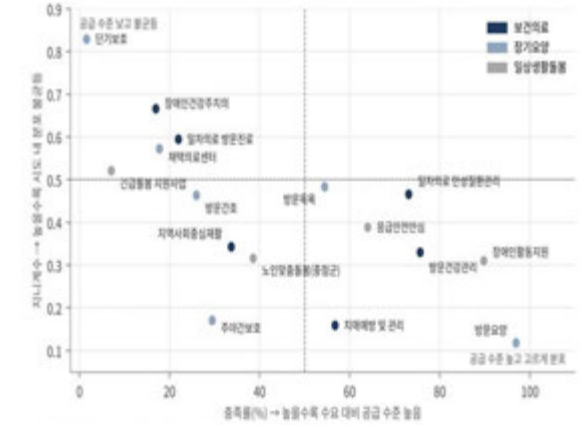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발표 (2026.3.5.)

17

통합돌봄 지역격차 진단과 대응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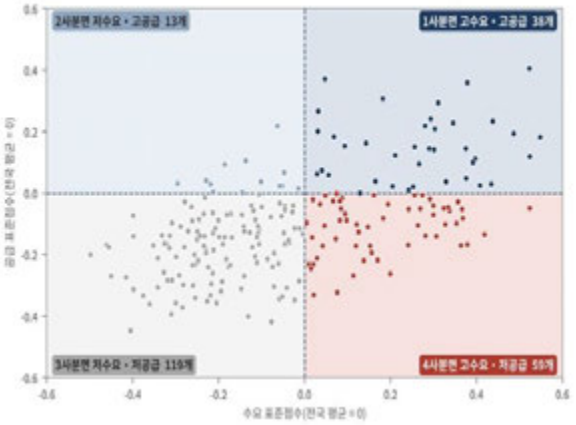
-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16종 필수서비스의 충족률과 시도 내 불균형 여부, 229개 지자체의 수요-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 방문요양, 치매예방 및 관리는 상대적으로 충족률이 높고 균등한 자원 분포인 반면, 긴급돌봄과 단기보호,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절대적 충족 수준도 낮고 불균등한 자원 분포
- 특히, 고수요-저공급에 해당되는 59개소 중 대도시 도심지역,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심층적인 분석 필요

< 서비스별 충족률과 지니계수 분포 >



* 점선은 충족률 50%, 지니계수 0.5 참고선

< 시군구별 수요-공급 매트릭스(16개 서비스 종합) >



* 유애정 외(2026),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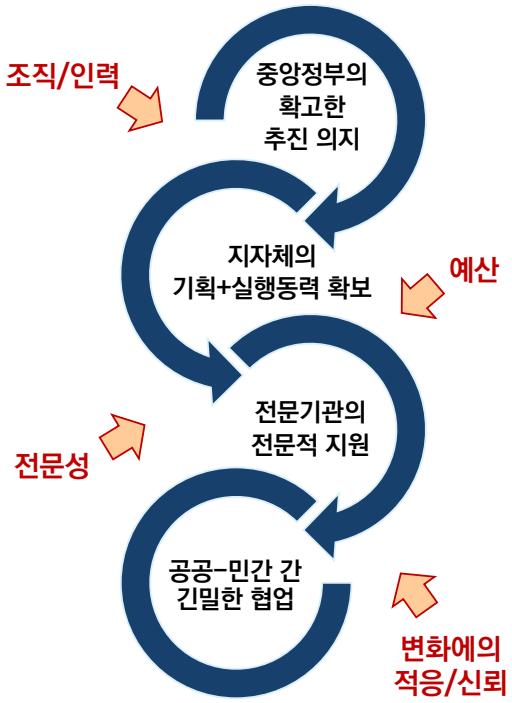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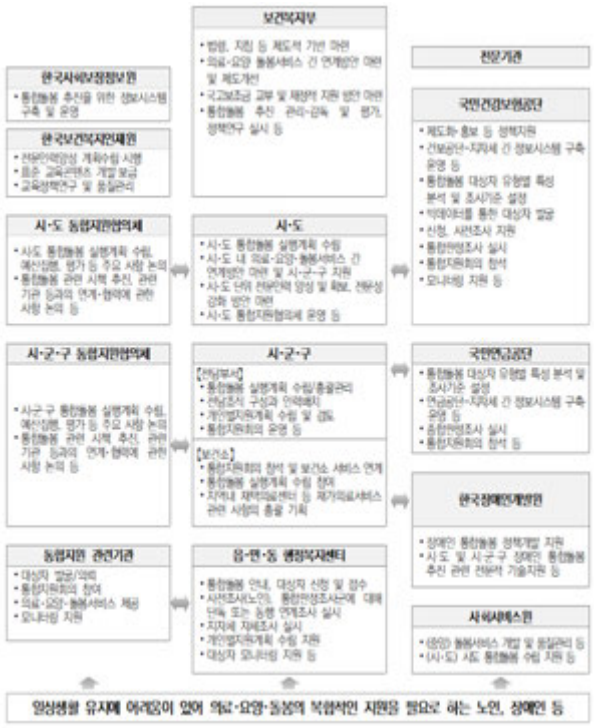
통합돌봄 지역격차의 진단과 대응책 마련

- 지역별 운영체계 경험의 차이, 순환보직 운영으로 인한 운영편차 발생
  - 중앙정부 차원의 우수사례 보급, 운영노하우 전수, 지자체단체장 인식 제고 등
  - 통합돌봄 담당자 대상 지속적, 주기적인 교육체계 구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서비스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협회 등에서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기반 고도화
- 지역별 의료-돌봄 인프라 차이 진단
  -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주기적인 수요-공급 현황 파악 필요. 돌봄통합지원법 근거하여 5년 단위 실태조사 수행+기본계획 수립
  - 향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3년 단위 필수서비스의 지역별 수요-공급현황 파악은 필수적인 과정. 지자체의 인프라 관리와 관련한 책임성 강화
- 수요대비 필수서비스의 공급 인프라 확충 방안 다각적 마련 필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정책 연계
  - 도심지역/농어촌지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 설계 필요
  -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운영
  - (국내외사례) 공공운영, 집합방식의 돌봄, 특별가산지원, ICT-AI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등

19

운영체계 고도화





* 보건복지부(20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공통편)

20

운영체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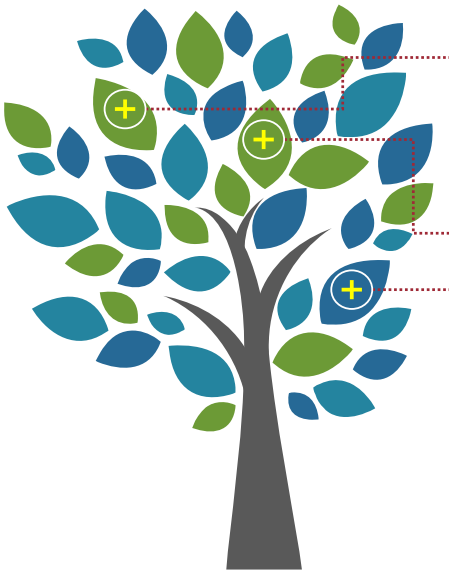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실행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체계 기반 구축
  - 지자체의 지역진단에 기반한 통합돌봄 관련 수요-공급의 조정 권한 강화
  - 시군구 전담조직의 기획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순환보직의 공공조직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전문임기제 도입 등
  - 전담인력 확보 여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분담 및 협업체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실행기반 구축 노력 필요
  -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운영은 개인적 욕구대응 → 지역문제 대응 초점
  - 각 서비스 제공 단위에서의 매니지먼트 전문성 제고 필요
-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확충 필요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지자체 사업예산 각각의 관련 재정확충 필요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가의료, 재가돌봄을 위한 재정확충
  - (지자체 사업예산) 기존 돌봄예산 재구조화, 예산증액 및 지자체 재량운영방식의 적용
  - 단기적인 재정확충 노력,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재정운용방식(기금 등) 검토 필요

21

운영체계 고도화

▪ 연계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기반 확대

- 효과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결과물은, 결국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가 핵심 →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전제
- 상시적으로 업무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전반적인 백업체계 구축 필요
- 전체적인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지자체 컨설팅, 신속한 사업운영기반 안착을 위한 지원조직 상설 운영



▪ 참여협업기관을 위한 인센티브 기전 마련
  - 사업계획과정의 공동참여
  - 고유업무내용으로 반영, 회의참여수당 지급 등 활동지원

▪ 지자체 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확대
  - 시도/시군구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지자체 내 자체교육기회(사회서비스원 등) 확대 및 교육과정 참여 독려

▪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확대
  - 사업운영지침의 구체화
  - 우수사례 운영과정 노하우 보급
  - 지자체 평가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등 실시

22

THANK YOU

23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사례발표 I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 돌봄을 실제로 통합했는가?



이와나 레이스케(岩名 礼介)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 돌봄을 실제로 통합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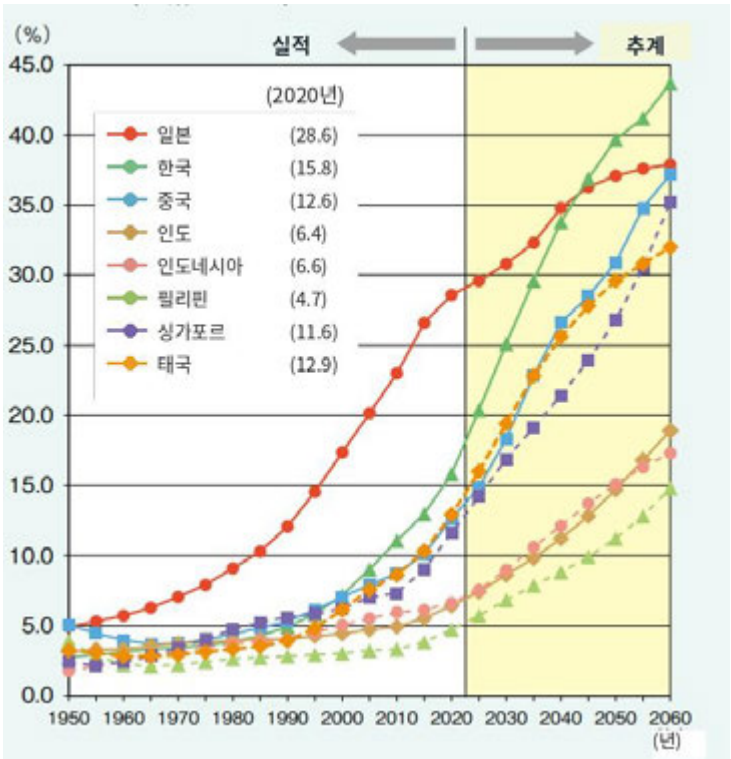
Has Japan'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Really Integrated Care in the Community?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이와나 레이스케

Mitsubishi UFJ Research and Consulting
A member of MUFG, a global financial group

본 발표 자료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Adobe Firefly)로 제작되었습니다.

세계 고령화의 선두에 서 있던 일본도 이제 고령화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



자료: 일본 내각부「고령사회백서」(2025)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정의와 목적

'포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어 명칭은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으로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중증의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평소 살아온 지역에서 자신다운 생활**을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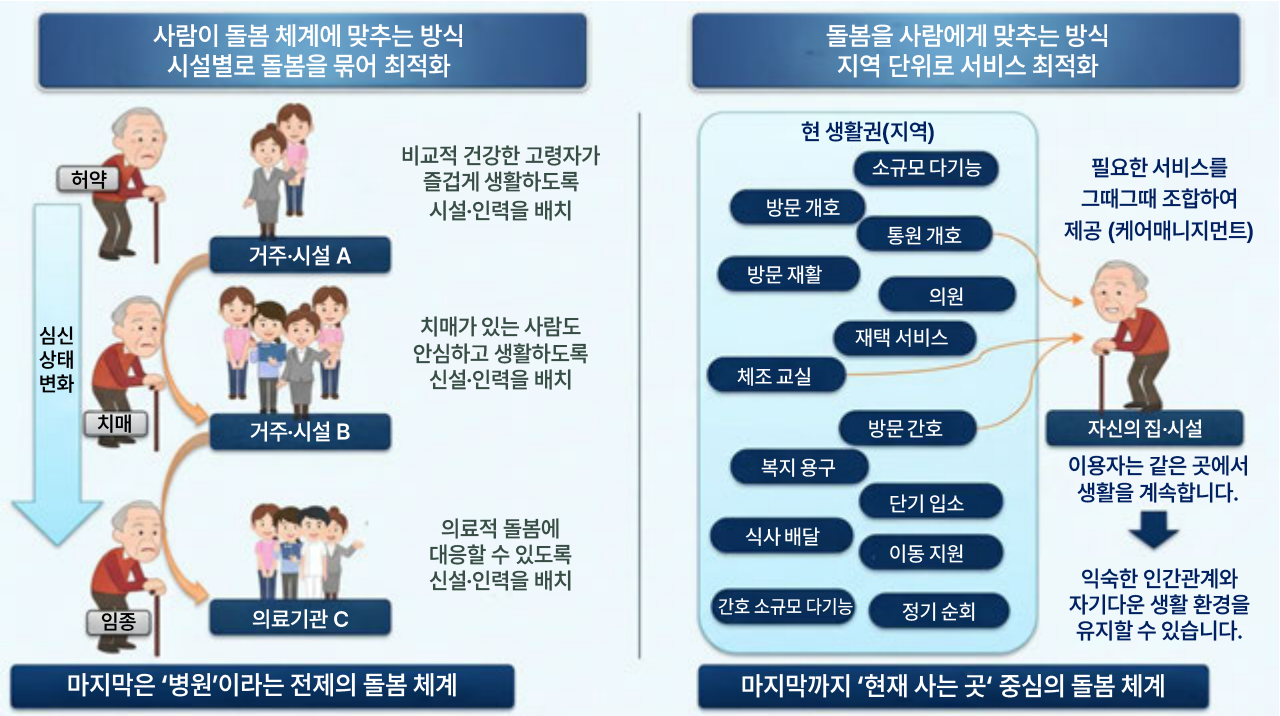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홈페이지)

제2조 이 법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개호 예방(요개호 또는 요지원 상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경감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MUF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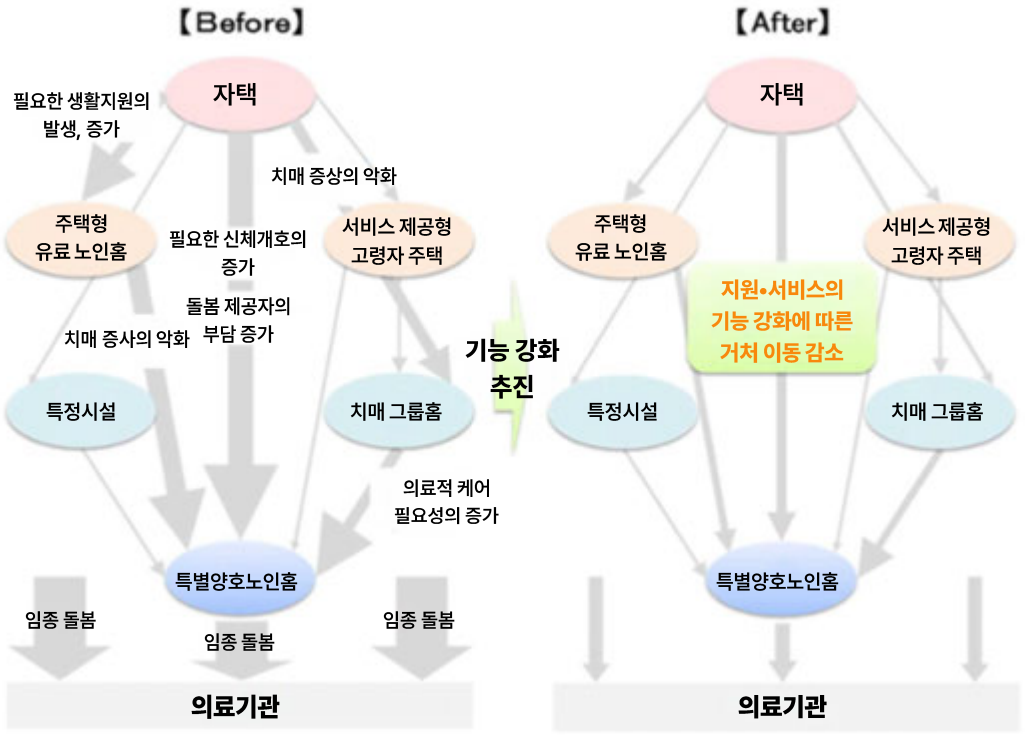
'삶의 마지막은 병원'이라는 전제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 중심의 돌봄 체계로



자료: 이와나 레이스케 강연 자료(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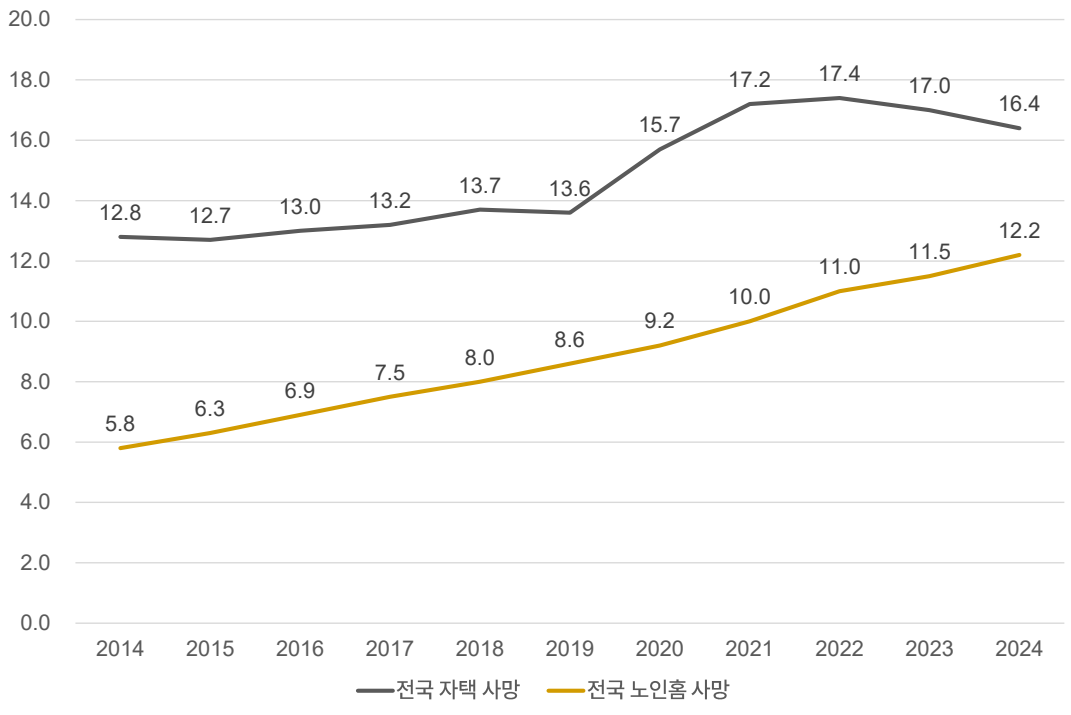
MUFG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이르기까지 거처를 옮겨 다니는 생활은 계속됩니다.



자료: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개호보험 사업계획에 시책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

그럼에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발전에 따라자택 및 노인홈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를 바탕으로 이와나 작성

무엇을 '통합'하려는 것인가?

'포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 명칭인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은 '통합'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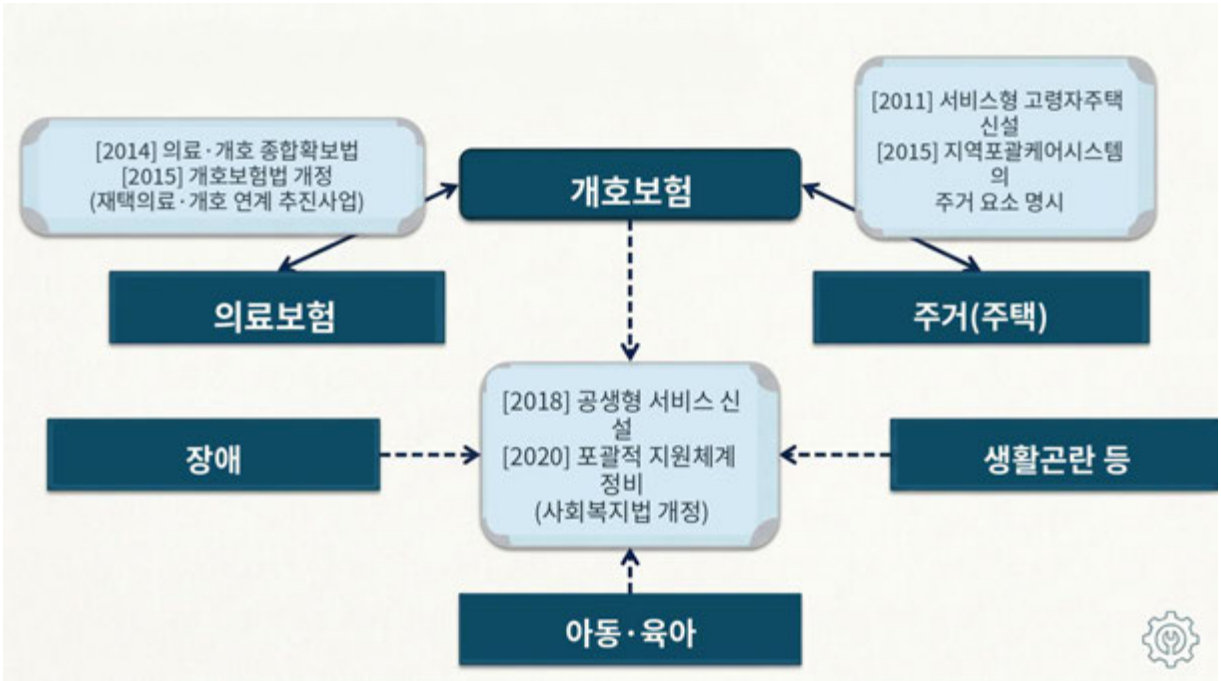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 돌봄 체계를 출발점으로 한 통합 과정입니다.
  - ✓ 시스템 전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없으며, 분야별 법률과 정책이 결합하여 체계를 구성합니다.
  - ✓ 출발점은 특히 개호보험입니다(담당 부처가 후생노동성 노건국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 ✓ 「의료·개호 종합확보법」은 주로 의료와 개호 자원의 조정·정비를 촉진하는 법으로,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 고령자 돌봄에서 의료·주거로 통합 범위를 넓혀 왔으며, 현재는 장애·아동·생활곤란 분야와의 정책적 통합도 추진 중입니다.

통합의 대상 영역	
규범적 통합	지역포괄케어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이념·목표·가치관·핵심 개념을 공유합니다.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기", "자립 지원", "자신다운 삶", "존엄 유지",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의 통합 제공" 등을 공동 목표로 제시합니다. 등산에 비유하면 정상의 모습을 공유하되, 정상에 오르는 구체적 경로는 시정촌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정책·제도 수준의 통합 (체계적 통합)	각 분야의 정책·제도 차원에서의 통합입니다. 의료·개호·장애 분야의 제도와 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추는 정도에 그칩니다.
시정촌 행정(보험자) 수준의 통합 (조직·기능·임상적 통합 포함)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권리옹호·종합상담·포괄적·지속적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의료구상(필요 병상 수 조정)과 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을 연계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이 요구됩니다.
서비스 제공 현장 수준의 통합 (조직·기능·임상적 통합 포함)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지원의 결합, 다직종 연계(팀 돌봄), 사업자의 서비스 기능 통합 제공을 말합니다. 지역밀착형 정기순회 서비스와 소규모 다기능형 서비스 등은 현장의 다직종 협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료: 이와나 레이스케 강연 자료(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MUFG

[참고] 분야 간 통합의 개요



MUFG

[참고] 일본의 분야 간 통합 정책의 역사

연도	① 의료 × 고령자 돌봄	② 주거 × 고령자 돌봄	③ 장애 × 고령자 돌봄	④ 장애·아동·생활곤란 × 고령자 돌봄
1990년	**골드플랜** (재가 서비스의 양적 확충) ※ 고령자 돌봄 기반 정비의 출발점	—	—	—
2000년	**개호보험제도(LTCI) 시행** ※ 고령자 돌봄의 제도화	개호보험시설을 '주거+돌봄'으로 규정(특별양호노인홈·노인보건시설 등)	—	—
2003년	—	—	**지원비제도 도입** ※ 장애복지가 급여제도로 전환되며 개호보험과 유사한 구조로 이행 시작	—
2006년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 지역밀착형 서비스(통합돌봄 서비스)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 ※ 장애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개호보험과 유사한 틀 마련	—
2011년	—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제도 도입** ※ 고령자 주거와 개호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결합	—	—
2013년	—	—	**장애인종합지원법 시행** ※ 고령자 돌봄과 유사한 제도 구조 마련	—
2014년	**의료·개호 종합확보법 제정** · 지역의료구상과 개호보험계획 연계 · 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설치	—	—	—
2015년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명문화 · 의료·개호 연계 강화	**개호보험법 개정**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성 요소로 '주거' 명시	—	—
2018년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 '공생형 서비스' 신설: 고령자·장애인·아동이 동일 사업소의 서비스 이용 가능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 '공생형 서비스' 신설: 고령자·장애인·아동이 동일 사업소의 서비스 이용 가능	
2020년	—	—	**개정 사회복지법 시행**(포괄적 지원체계 정비를 지자체의 노력 의무로 규정) '중층적 지원체계 정비사업' 신설 고령·장애·생활곤란·아동 양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과제	실질적인 통합은 퇴원 지원·재택의료·케어회의 등 현장 조정에 의존합니다. 통합 돌봄계획의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의료진과 개호 측 간의 거리도 남아 있어 통합의 질과 양에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 소관이지만 실태 파악이 미흡해 시정촌의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생형 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동일 사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도입 정도에 지역 차이가 크고 제도 전체는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통합은 지자체·지원 인력 간의 연계와 운영에 의존합니다.	지자체마다 추진 상황의 격차가 큽니다. 소관이 시정촌·광역자치단체로 나뉜 분야도 있고 제도 통합도 미흡해, 통합 추진과 성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범적 통합의 적극적인 추진과 남은 과제

■ 후생노동성과 지역포괄케어연구회의 이념·개념 공유

- 정책 문서에서는 「2015년의 고령자 개호」 보고서에 '포괄적 돌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2008~2019)를 통해 개념이 정리되고 '화분 그림'도 제시되어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 시정촌 계획과 전문직 단체에서도 같은 그림과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포괄케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개념도]
출처: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방향에 관한 연구사업 보고서」(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 2015년도 노인보건건강증진사업.

■ 규범적 통합(이념 공유)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그러나 의료·개호·복지의 정책·제도 통합(체계적 통합)은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추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 통합 작업의 대부분은 정책 예산 지원과 함께 시정촌 보험자·사업자·전문직의 노력에 맡겨졌습니다.

‘형식적인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중앙 의존’

■ 2000년: 개호보험 시행 — “개호보험은 지방분권의 시험대”

- 그러나 오랜 중앙정부 통지·지침 의존으로 지자체는 기획 및 지역 돌봄 체계 설계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 형식적 지방분권은 진행됐지만 실질적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지자체 간 격차

- 시정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등장한 반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성공하는 상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 선진 사례를 복제·확산하는 행정 문화가 정착

■ 추진 방향은 공유되고 있지만 시정촌 및 서비스 현장의 ‘통합’이 미흡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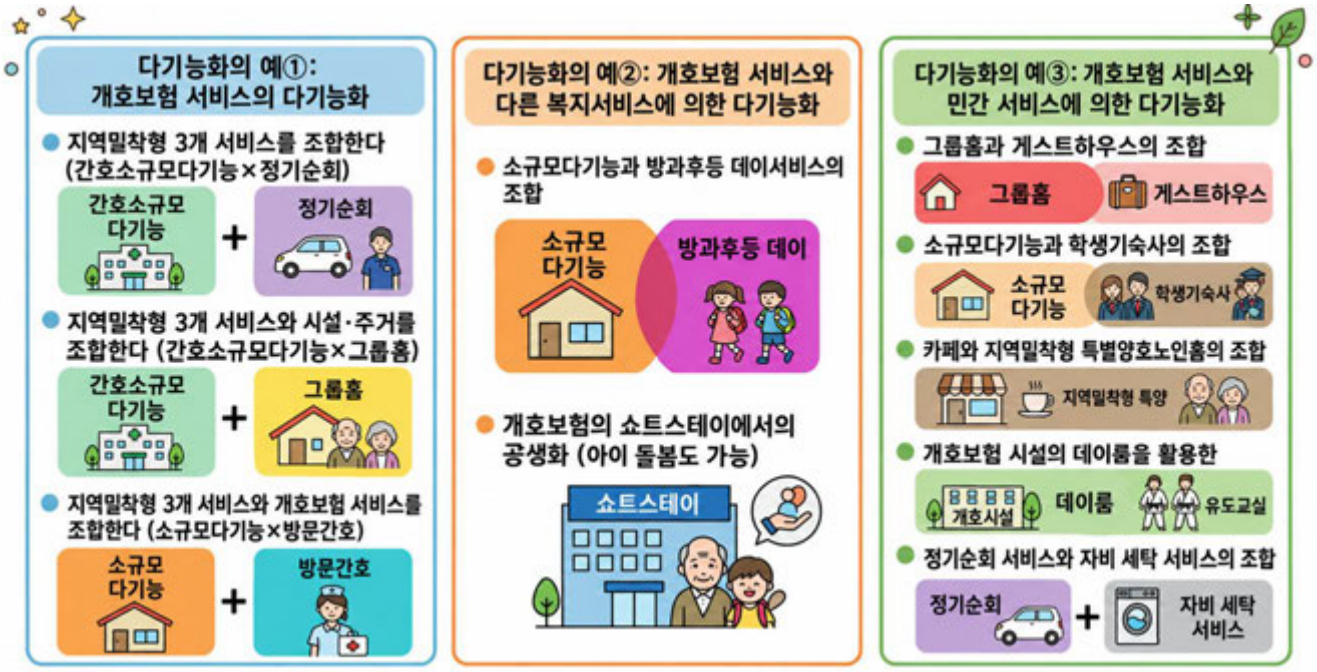
지역밀착형 3대 서비스(정기순회·수시대응 / 소규모 다기능 / 간호 소규모 다기능)

- 서로 다른 전문직 서비스가 연계되어 이용자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다기능은 통원·방문·단기숙박을, 정기순회는 개호·간호를 조합합니다.
- 월 단위 포괄수가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 일본 정부는 이 서비스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핵심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와나 레이스케 강연 자료(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MUFG

서비스 제공 거점에서도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이와나 레이스케 강연 자료(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서비스 현장의 통합이 낳은 과제: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묶어 두기'

■ 고령자 돌봄 분야 내부에서는 서비스 간 통합이 일정 수준 진전되었습니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정기순회·수시대응형, 간호 소규모 다기능 등 통합형 서비스)의 도입과 정착

■ 그러나 분야 간 연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 지역케어회의가 '늘 참여하는 소수의 관계자'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간호와 개호, 개호와 복지 사이에는 자격별 교육과정 등의 차이도 있어 서로 낯설고 소극적인 연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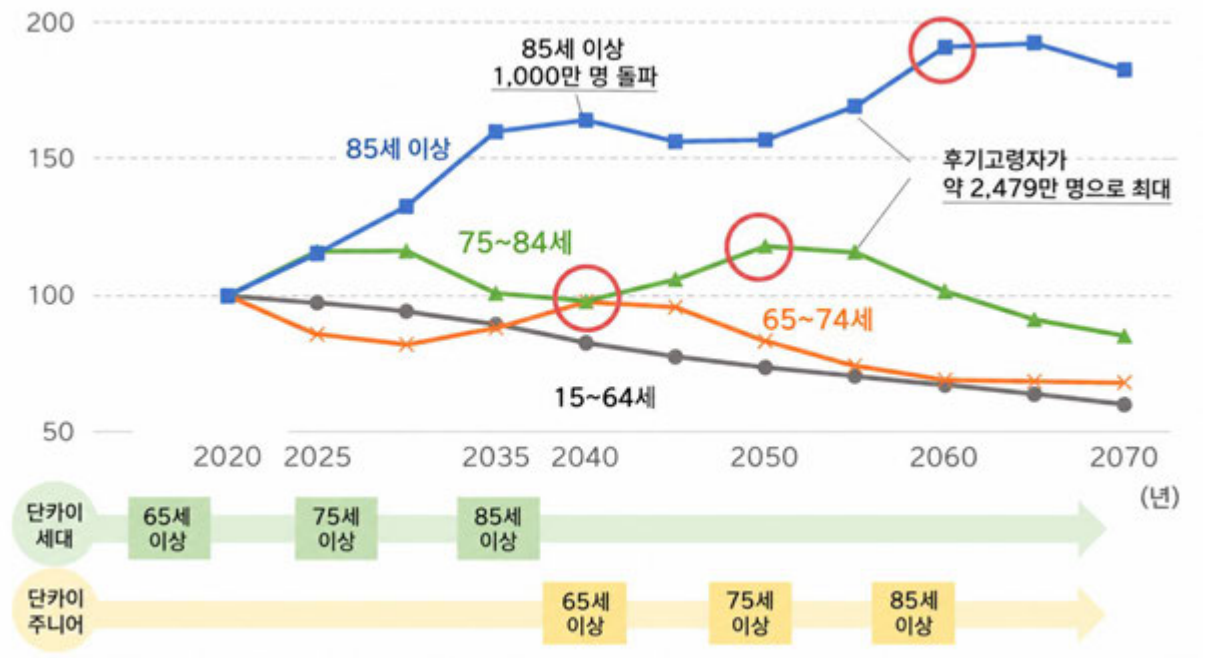
■ 사업자 수준의 통합에서는:
- 한 사업자가 여러 기능을 결합해 제공하는 것 자체는 통합돌봄의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 다만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라 다른 법인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타 법인과의 협력 비용을 피하고 자체 서비스만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통합'을 명분으로 이용자를 묶어 두고 외부 서비스를 배제하는 현상이 커져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고령화의 '오르막'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 2040년경(베이비붐 세대가 90세 전후가 되는 시점)
- 일본의 개호 인력:
  - 2000년(개호보험 도입 당시): 약 55만 명
  - 2022년: 215만 명 이상(정점)
  - 202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집니다. →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합돌봄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한국도 향후 15년간 일본을 웃도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UFG

고령화의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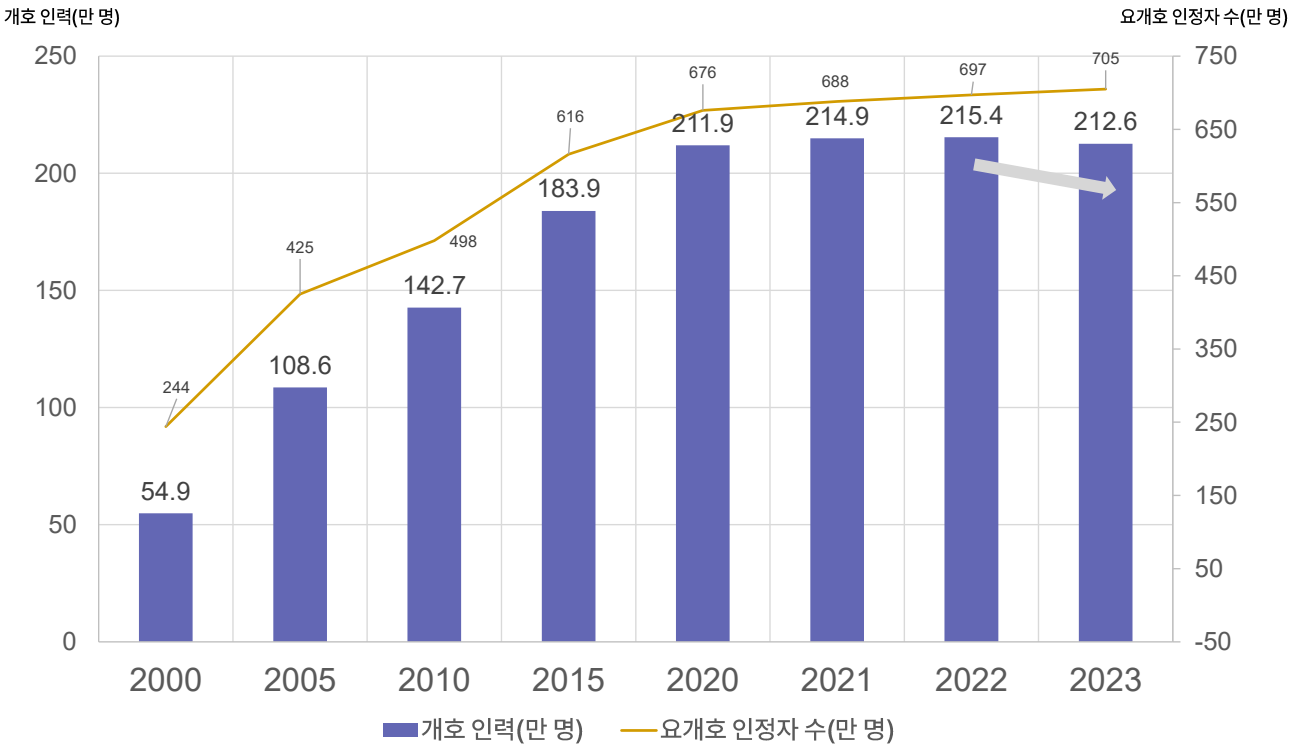


출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23년 추계, 출생 중위·사망 중위)」를 바탕으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작성.

2024년도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추진사업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한 복지 인력 양성·확보 및 지역의 다양한 인력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7쪽.

MUFG

일본의 개호 인력은 2000년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2023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MUFG

발표자 소개

이와나 레이스케 (IWANA, Reisuke)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사회정책부 · 수석연구원



전문 분야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지원(지자체)
지역복지 · 지역공생사회

주요 경력

- 지역포괄케어연구회(좌장: 다나카 시게루 게이오기주쿠대학 대학원 명예교수) 사무국 총괄(2010~2016년)
- 요개호 인정 적정화사업 전문위원(2007~2017년)
- 히로시마현·무사시노시·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 등 지역포괄케어 선진 지역에서 컨설팅 수행

- 다나카 시게루 교수의 구상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화분 그림'을 시각화
- 주요 저서: 「개정판 지역포괄케어 성공 가이드」(다나카 시게루 감수·이와나 레이스케 편저)

위원회 활동(최근 실적 일부)

- 「다기능형 서비스 운영방안 위원회」 위원(전국개호사업자연맹)
- 「보험자의 개호정보 기반 데이터 활용 검토팀」 위원(국민건강보험중앙회)
- 「치매 배리어프리 선언·인증 검토위원회」 위원(일본 치매 민관협의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현황 평가지표 조사연구사업」 위원(일본종합연구소·노건보조금)
- 「개호보험 운영 현황 파악 도구를 활용한 보험자의 지역관리 역량 강화 조사연구사업」 위원(의료경제연구기구)



MUFG

日本におけ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は地域のケアを統合できたの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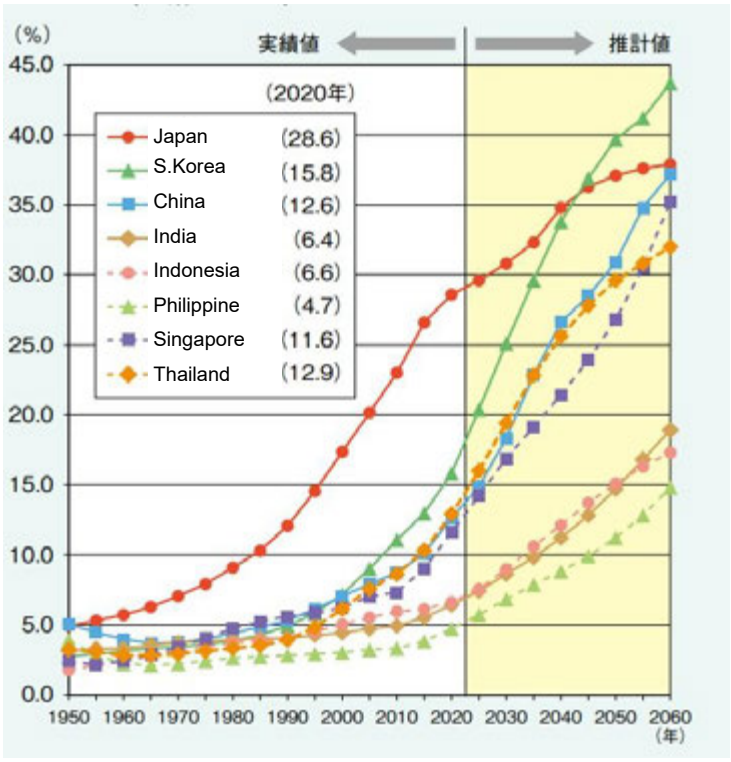
Has Japan'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Really Integrated Care in the Community?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主席研究員　岩名　礼介

Mitsubishi UFJ Research and Consulting
A member of MUFG, a global financial group

Some images in this presentation were generated using generative AI (Adobe Firefly).

世界の高齢化の先頭を走ってきた日本もいよいよ高齢化の最終段階



資料）内閣府「高齢社会白書」(2025)

日本におけ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定義と目的

「包括」という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が、英訳はCommunity based integrated care systemであり「統合」の意味。

「重度な要介護状態となっても**住み慣れた地域**で**自分らしい暮らし**を**人生の最後まで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住まい・医療・介護・予防・生活支援が一体的に提供され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厚生労働省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HP）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は、地域の実情に応じて、高齢者が、可能な限り、**住み慣れた地域でその有する能力に応じ自立した日常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医療、介護、介護予防（要介護状態若しくは要支援状態となることの予防又は要介護状態若しくは要支援状態の軽減若しくは悪化の防止をいう。）、住まい及び**自立した日常生活の支援が包括的に確保される体制**をい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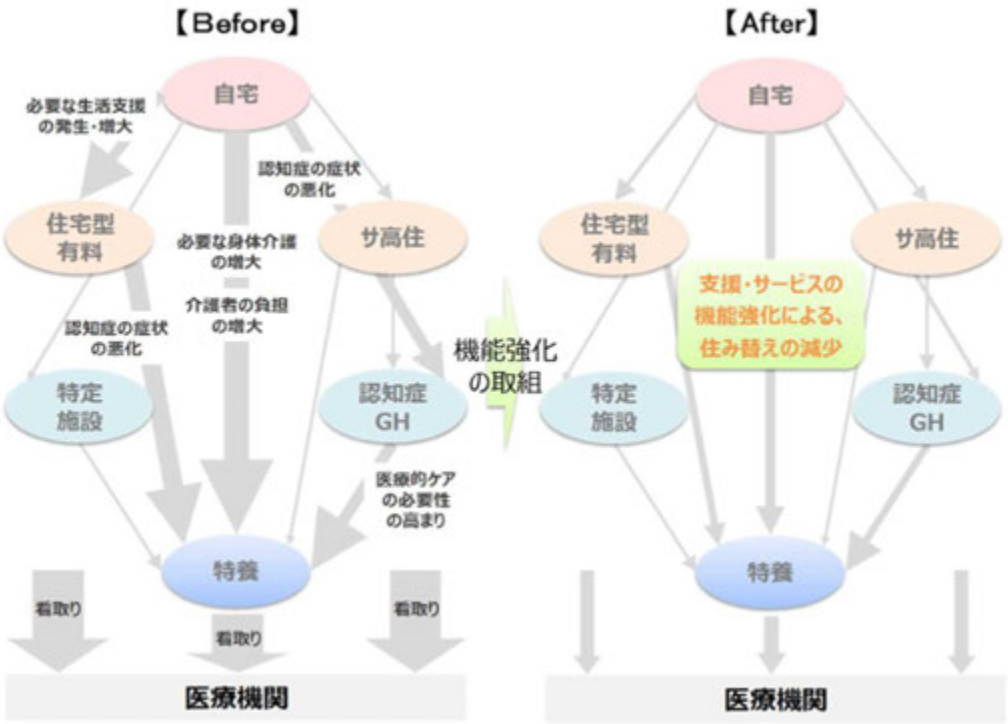
（地域における医療と介護の総合的な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最期は病院」が前提のシステムから「今の場所」が前提の仕組みに



資料）岩名礼介講演資料（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介護施設に入所したら安心」ではない。病院にたどり着くまで転々生活は続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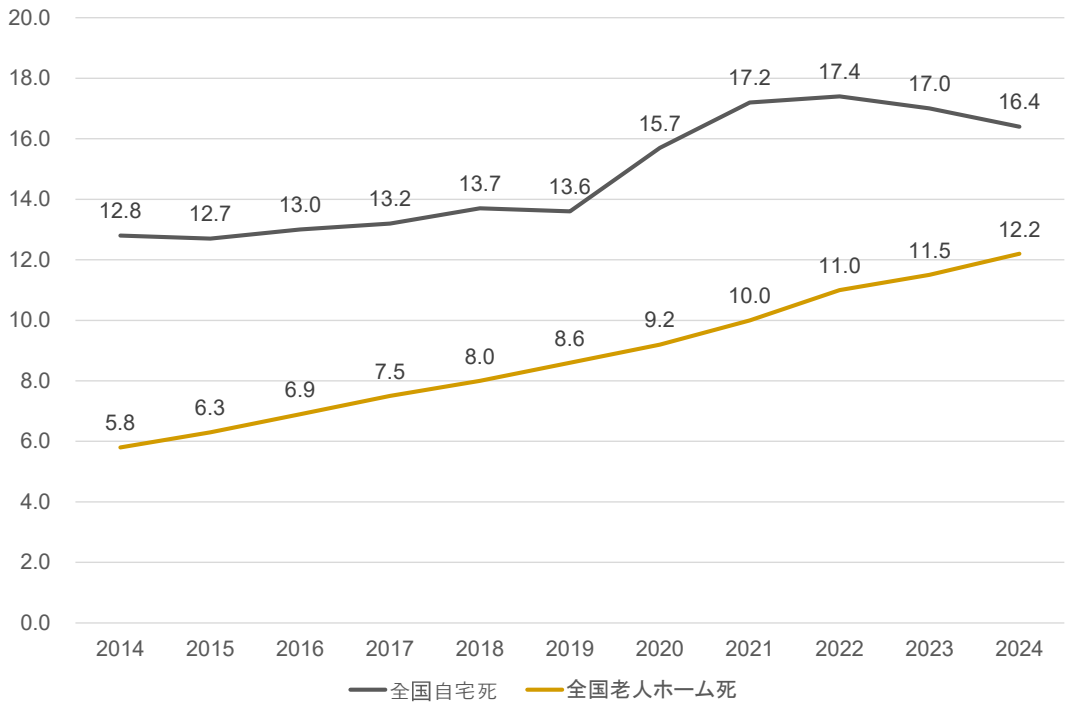


4 Mitsubishi UFJ Research and Consulting

資料）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介護保険事業計画における施策反映のための手引き」

MUFG

それでも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進展で自宅死・老人ホーム死は増加傾向にある



5 Mitsubishi UFJ Research and Consulting

資料）厚生労働省人口動態統計から岩名が作成

MUFG

何を「統合」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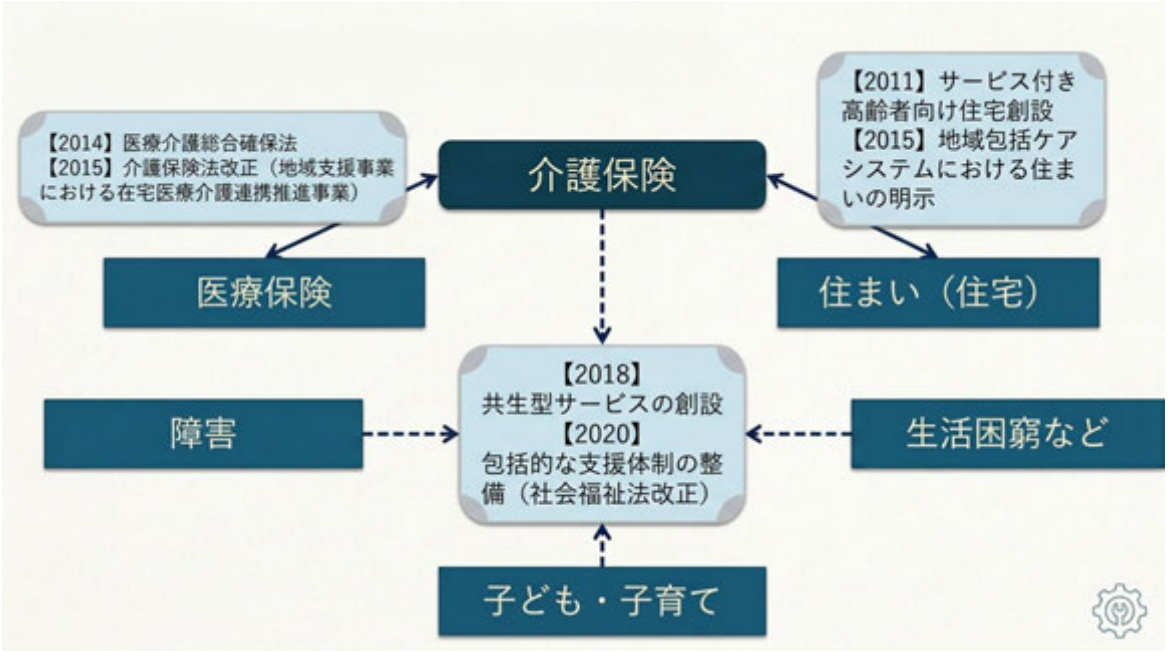
「包括」という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が、英訳はCommunity based integrated care systemであり「統合」の意味。

- 日本の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は**高齢者ケアシステム起点の統合**のプロセス。
  - ✓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全体を規定する基本法はなく、それぞれの領域での法律や施策が集合体として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を構成。
  - ✓ 特に起点は、介護保険となってい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所管も老健局であることがそのことを表している）。
  - ✓ 医療介護総合確保法があるが、これは医療と介護の主に資源部分での調整と整備促進のための法律であり、すべてを統合的に規定する基本法はない。
  - ✓ 高齢者ケアを起点に、医療・住まいとの統合が進む中、現在は、障害、子供、生活困窮との政策的な統合が進められている。

統合の対象領域	
規範的統合	地域包括ケアに関わるすべての主体が、「何をめざし、何を価値とし、何を大切にするのか」という基本的な理念・目標・価値観・基本コンセプトの共有。「住み慣れた地域での生活の継続」「自立支援」「自分らしいい生活」「尊厳の保持」「医療・介護・予防・住まい・生活支援を一体として提供」などゴールイメージを示した。いわば登山における山頂のイメージを関係者で共有（ただし、登山ルート（≒具体的な手法）は市町村レベルにゆだねる。
政策・制度レベルでの統合（システム的統合）	各分野ごとの政策・制度レベルでの統合。医療、介護、障害などの各分野の制度は独立した状態であり、財源も含め中央レベルでは統合されておらず、各制度間で整合性をとるレベルの統合にとどまっている。
市町村行政（保険者）レベルでの統合（組織的・機能的・臨床的統合を含む）	自治体レベルでは、地域ケア会議の立ち上げ、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権利擁護・総合相談・包括的・継続的ケアマネジメントなどをセンター機能として統合） 県レベルでの地域医療構想（必要病床数の調整）と受け皿となる市町村レベルでの介護保険事業計画の整合性の確保はより高いレベルでの統合が必要となる。
サービス提供現場レベルでの統合（組織的・機能的・臨床的統合を含む）	ケアマネジメントにおける多様なサービス・支援の統合や、多職種による連携（チームケア）、事業者におけるサービス機能の統合的な提供など。地域密着型サービスにおける定期巡回サービスや小規模多機能型サービスなどは、現場レベルでの多職種連携の推進力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

資料）岩名礼介講演資料（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参考】各分野間における統合（概要）



【参考】日本における各分野間の統合の歴史

年	① 医療 × 高齢介護	② 住まい × 高齢介護	③ 障害 × 高齢介護	④ 障害・子ども・生活困窮 × 高齢介護
1990年	**ゴールドプラン** （在宅サービスの量的整備） ※高齢分野の基盤整備の出発点	－	－	－
2000年	**介護保険制度（LTCI）施行** ※高齢介護の制度化	介護保険施設が「住まい＋ケア」として位置づけ（特養・老健など）	－	－
2003年	－	－	**支援費制度導入** ※障害福祉が給付制度へ転換し、介護保険的構造に近づき始める	－
2006年	**改正介護保険法施行** 地域密着型サービス（統合ケアサービス）、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創設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 ※障害福祉サービスの体系化・介護保険に類似した枠組みへ	－
2011年	－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制度創設** ※高齢者の「住まい」と介護サービスを政策的に結びつける枠組み	－	－
2013年	－	－	**障害者総合支援法施行** ※高齢介護と類似した制度構造に	－
2014年	**医療介護総合確保法成立** ・地域医療構想と介護保険計画の連動 ・医療介護総合確保基金創設	－	－	－
2015年	**改正介護保険法施行**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を明示 ・医療と介護の連携強化	**介護保険法改正**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成要素として「住まい」を明記	－	－
2018年	**改正介護保険法施行** 「共生型サービス」創設：高齢者・障害者・児童が同一事業所のサービスを利用可能に		**改正介護保険法施行** 「共生型サービス」創設：高齢者・障害者・児童が同一事業所のサービスを利用可能に	
2020年	－	－	**改正社会福祉法施行（包括的な支援体制の整備が自治体の努力義務に）** 「重層的支援体制整備事業」創設 高齢・障害・生活困窮・子ども子育てを包括的に支援する枠組み	
課題	実務的な統合は退院支援や在宅医療、ケア会議など現場レベルの調整に依存している。統合的なケアプランの制度枠が乏しく、医師と介護側の距離も残るため、統合の質と量に地域差が大きい。	制度としては国土交通省と厚生労働省の共管になっているが、実態把握が不十分であり、市町村レベルでの計画策定に支障がでている。行政が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点も課題に。	「共生型サービス」として、高齢者と障害者が同一事業所・同一サービス枠を利用できる仕組みもあるが導入に地域差が大きく制度全体を統合できていない統合は自治体や支援者同士の連携・運用に依存。	自治体間で進捗格差大。各制度の統合はなく、所管が市町村・都道府県に分立する領域もあり統合に向けた課題多い。成果把握にも課題あり。

資料）岩名礼介講演資料（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規範的統合の積極的な推進と残された課題

- 厚生労働省・地域包括ケア研究会による理念・コンセプトの共有
  - 政策文書としては「2015年の高齢者介護」報告書に初めて「包括的なケア」という用語が登場
  - 「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2008～2019）においてコンセプトの整理が進められ「植木鉢の絵」も提示され、その後、全国で利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
  - 市町村計画・職能団体でも同じ図と用語が広く利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

- 規範的統合（理念の共有）では一定の成果が得られた
  - ただし、各領域（医療・介護・福祉）における政策・制度の統合（システム的統合）は整合性をとるレベルであったた。
  - このため、具体的な統合のプロセスの大半は、実質的に市町村保険者、事業者、専門職の取組に政策予算の交付とともに委ねられた。



【地域包括ケアの構成要素を伝えるコンセプト図】
出所）：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に向けた制度及びサービス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事業報告書」（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平成27年度老人保健健康増進等事業。

「形式的な地方分権」と「実質的な中央依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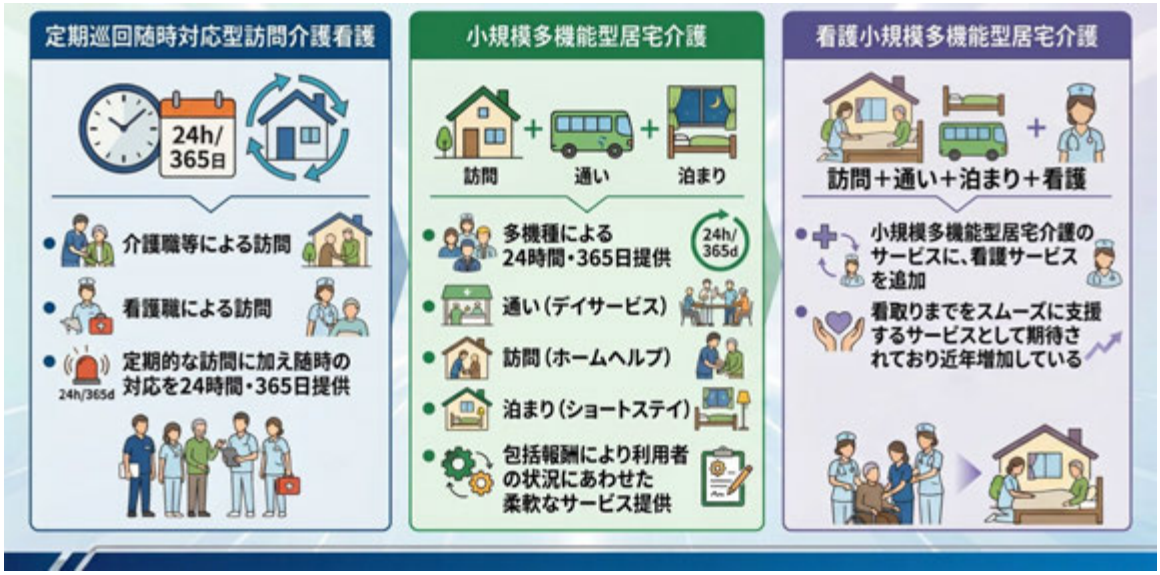
■ 2000年：介護保険施行「介護保険は地方分権の試金石」
- しかし長年の通知行政・ガイドライン依存もあり、自治体には企画・地域デザイン機能を発揮するだけの経験や蓄積が十分ではなかった。
- 形式的な地方分権は進んだが実質的には中央依存から脱却しきれず。

■ 自治体格差
- 自治事務（市町村の裁量で決定できる行政事務）であることを最大限に生かした積極的な取組を推進する自治体が登場する一方で、
- 「トレースするだけでうまくいく細かなガイドラインがほしい」と考える自治体も少なくない→「先進事例の横展開（コピー）する自治体文化の定着」

■ 進むべき方向性は共有されているが、市町村レベル・現場レベルでの「統合」が不十分なため、地域間格差を拡大している状態

地域密着型3サービス（定期巡回サービス／小規模多機能／看護小規模多機能）

- 機能の異なる専門職サービスを連動させて利用者を支える。小多機ならば「通い」「訪問」「泊り」の組み合わせ。定期巡回ならば「介護」「看護」の組み合わせなど。
- 一か月あたりの包括報酬により、柔軟なサービス提供が可能な居宅サービス。
- 政府は、これらのサービスを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中核的なサービスとして位置付け。



資料）岩名礼介講演資料（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サービス拠点レベルでの統合も行われている



資料）岩名礼介講演資料（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サービス提供レベルにおける統合で生じた課題～サービス提供者における「囲い込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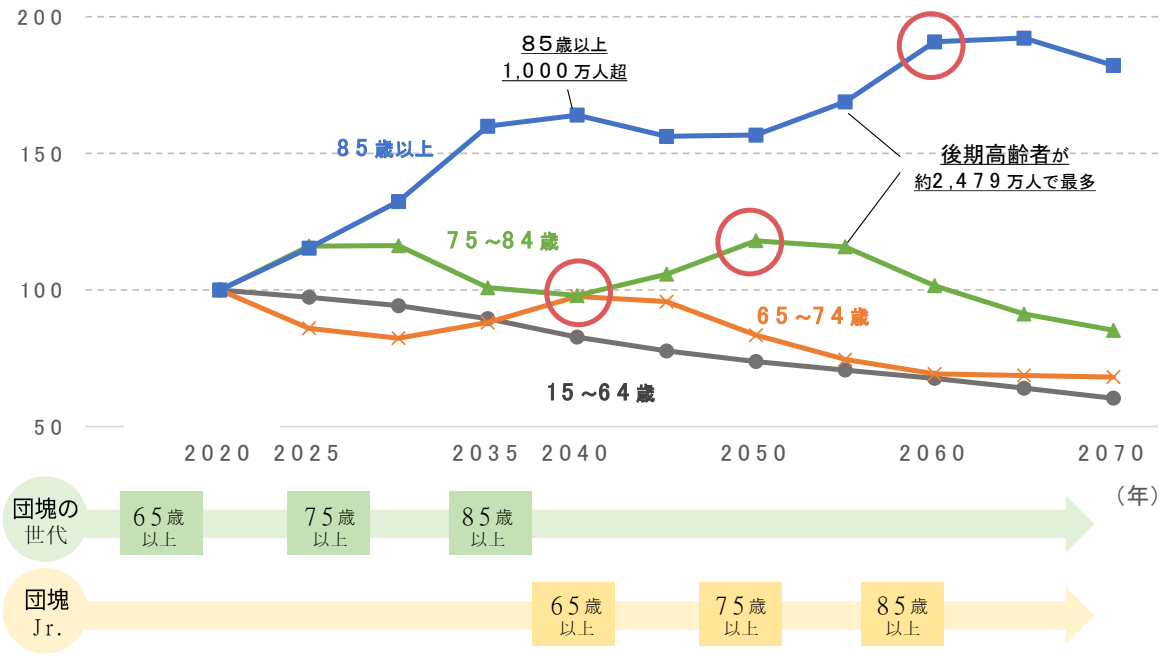
- 高齢者介護領域内部でのサービス間の統合は一定の進捗：
  - 地域密着型サービス（定期巡回随時対応型、看護小規模多機能など統合型サービスの創設と定着）
- しかし、分野横断連携は：
  - 地域ケア会議が「限られた顔ぶれ」で閉じることが多い
  - 医療/看護と介護、あるいは介護と福祉の領域間では基礎資格の教育課程の違いなどもあり、引き続き「人見知りな連携」になることも少なくない。
- 事業者レベルの統合：
  - 元々統合的なケアにおいては単一事業者が複数機能を統合して提供すること自体は自然
  - だが、利用者の状態変化に応じて他法人のサービスを組み合わせる柔軟性も重要
  - 他法人サービスとの連携コストを避け、内部完結で利益を最大化しようとする一部事業者の動きが活発化
  - 「統合」の名を借りた顧客囲い込み・他サービスの排除が進行しており、大きな課題となっている。

最後の上り坂とどう向き合うか?

- 高齢化の「上り坂」のピーク：2040年頃（ベビーブーマーが90歳近辺）
- 日本の介護人材：
  - 2000年（介護保険創設時）：約55万人
  - 2022年：215万人超（ピーク）
  - 2023年以降：減少に転じる
- 高齢化はこれからが急勾配 → 人材が減る局面で統合的ケアを維持する必要
  - 韓国も今後15年で日本の高齢化を上回るペース

MUFG

最後の上り坂とどう向き合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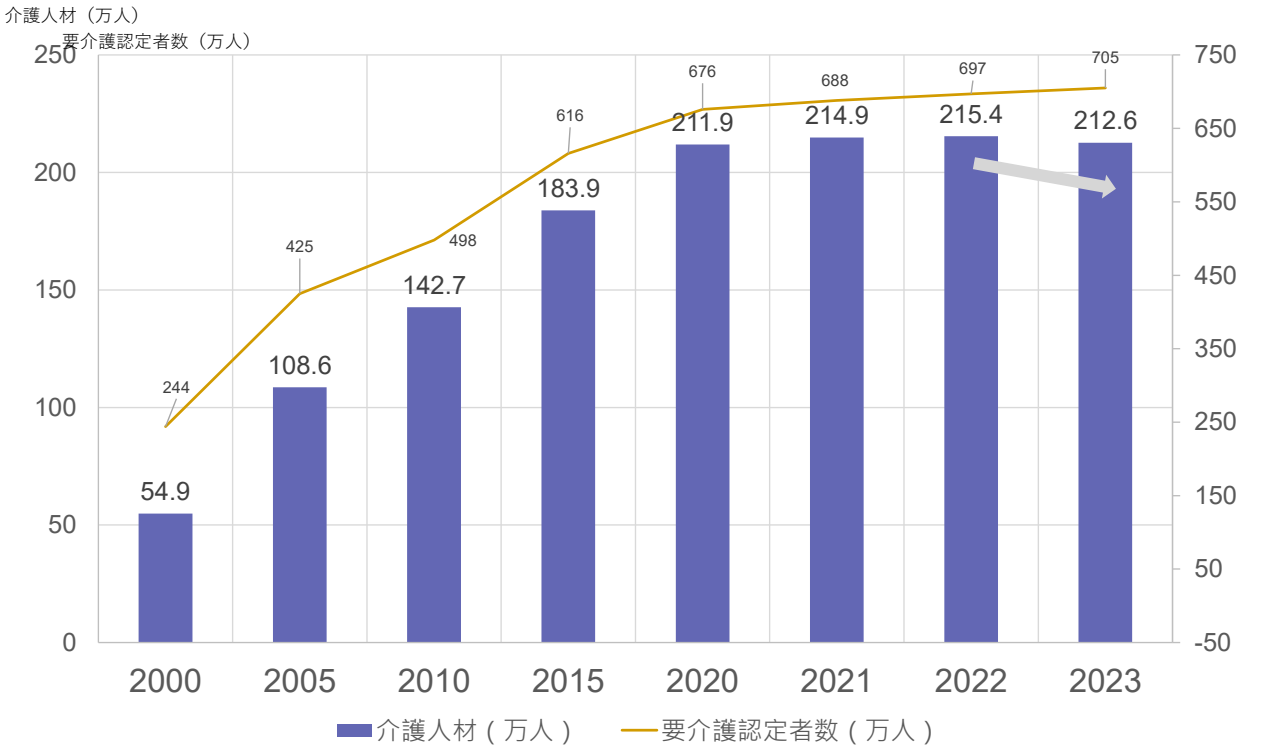


（出典）「日本の将来推計人口（令和5年推計）（出生中位（死亡中位）推計）」（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をもとに、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が作成

令和６年度　厚生労働省生活困窮者就労準備支援事業費等補助金社会福祉推進事業「人口減少社会に対応した福祉人材の養成・確保や地域の多様な人材の活用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7ページ

MUFG

介護人材は介護保険創設（2000）から継続的に増加してきたが2023年に初めて減少に転じた



（出典）厚生労働省資料

MUFG

Introduction

IWANA, Reisuke
Mitsubishi UFJ Research & Consulting Co., Ltd
Department of Social Policies
Principal Research Analyst



専門分野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支援（自治体支援）
地域福祉・地域共生社会

主要実績
- ■地域包括ケア研究会（座長：田中滋慶応義塾大学大学院名誉教授）事務局統括（H22-28）
- ■要介護認定適正化事業認定適正化専門員（H19-H29）
- ■広島県、武蔵野市、横浜市、川崎市など、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先進地域において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に従事。

- ■田中滋慶応義塾大学名誉教授発案の「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植木鉢」のデザイン化を担当。
- ■近著に、「新版　地域包括ケアサクセスガイド」（田中滋監修・岩名礼介編著）

委員会委員（近年物の一部）
- 「多機能型サービス在り方委員会」委員（一般社団法人全国介護事業者連盟）
- 「保険者における介護情報基盤のデータ等の利活用検討チーム」委員（国民健康保険中央会）
- 「認知症バリアフリー宣言・認証検討委員会」委員（日本認知症官民協議会）
-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た取組状況の評価指標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委員（日本総研[老健補助金]）
- 「介護保険制度の実施状況に係る全体像把握のためのツールを活用した保険者の地域マネジメント強化に資する調査研究事業」委員（医療経済研究機構）



MUFG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강연 II

사람을 돕는 기술, 에이지 테크에서 찾은 기회



김 영 선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장(노인학과 교수)

2026 한일시니어포럼

초고령사회 한국, 티핑포인트 2026 : AgeTech

“사람을 돕는 기술, AgeTech에서 찾은 기회”

새로운 성장엔진 AgeTech 최신동향 및 한-일협력방안 제언

2026. 11. 5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AgeTech, 2025; 경희대 AgeTech연구소, 2026)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장 김영선 ysunkim@khu.ac.kr
노인학과 교수 | BK21 AgeTech 교육연구단장
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자문단 | AI·피지컬AI돌봄기술 R&D 기획위원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CONTENTS

Ⅰ AgeTech 주요 내용 및 시니어산업 전망
Ⅱ AgeTech 국내외 최신 정책 동향
Ⅲ AgeTech X 피지컬AI 수요 분석결과
Ⅳ 한-일 협력을 위한 AgeTech·시니어산업 아젠다 제언

소개 1

경희대학교 AgeTech 교육-연구-산업생태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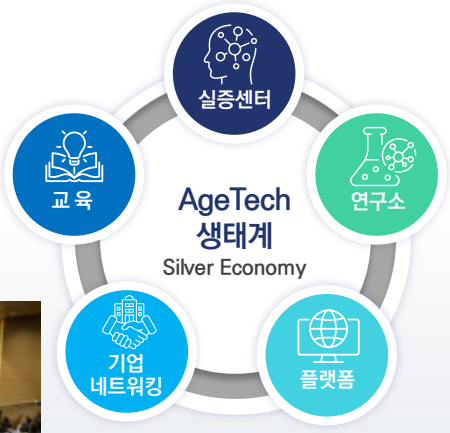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교육) BK21 (Brain Korea)

BK AgeTech 교육연구단(2020-2027)

※ 우수교육연구단 선정

노인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의학과	의학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연구) AgeTech 연구소

AgeTech 연구소

R&D 연구센터 | 실증센터 교육센터 | 케어 로봇센터 | 영양·헬스 케어센터 | AI센터 | Super -cluster

AgeTech 평가 플랫폼

AgeTech실증센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실증장비



실증리빙랩







(산업) 시니어산업-AgeTech 포럼 및 기업네트워킹

(2016~현재 운영, 1,000개 시니어산업 기업 참여 / 2026.10.21.코엑스)

2016-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I AgeTech 개념 및 기술-산업 동향

시니어산업은 AgeTech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1. AgeTech 및 시니어산업 전망
2. AgeTech 효과성

1 AgeTech 및 시니어산업 전망

1 AgeTech개념 및 핵심분야



AgeTech 개념

고령친화기술, 돌봄기술, Care Tech, Gerontechnology ; Assistive Technology; Welfare Technology

- 시니어 및 이들을 돌보는 돌봄인력을 위한 모든 기술·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
- AgeTech :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전망
  -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시니어의 독립성과 연결성, 삶의질 향상위한 혁신적 생태계
  - AI와 연결되어 더욱 개인화되고 정밀화된 방향으로 시니어의 삶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

AgeTech 3대 핵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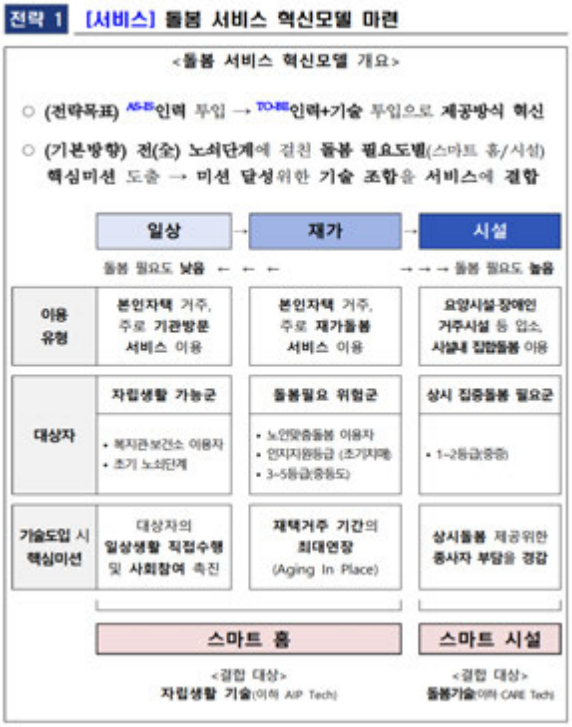
1. [시니어 자립생활기술(AIP* Tech)] 주거•스마트홈, 정서지원, 운동•재활, 이동, 디지털 헬스케어, 시니어영양, 여가, 금융
2. [돌봄인력을 위한 돌봄기술(Care Tech)] 돌봄인력의 신체적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대비를 위한 기술
3. [에이지테크 리터러시(AgeTech Literacy)] 시니어가 기술을 잘 사용하여 수용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서비스 연계 모델



※ 출처 : 감영선, AgeTech(2025),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0) 57

1 돌봄기술 개요 *출처 : 과기장관회의,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전략(2026.4)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2 글로벌 AgeTech 메가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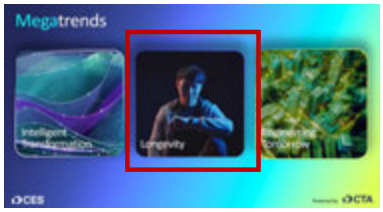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시니어산업에서 AI기반의 AgeTech가 핵심트렌드 (WEF, 2025)

- 건강장수를 위한 핵심전략(Technology & Innovation for Healthy Longevity)으로서 AgeTech가 핵심 영역으로 제시됨
- AI,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은 시니어의 금융, 건강, 일자리를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
- AI기반 지속가능한 실버이코노미 구축을 위해 인간중심적이고 포용적인 기술 통합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제시

AgeTech 트렌드: 2026 CES 메가트렌드로서 장수(Longevity) 제시 (CTA, 2026)

-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기술 : 접근성(Accessibility), 정신건강(Mental Health), 웰니스(Wellness)
- 스마트한 삶을 위한 기술(스마트홈) : AI전환, 허브 기반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 보안 표준
-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술 : 건강관리를 넘어서 패션, 뷰티영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강조



AgeTech 기술표준: IEEE, AgeTech 기술표준화 체계 2025년 본격출범 (IEEE, 2025; IEC, 2025)

- IEEE AgeTech Initiative(2025) : 초고령사회 대응 시니어 삶의 질 위해 AgeTech표준 개발 목적으로 이니셔티브 출범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63310:2025) AAL(Active Assisted Living) : 스마트홈 환경에서 AAL로봇 기능적 성능 기준을 공식 발표하여 시니어의 생리적, 행동적 특성 반영하여 AAL로봇 설계, 제조, 테스트 및 인증 기준 제공

8

예시

CES 2026 : AgeTech 제품 현황 예시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CES 2026 전체 혁신상 452건 중 한국 168건을 수상하였는데 그 중의 1/3이 AgeTech분야로 나타나 한국의 AgeTech높은 기술력을 선보임
- 한국기술은 AI기반 일상생활지원(예: 삼성 AI Home), AI와 로봇을 결합한 신체적 보조(예: LG클로이드, 휴로보틱스 등) 등으로 나타남

시니어 스마트홈

- 홈 모니터링 시스템, 단순한 보안이나 알림을 넘어, 홈 이벤트 요약, 상황별 맞춤 추천, TV에서 건강 정보 제공하는 최초의 완전 엣지 기반 AI 시스템



Samsung: EdgeAware AI Home

시니어 스마트홈 & 로봇

- AI 홈 로봇(클로이드)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을 연계하여 가사 작업 자동화



LG: AI Home Robot (LG클로이드)

시니어 이동성

- AI기반 주변환경 감지 및 보정 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기술 제시, 최고혁신상 수상



LBS tech: MaaS-Bridge: Accessible MaaS

시니어 디지털헬스케어

- 단순한 건강관리에서 AI를 기반으로 예측형 및 맞춤형 관리 및 치료로 발전



EXoPERT: Exosome-SERS-AI Multi-Cancer Early Detection Platform

시니어 로봇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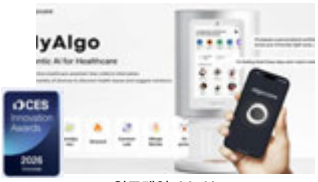
- 고령화와 노동력 수요 변화로 인한 노동력부족문제 해결 위해 산업현장 목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은 주목을 받음



휴로보틱스: H-Medi Pro

시니어 영양(푸드테크)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제공 위한 영양제, 건강정보 제공



알고케어: MyAlgo

시니어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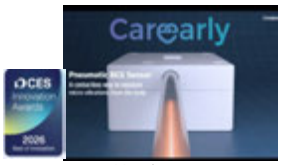
- 인지저하 기능 돕는 기기(북스토리)들이 AI와 결합하여 제시



웅진씽크빅: Booxtory 2.0

돌봄기술

- 고령자 위급상황 대응 위한 모니터링, 돌봄인력과 시설 효율적 운영 위한 플랫폼 기술



돌봄드림: Carearly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예시

AgeTech 분야 : 시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니어영양, 시니어 운동재활기기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미국_Abbott 社의 Lingo



한국_디파이 社의 안단테핏



한국_엠로시스 社의 Cym702 Seat(스마트 토일렛)



미국_Dexcom 社의 Stelo



미국_Lumia Health 社의 혈류 모니터링 기기



대만_FaceHeart 社의 CardioMirror

구분	KS 1단계 차마십취	KS 2단계 맛봄십취	KS 3단계 허로십취
품목수	14	3	22
	양념육 갈치무조림 콩조림, 만두 돼지고기장조림 그래놀라, 오믈렛	소고기장조림 함박스테이크 에그샐러드	죽류, 프라믹스, 쿠키 무스, 계란찜
사진			



한국_삼성전자 社의 봇핏



한국_위로보틱스 社의 WIM



중국_Hypershell 社의 Carbon X



미국_Kemtai 社의 운동재활 플랫폼



한국_랜엔텔 社의 드림바이크



한국_리얼디자인테크 社의 얼티레이서

*출처 : 김영선, AgeTech(2025) 발췌

예시 AgeTech 분야 : 돌봄로봇, 디지털 접근성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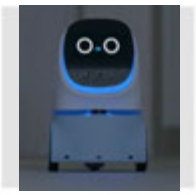
Care bidet



Smart diaper




싱가포르_SilverActivities 社의 Sebbi


한국_로보케어 社의 실벗


한국_로아이젠 社의 마이봄 미니3




일본_Muscle corporation 社의 SASUKE


미국_Xander 社의 Xander Glasses Connect


한국_브레인데크 社의 블링스


한국_케어유 社의 엔브레인

*출처 : 김영선, AgeTech(2025) 발췌

3 2026 시니어산업 핵심 트랜드 : "AI"(세계경제포럼 WEF)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시니어산업에서 AI는 핵심트랜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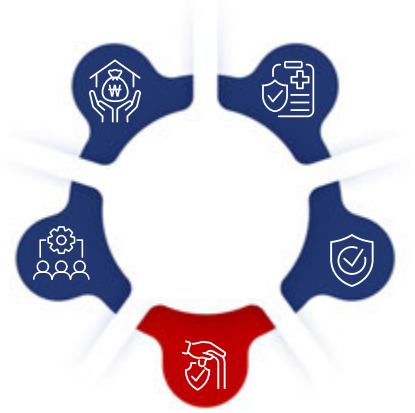
- AI,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은 시니어의 금융, 건강, 일자리를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
- AI기반의 지속가능한 실버 이코노미 구축을 위해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기술 통합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임

재정 보상 및 접근성 향상

- AI 기반 금융 기술은 개인 맞춤형 투자와 자동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 그러나 편향, 보안, 정보 신뢰성 문제에 대한 감시 필요

커리어 재설계

- 자동화와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 참여와 역량 유지를 지원함.
-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생애 후반의 커리어 재설계를 가능하게 함.



정밀 진단 및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 AI는 만성질환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 관리에 기여하고, 스마트홈 및 돌봄 로봇이 자립적 노년을 지원함
-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인간 개입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됨

포용적 기술 도입의 필요성

- AI 도입은 연령 편견이나 데이터 편향 등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책임 있는 거버넌스와 보호 장치가 필수적임.

미래 방향: 지속가능한 실버 이코노미를 위한 기술 통합

- **AI에 따른 위험은 분명 존재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재정 회복력 강화, 건강 증진, 생애 전반에 걸친 의미 있는 일 경험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

※ 출처 : WEF(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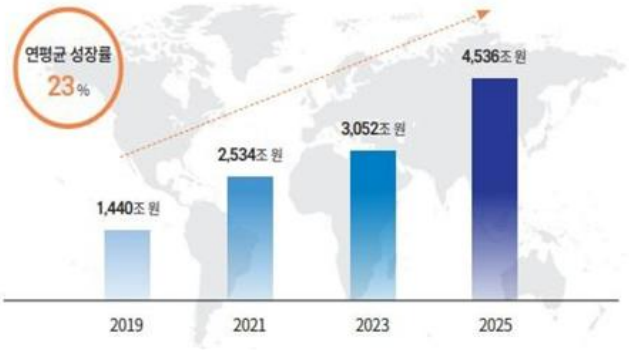
4 AgeTech 성장율 및 시니어산업 규모 전망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글로벌 AgeTech 성장율] 2019년 1,440조 원 → 2025년 4,536조원 : 연간 23% 높은 성장율
- [한국 시니어산업 전망] 2024년 83조원 → 2030년 126조-최대 271조원까지 전망(연평균 13%-22%%로 성장)
- 노인돌봄 분야 AI 시장 4배 성장(연간 24%) : 2025년 544억 달러 → 2030년 1,585억 달러
  (규모) 북미가 최대 시장, 아시아·태평양이 최고 성장 지역
  (참여) 아마존·구글·삼성전자·MS·엔비디아·필립스 등 빅테크업과 Sensi.AI·CarePredict 등 전문 스타트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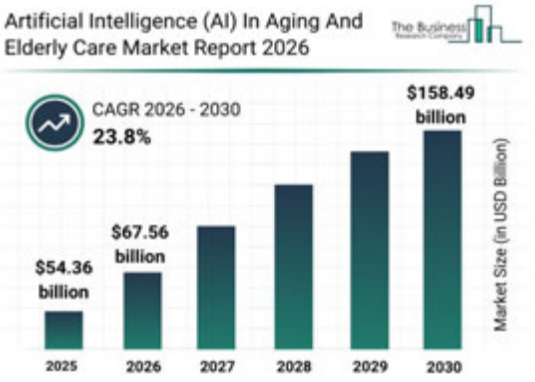
글로벌 AgeTech 성장율 및 시장 규모

글로벌 AgeTech 시장 '19년 1,440조 원 → 25년 4,536조원(연간 23% 성장률)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Aging analytics agency(2025) 재가공

글로벌 AI돌봄서비스 시장 규모



※ 출처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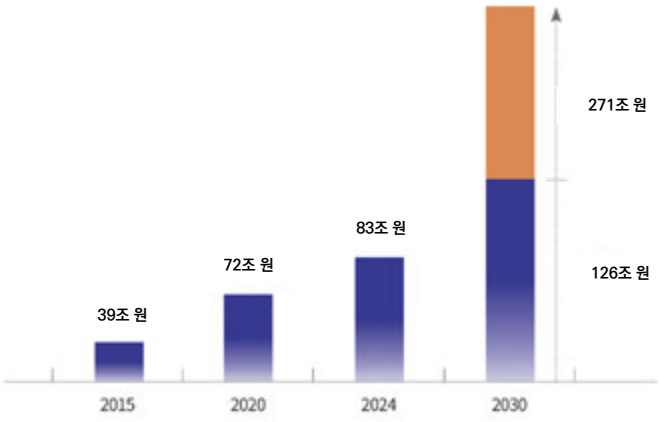
13

5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 전망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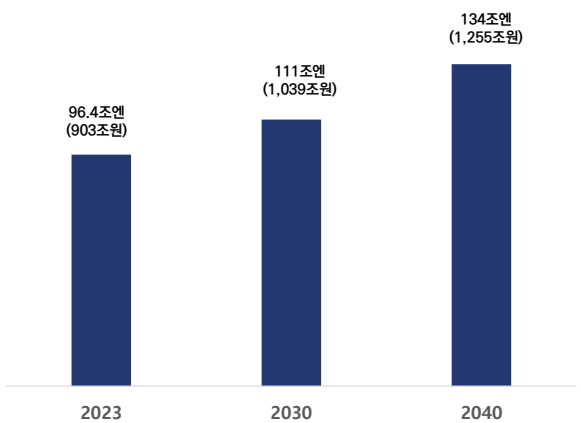
- 한국 시니어 산업 규모: 2030년 126조 원에서 최대 271조원 전망 (연평균증가율 13-22%)
- 일본 시니어 산업 규모: 2030년 111조 엔(1,039조 원)에서 2040년 134조 엔(1,255조 원) 전망 (연평균증가율 2%)

한국 시니어 산업 전망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AgeTech코호트

일본 시니어 산업 전망



※ 출처 : 닛세이 기초연구소(2013), 미즈호 은행(2026) 재가공

14

2

AgeTech 효과성
: 한국 돌봄로봇 연구결과 중심

1 한국 AgeTech 정책 현황 및 전망 : 돌봄로봇 R&D을 중심으로 국가지원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AgeTech 국가지원 현황] 돌봄로봇 R&D,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AgeTech관련 국가지원 진행
- [AgeTech 국가지원 방향] 본격적 AgeTech 국가지원 논의를 경희대 AgeTech연구소가 주도하여 AgeTech R&D 기획 추진 중(2025.8~현재)

돌봄로봇 R&D

보건복지부, 산업통자원부
1단계 4종 돌봄로봇 R&D (2019-2022)

[경희대] 이승보조로봇 R&D 수행(2019-21,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9종 돌봄로봇 R&D (2023-2027)

[경희대] 이승보조로봇 R&D수행(2023-24, 산업통상자원부)
[경희대] 9종 돌봄로봇 R&D수행(2023-27, 보건복지부)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1; 2025)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취약가구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응급 안전 장비 설치·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2024)

16

참고 돌봄로봇 개념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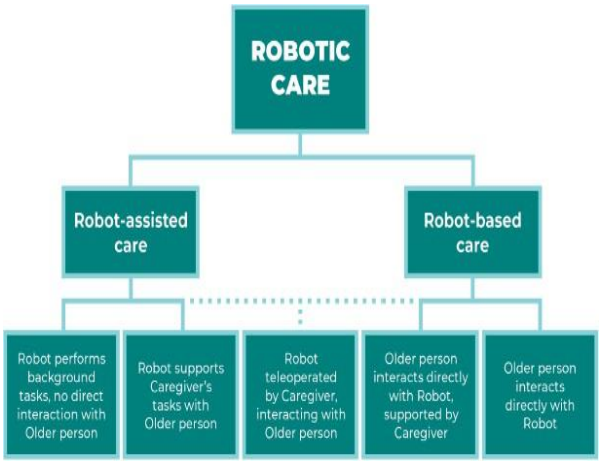
돌봄로봇의 개념

- 로봇기술이 응용되어 이용자의 자립지원, 돌봄인력의 부담경감에 도움 되는 돌봄 관련 기기

- 국가별 돌봄로봇 정의
  - [한국의 정의]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및 돌봄인력의 부담경감을 위해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국립재활원, 2018)
  - [일본의 정의] 개호로봇이란 정보 감지(센서 등), 판단 실시(지능· 제어 등), 동작 실행(구동 관련)의 3개의 기술요소를 가진 지능화된 기계와 시스템으로서 로봇 기술이 응용되어 이용자의 자립지원이나 돌봄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개호 관련 기기(후생노동성, 2015)
  - [EU의 정의] 돌봄로봇이란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때 잠재적인 사용자, 노인, 비공식 돌봄인력과 공식 돌봄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The European Commission, 2021)

돌봄로봇의 정의에 따른 돌봄로봇의 유형

- 로봇 보조에 의해 돌봄인력의 부담경감 목적의 돌봄과
- 로봇 기반의 돌봄으로 이용자의 자립지원에 도움되는 돌봄로봇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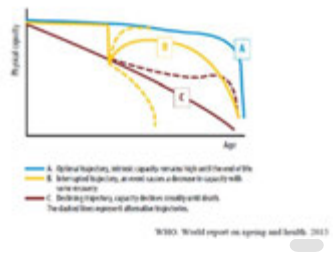
71

2 [시니어] 다차원적 건강노화에 기여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경희대 AgeTech연구소 연구결과, 커뮤니케이션로봇 및 인지재활로봇 등의 로봇, 케어기기(자전거 등)등의 제품 이용 뿐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대상 시니어서비스, 복지관 이용 시니어 대상 디지털기반 비대면 프로그램 등 기술-서비스 연계한 실증연구에서 신체건강(주관적 건강, 노쇠, 영양상태), 인지건강, 심리건강(우울, 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건강(사회적 지지, 주관적고립감) 등 다차원적 건강노화 분야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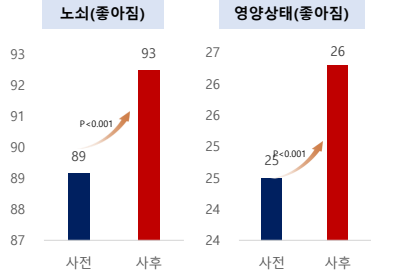
[건강노화 : 노쇠 등 시니어건강 회복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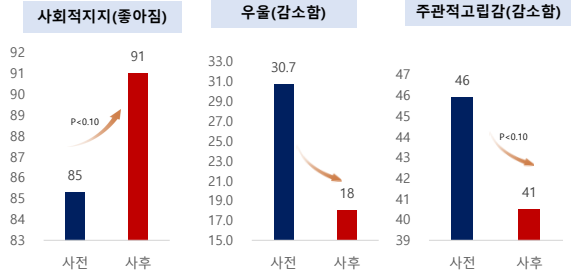
AgeTech 이용전후 건강노화(Healthy Aging)점수 개선정도

100점만점 ■ 사전 ■ 사후

신체적/기능적/인지적 건강



사회적/심리적 건강



*시니어서비스실증연구(2023-2024), 케어기기(2023), 커뮤니케이션로봇(2023), 디지털기반비대면프로그램(2023), 인지재활로봇(2024)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2023; 2022)

18

3 [돌봄인력] 신체적 부담 경감 및 이용의향 제고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이승보조로봇 효과성 검증 결과

- 신체적 부담 감소효과 : 노인돌봄인력이 이승보조로봇을 사용할 때 사람이 직접 드는 것보다 근육사용량 최대 63% 감소함
- 작업부하 감소효과 : 노인돌봄인력이 이승보조로봇을 사용할 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의미하는 작업부하 약 7% 감소함

*(참고) 한국 요양보호사 중 50~70대가 93.1%(보건복지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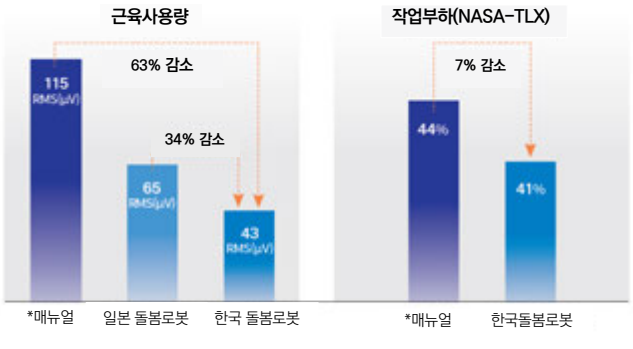


이승보조로봇



착용형로봇

이승보조로봇 효과성 검증 결과



*매뉴얼: 사람이 사람을 직접 들어올리는 일반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의미함

* 출처 : 김영선 (2025)

돌봄로봇 효과성 검증 대표논문



* 출처 : Kim et al(2024, 2025)

26

3-2 [돌봄인력] 돌봄로봇별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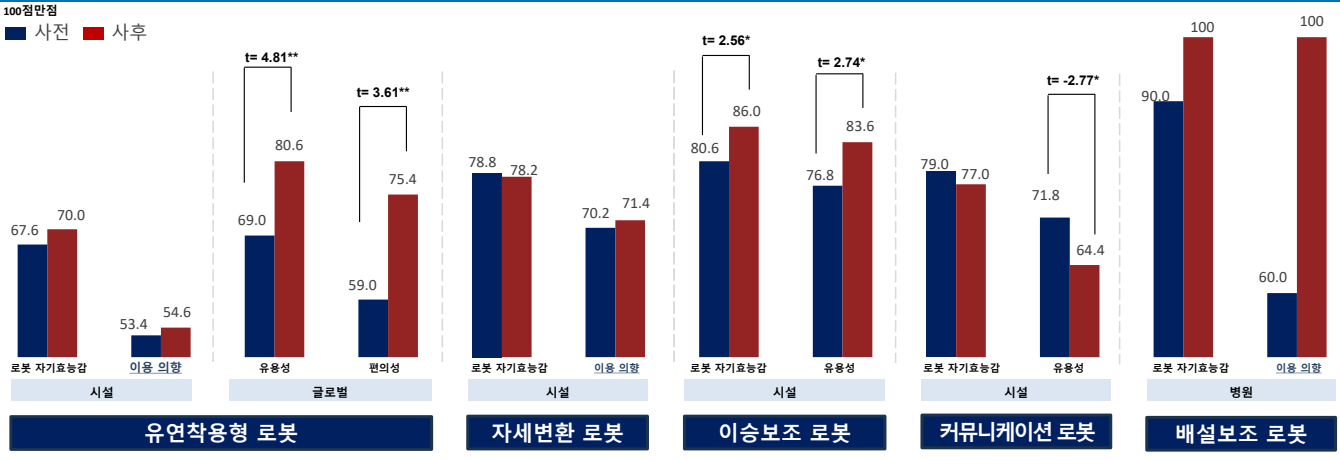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노인돌봄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결과, 유용성, 편의성, 로봇자기효능감이 로봇이용 전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돌봄인력 대상 한국의 요양시설, 병원 뿐 아니라 글로벌(태국)에서의 실증 등 다양한 환경에서 9종 로봇 실증 수행 진행 예정

※고령자를 대상으로도 가정, 시설 등의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로봇, 배설보조로봇 등 돌봄로봇 실증 진행 중

돌봄인력 대상 돌봄로봇 실증연구 [대표사례]



*p<0.05, **p<0.01, ***p<0.001

※커뮤니케이션로봇: 로봇 이용은 시설입소노인 대상 진행하고 노인돌봄인력은 해당기간 동안의 인식변화를 확인위한 조사 수행함

※배설보조로봇 : 병원환경에서의 파일럿 실증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표본 및 자유도 부족으로 통계적 유의성 확인 불가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19-2023, 2023-2027) 돌봄로봇 실증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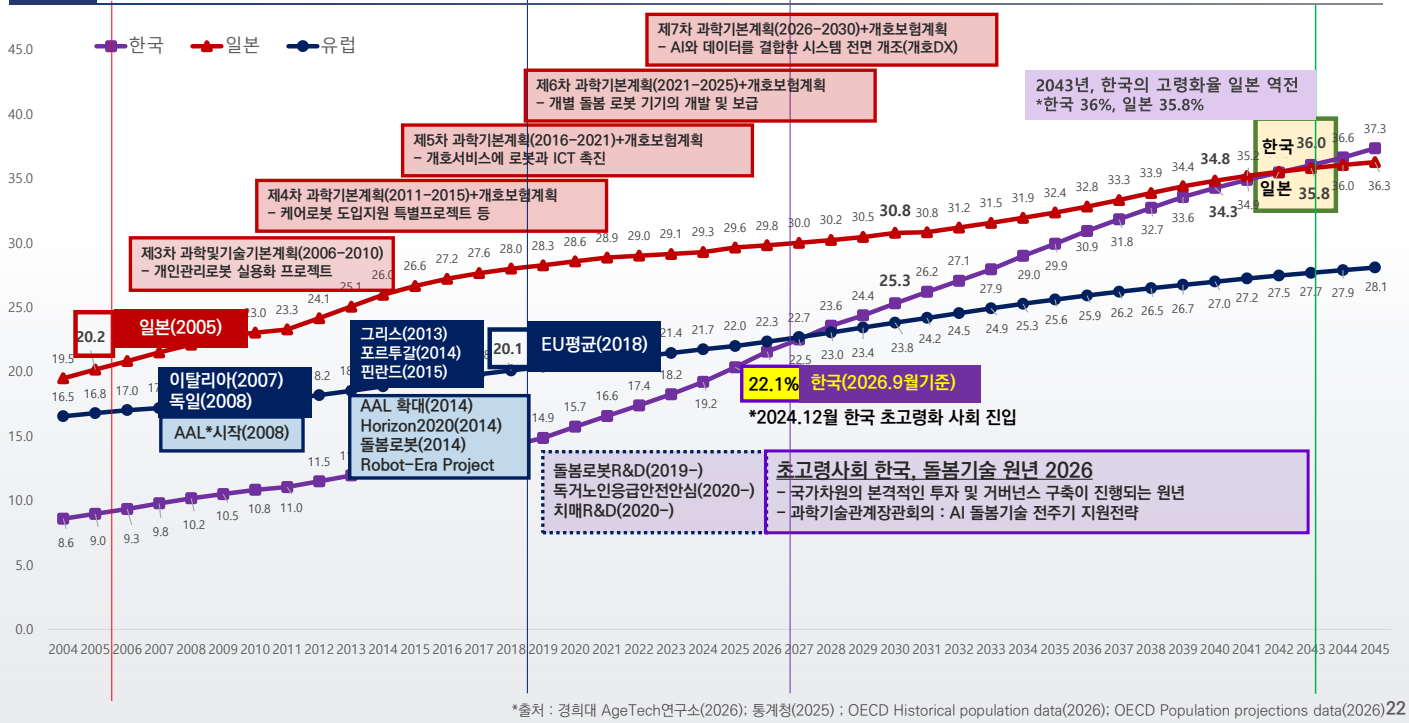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Ⅲ AgeTech 정책 국내외 최신 동향

AgeTech-시니어산업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액션플랜이 중요하다

개괄 초고령국가(20%) 도달시기에 시행한 핵심 아젠다 및 시사점 : AgeTech중심의 실버경제(Silver Economy) 생태계를 위한 국가차원의 본격적 투자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통계청(2025)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2026); OECD Population projections data(2026)

1

AgeTech/돌봄기술 R&D정책

■ 표시 : 2026년부터 시행

1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25.8.20)' 요약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123대 국정과제 비전 및 추진전략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민이 아니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협력이 넘치는 인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일부 발췌

5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실행전략 ② 국민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소득안전망 강화

□ AI기반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발굴) AI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별의 정확도 제고

* 사각지대 발굴대상 20만명 → 위기정보 입수대상 900만명 + 생성형 상담

- 복지멤버십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돌봄·고용·금융 등 복합지원 강화

6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 · 균형 성장

실행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정비

○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수요 예측-인력 양성·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태파악 및 대응정책 개발·추진

-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설계를 반영한 고령친화주택, 1인가구 생활패턴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도 제고

□ 혁신과 성장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AI 등 혁신기술과 결합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부담 경감 및 신규시장 선점효과 확보

-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등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ESG 원칙의 대체투자 등 新 자산군 확대 적용으로 연구변화 대응 지원

- AI 로봇 등 온돌세대 수요에 맞는 Age-Tech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돌봄을 확대하고, 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강화

○ Age-Tech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

- (인프라 확충) 다양한 Age-Tech 제품·서비스를 개발·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Age-Tech 리빙랩" 구축, 수요 기반 사업화 지원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진흥원) 및 권역별 혁신센터(5개소) 리빙랩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생활밀착형 리빙랩 설치 추진

- (정책기반 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복지·돌봄기술 중장기 로드맵 마련, 「고령친화산업법」 개정 검토·추진체계 정비

○ 유망 돌봄 기술 분야 대상 선제적인 R&D 투자 강화

- (기획 연구) 돌봄에 대한 과학적 기초연구, '첨단기술을 돌봄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상용화 연구 등에 대한 R&D 투자'

* (예시) 돌봄인력의 동작을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분석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조장비 개발 및 표준업무 절차 개선 (또 스위치 도입 등 개선 사례 다수)

- (돌봄 로봇) 수요자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돌봄로봇 기술개발 및 중개연구, 돌봄 부담경감 서비스 모델 개발·실증 연구 추진

* (R&D)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23~'27, 266억 원)

○ 노인시설 등 돌봄 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 (모바일 환경) 현장 업무가 많은 종사자 특성을 반영, 업무 처리 지원

- (AI 활용) 핸드폰에서 AI에게 구술하여 돌봄 일지 등 작성

* (예시) 일본의 경우 로보틱스센서넷과 기록지 디지털 전환 등 개호기술 현장적용 → 돌봄인력 업무소요시간 60.2분 경감, 여간 인력배치기준 20% 완화 등 성과 도출

○ 고령화 등을 대비한 보건의료 R&D 확대

-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혁신' R&D 추진

* (혁신 R&D 5대 질환) ❶보건안보 확립, ❷미충복질환 극복, ❸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❹복지·돌봄 개선, ❺필수의료 혁신

- 희귀·난치·만성·지역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확대

- 역노화, 뇌과학, 에이지테크(AgeTech) 등 전략적인 대응기 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건지장' 실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24

2 국가 AI·피지컬AI 돌봄기술 로드맵 : 첨단기술기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보건복지부, 202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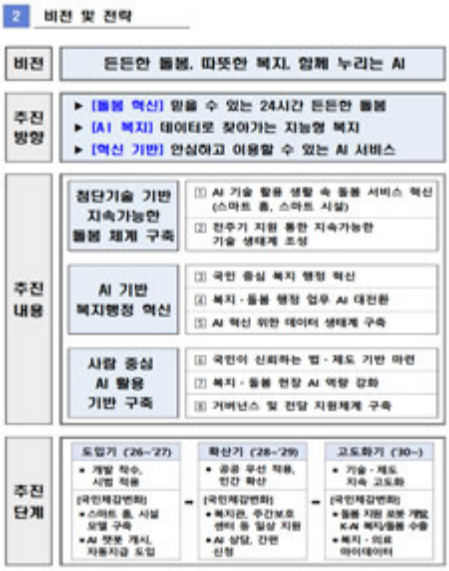
〈 AI 기술 활용 생활 속 돌봄 서비스 혁신 〉
■ 재가 돌봄에 AI를 결합, 혼자 있는 시간에도 24시간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구축
■ 돌봄 시설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해 반복·고강도 업무는 줄이고 돌봄에 더 집중
■ '27년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 '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

〈 지속가능한 돌봄기술 생태계 조성 〉
■'30년 이후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등 적용
■ AI·IoT 돌봄 기술('27~'29) → 피지컬 AI·돌봄로봇('28~'30)으로 R&D 투자 확대
■ 스마트 홈·시설의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 개발된 기술은 다시 현장에서 실증
■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복지용구 신속등재, 시설 수가, 바우처 등에 연계해 현장 확산

일상을 바꾸는 따뜻한 혁신
복지 · 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안)

2026.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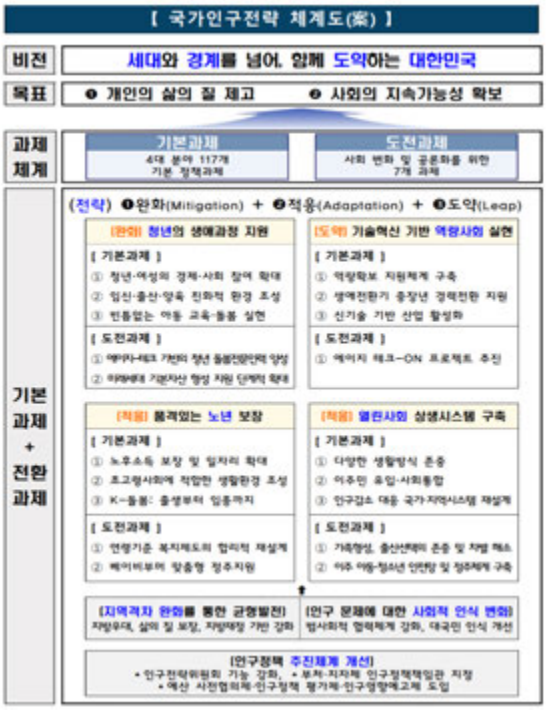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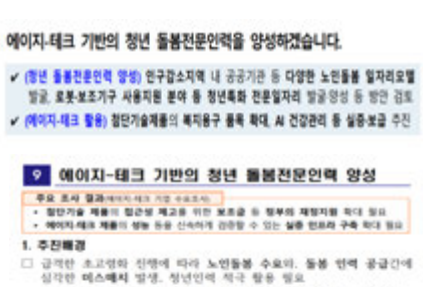


※ 출처 : 보건복지부 (2026)

3 인구전략위원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2026. 10.14)







4 [R&D] 돌봄기술/AgeTech 정책 도입 : 과기장관회의(2026.4.16) + 피지컬 AI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Ⅲ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에빈,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전략

추진방향
- AI로봇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 현장수요 기반, 돌봄기술의 개발·실증 및 확산 지원
- AI 돌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현장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전략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① 스마트 홈 AI로 일상생활을 24시간 케어
② 스마트 복지관 AI로 업무부담 경감 + 돌봄품질 제고

[2. 기 술] 돌봄기술의 개발·실증 및 확산 지원
① 개발·실증: 범부처 협업 및 역량결집 기반, 구체적 실증적 R&D로 돌봄제도 변화견인

단기 (1단계 R&D)	중기 (2단계 R&D)	장기 (R&D로드맵)
AI-IoT 등 단기(1년) 내 산속개발에 가능한 기술개발	피지컬 AI로봇 등 장기(5년) 이상 개발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개발	R&D로드맵 수립 → 돌봄분야 범부처 실행 근규 R&D 체계적 확대

② 산업육성: 기술 생태계 조성 및 수요 창출로, R&D 성과의 사업화 및 성장 기반 마련

[3. 기 반]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
① 규제혁신: 돌봄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AI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AI 윤리 정립
② 인력양성: 돌봄현장의 AI 활용역량 제고

Ⅳ 세부 추진전략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 (스마트 홈) 현행 재가 서비스에 AI 기기·장비를 연계해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등 자립생활 지원
- (개요) 수요맞춤형으로 IoT 기기를 조합하고, 연계하여 돌봄 플랫폼 구축 → 기존의 단절적 서비스를 데이터AI 등에 상시적 돌봄체계로 재설계
- (추진방향) AX sprint 사업에서 모델 구축, 연계 시범사업 등에 지자체에서 선정, 향후 기존사업 자체에 모델로 적용, 단계적 확산

□ (스마트 사회) 돌봄시설 內 기술적용 가능영역을 발굴하여, AI·IoT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고, 돌봄로봇 등 활용해 현장업무를 지원
- (개요) 직무분석 등에 업무를 재설계하고, 돌봄 플랫폼 구축등에 업무와 데이터 연동 → 실제 시설을 리빙랩으로 지정, 수요자 주도적 참여 진행
- (추진방향) AX sprint에서 선도모델 개발, 연계 시범사업 등에 실제 장기요양시설에서 선정, 우수기술은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 확산

2. [기 술] 돌봄기술의 개발·실증 및 확산 지원

□ (개발·실증) 복지부-과기부 협업 등에 돌봄제도의 선결적 변화를 견인하는 구체적·실증적 R&D 추진
* (현황 분석) 과기정통부는 기초·기반 기술, 복지부는 응용·특화 기술에 집중
- (개요) 돌봄 혁신을 위해, 가장 내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술(AIP tech)과 시설 내 종사자 업무를 보조·대체하는 기술(Care tech)을 개발
- (추진방향) 단기·중기·장기적 목표에 맞추어 순차적 신규 R&D 확충
  ❶ (단기(1년 내 사업) AI·IoT 등 단기(1년) 내 산속개발이 가능한 기술개발(5+)
  ❷ (중기(5년 내 사업) 피지컬 AI 등 장기(5년 이상 개발이 필요한 기술개발(3+)
  ❸ (장기 로드맵) 현장수요·기술수준 등 종합고려해 R&D 로드맵 수립·운영

② (현장확산) R&D 성과의 사업화 및 성장 기반 마련
- (개요) 돌봄기술의 "R&D → 실증·사업화 → 현장 확산" 전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돌봄 사업과 연계, 제도·현장·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돌봄 제도·현장·기술 사이의 선순환 구조 >



- (추진방향) 융생기술이 상용화·사업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증 환경 구축, ▲사업화 촉진, ▲초기시장 진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3. [기 반]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

□ (법령제도) 법령 정비 및 AI 윤리 정립
- (주요 내용) 돌봄 현장에서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돌봄에 특화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장역량) 돌봄현장의 AI 활용역량 및 기술수용성 제고
- (주요 내용)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제공

Ⅴ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 (국민) 자립생활 기간 연장 및 존엄하고 안전한 일상의 보장
- (돌봄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 및 가치 있는 노동으로 전환

□ 향후 계획
-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마련 및 공론화('26.上)
- 복지부-과기부 돌봄기술 R&D 기획 및 시행('25.下, '26.上~)

27

5 [R&D-진행사항 : 2026] AX Sprint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돌봄분야)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2026년 AI 스마트홈 및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상용화 지원 및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2026. 3.

보건복지부 AI 복지·돌봄 혁신 TF
돌봄기술혁신반

[1] AI 스마트 홈 돌봄

□ AX sprint 사업

○ (사업개요) 스마트홈 돌봄 기술 + 돌봄 서비스 결합 모델 개발
- (기술) 스마트 홈 '기기 + 데이터 + AI'가 통합된 기반 환경을 구축
- (서비스) 주요 돌봄·건강·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과제 구분		주요내용
장기	① 통합 플랫폼 구축	▪ 기기·장비 데이터 수집, 정보원에 데이터 전송 ▪ 클라우드 인프라 마련, 개방형 표준 마련
	② AI 분석 기반 마련	▪ 센서 및 양방향 대화 AI 분석체계 마련 ▪ 관계지향형 대화 및 서비스 지원기능 구현
단기	③ 돌봄 종사자 업무 DX·AX	▪ 돌봄 종사자 모바일 앱 및 업무지원 기능 ▪ 돌봄 기록지 작성 및 AI 비서 기능
	④ 돌봄 기기·서비스 융합개발 (자율 서비스 포함)	▪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고도화 ▪ 돌봄기술과 노인맞춤돌봄 등 돌봄서비스 융합
	⑤ 건강관리 기기·서비스 융합개발 (자율 서비스 포함)	▪ AI·IoT 기반 안성질환 등 건강관리 서비스 ▪ 보건의료 정보시스템(PHIS) 연동

※ 각 과제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된 업무영역이 다수 존재, 해당 영역은 제안사가 예산 배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제 중 하나에 배치 가능



[2]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구축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

○ (개요) AI·IoT·로보틱스 등 기술 활용, 시설의 업무를 재설계하여 돌봄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돌봄의 질 향상 추진

○ (업무분석) 종사자 업무를 세부 직무 단위로 분석, 효율화 필요성 및 자동화 가능성 등 평가하여 기술 활용이 가능한 영역 발굴

○ (선도 모델마련) ❶실현 가능성, ❷도입 효과성을 고려해 기술 활용 모델을 마련하고 업무를 재설계하여 시범운영 실시

○ (통합플랫폼 구축) 시설 內 서로 다른 기기·장비의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종사자의 업무와 연동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

< (예시) 시설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 및 R&D 등 추진 필요 영역 >



28

[참조] 사업신청서 page 5

6 Age-Tech종합지원센터(5개) : 경희대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현장 및 AgeTech x AI 생태계 확장 위한 전주기 Age-Tech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목표

- 기업 : High-end Technology(AI, Physical AI)등과 접목하여 AgeTech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지원
- 사회 : AgeTech산업 생태계 기반 국내 AgeTech와 시니어산업 활성화
- 고령자 : AgeTech제품-서비스모델 개발과 교육연계 통한 자립적 생활과 건강노화 기여

경희대 AgeTech연구소 산하 실증센터 보유역량

- (AgeTech실증) 2020년부터 AgeTech실증센터 운영 통한 실증인프라 및 200건 이상의 경험
  ※2023-2025,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023-2027 케어로봇센터, 2025-2027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센터
- (차별화·강점) 기업에게 High-end Technololgy(AI, Physical AI 등) 접목하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중심 컨설팅-실증-상용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AgeTech지원체계 보유
  ※기계공학과(Physical AI전문가), 인공지능학과(AI전문가) 포함한 경희대학교 전임교원 17인 참여

추진 원칙

01 사람중심 (Person-centered) :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 실증 참여자 관리체계 운영
02 현장중심 (Practice-centered)과 지역사회 중심(Community-centered) : 지역거점기반 실이용-주거환경에서 실증
03 기업수요 맞춤형·문제해결형 기업지원 : AI, Physical AI 등 첨단기술과의 매칭과 전주기적 지원 통한 기업수요맞춤형 지원서비스
04 산업 생태계 혁신 중심 (Industry-centered) : 첨단기술 접목 통한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기반 Age-Tech 상용화 선도

Age-Tech종합지원센터 로드맵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우수제품 사용성평가센터

2023-2025
- 권역중심
- TRL 후기단계 중심
- 보조기기 중심
- 사용성평가 중심

Age-Tech 종합지원센터 1.0
: High-end Technology(AI, Physical AI) 기반 기업지원

2026
- 권역중심 → 전국, 글로벌 확장
- TRL후기중심 → TRL전주기 : 기술, 개선, 인허가 컨설팅
- 보조기기 → 첨단기술(AI, Physical AI)융합
- 사용성평가중심 → 실생활실증

Age-Tech 종합지원센터 2.0
: 데이터플랫폼 기반 생태계 확산

이후 방향
- 데이터플랫폼 기반 지원센터
- TRL전주기 컨설팅 및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실생활 장기간-대규모 실증
- 전국, 글로벌거점 기반 시범사업
- AgeTech중심 시니어산업 확대

29

7 [거버넌스] AgeTech 등 기술기반 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관련 법률 개정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정부 직제 신설]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사회서비스정책국) 직제 신설, 노인정책국(노인정책과) 업무담당-보건산업진흥원
- 과기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융합팀



30

8 [법·제도]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정비 (1) 돌봄통합지원법(26.3월 시행) : 지역사회거주

3 어르신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복지부)

□ (목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쇠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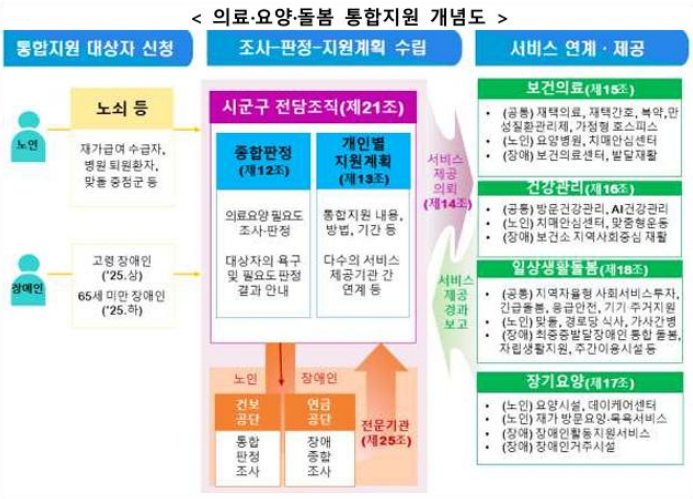


□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복지부)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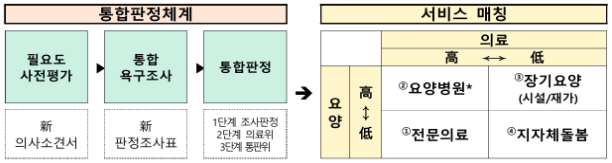
○ (법률 제정)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돌봄 보장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31

8-1 [법·제도]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정비 (2)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 자문단 구성·운영(2026.4~)

➔ 수급자 지원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인력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재가서비스) 강화 등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 AgeTech/돌봄기술기반 요양서비스 도입방안 검토 : 노인돌봄인력 신체적 부담 경감 및 미래인력 부족 대응, 복지용구제도 정비 등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 ~ 2027)

□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

○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25)

* 건강보험 활용 건강노화 코호트(1만 명), 장기요양 코호트(5천 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수요예측 및 원인을 진단하는 코호트 연구 진행('21~'25)

○ 수급자별 급여제공 내역 전산화 등 통합적 기록관리, 빅데이터 정보 연계(및 33~67개 질병) 등 장기요양 급여관리 디지털화 추진

○ 노인돌봄 기술개발(약 270억원, '23~'27), 사회문제 해결형 R&D (기획 연구, '23~) 추진 등 돌봄기술 개발 및 도입·활용 확대 추진

* 요양시설 내 돌봄로봇, 고령친화용품 도입·활성화 지원 및 복지용구 다양화

□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양화 및 보급 개선

○ (제품 다양화) 이원화된 등재방식을 제품으로 단일화(품목→제품)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복지용구 에비급여 시범사업 추진('23~)

* 신규 품목(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23.7월~), 혁신기술, 비용구조 다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확대 추진('24.下~)

○ (보급 확대) 건보공단 복지용구 정보제공 및 이용지원 체계 강화, 복지용구 사업소 인력·장기요양요원 등 대상 교육과정 마련('24~)

노인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구성 운영





※ 출처: 보건복지부(2026.4))

3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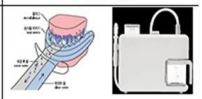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복지용구 예비급여–정식등재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내용) 신기술 활용 품목의 복지용구 급여효과성 등 검증을 위해 한시적으로 급여 후 급여 전환 여부 평가
- (배경/목적) 복지용구로 등재할 만큼 급여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해 일정 기간 검증 후 평가하는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본인부담) 연한도액 160만원 범위 내에서 품목가격의 30% 본인부담
  *기저귀센서: 가격 165,000원→본인부담금(30%) 49,500원, 구강세척기: 가격 332,000원→본인부담금(30%) 99,600원





구분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주요기능	기저귀에 부착된 감지센서를 통해 대소변 감지하여 교체 알림 제공	마우스피스 착용 후 수압을 분사하여 치아·잇몸 세척
대상		

구분	AI 돌봄 로봇	낙상알림시스템
주요기능	수급자 상태 모니터링 및 식사·복약·운동·위급상황 알림 등 돌봄 지원	수급자의 낙상사고 발생시 보호자 등에 게 응급알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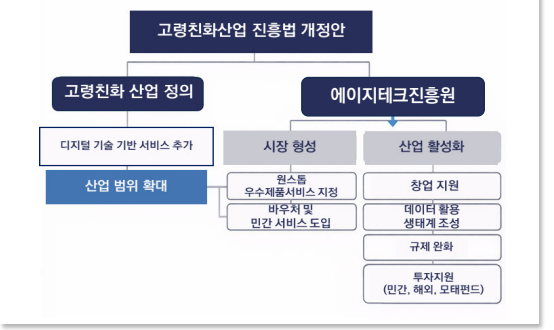
54

8-2 [법·제도]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정비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논의(2025~현재) : 에이지테크 산업 확산에 대응하여 2025년부터 개정안 진행 중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출처: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2025)

법률 제2조(정의) 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5612&lsId=01035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000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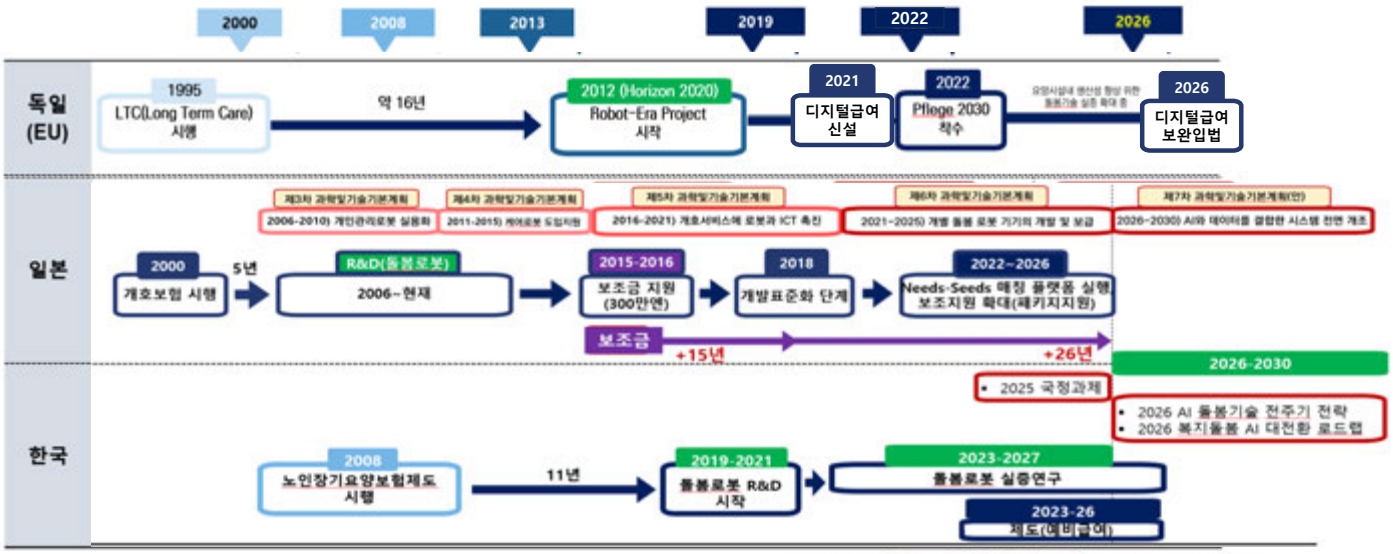
2 해외 최신 정책 동향

1 [장기요양보험제도 국가] 돌봄로봇 개발 및 제도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제도 도입 및 돌봄로봇 개발 흐름

(독일) 1995년 LTC 시행, 16년 후인 2013년 Horizon 2020으로 Robot-Era Project 시작, 2022년 Pflege 2030착수(2023-2025 실증)
(일본) 2000년 개호보험을 시행, 약 13년 후인 2013년 돌봄로봇 개발, 2016년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 및 재정 지원, 2024-2025년 보조지원 변경 및 확대
(한국)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9년 돌봄로봇 연구 시작, 현재 실증중심의 초기 단계이므로 기술적용 제도적 보급 지원 확대 필요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재구성, 후생노동성(2020, 2025), 독일 Universitat Hamburg, Korian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보조금 : 2023년 지원 시작, 2033년 확대

36

2 [초기] 노인돌봄인력 공급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 강조(OECD)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노인돌봄인력 공급문제 해결 방향(OEC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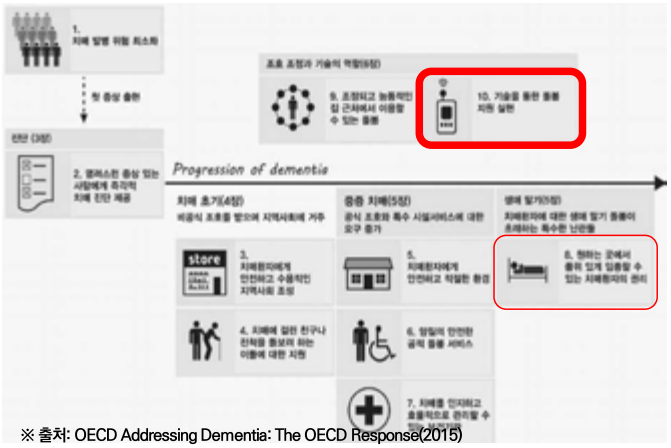
- ☑ 기술(technology) 더 스마트한 사용 촉진, 인력구성 혼합(workforce skill mix) 개선, 노인이 잘 나이들도록(age well) 돕는 것
- ☑ 돌봄인력에게 기술의 활용을 통해 생산성 증진 가능

  향후 장기요양보험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개인의 선택 존중 등과 더불어

  부족한 요양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 스마트홈 등 기술적 혁신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Philip et al, 2014)

치매정책 : 기술을 통한 돌봄지원 실현 강조





※ 출처: OECD Addressing Dementia: The OECD Response(2015)

3 [AI] 최근 국가별 동향 : 요약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미국

- 정책 방향 : 'AI의 편익'과 정책 권고 제안하여, AI를 통한 고령자 방향성 제시(미국 상원 고령화특별위원회, 2026)
- 고령자 기술 구매·이용은 보편화됐으나 신뢰·프라이버시와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장애요인으로 확인(AARP, 2026)

핀란드

- 디지털 돌봄 국가프로젝트 시행(2020-2023) : 고령화 인구의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지원 기술,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
- 능동적 독립 노화을 위한 솔루션, 홈케어 환경을 위한 솔루션, 보조 생활 환경을 위한 솔루션

일본

- 돌봄인력 처우개선 위한 정책 논의 : 요양 종사자 전원 인상과 함께 기술·협업 요건 충족한 요양기관 종사자 가산 적용
- AgeTech확산 위한 데이터 연계개호정보 기반 케어플랜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국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돌봄로봇 중심으로 AgeTech발전 지원 : 노인돌봄로봇 시범사업(2025-2027) 등
- 노인돌봄산업지원(2026) 8개 부처가 노인돌봄서비스기관 육성 및 실버경제 발전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발표

38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Ⅲ AgeTech X 피지컬 AI 수요 분석결과

1. 전반적인 수요분석 결과
2. 피지컬AI X 돌봄로봇 수요분석 결과

새로운 시니어 수요조사 : 경희대 AgeTech코호트 및 돌봄로봇 코호트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경희대 "한국 시니어 AgeTech코호트" (2019–2028, 한국연구재단)

- 과제명 : 고령자 기술개발·활용(Senior Technology Adoption)의 사회과학 모델 실증 연구
- 지원기관 : 한국연구재단(교육부), 2019–2028

조사 목적	• 시니어 AgeTech인식변화, 이용의향, 기술수용 요인, 디지털 격차 요인, 건강 및 심리사회적 요인 등 파악
조사 대상	•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시니어 500명
조사 기간	• 201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 • 2022년부터 동일대상으로 조사 수행
조사 변수	• 기술수용요인 : 유용성, 편의성, 이용의향, 태도 등 • 디지털격차요인 : 기술효능감, 기술스트레스 등 •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등 • 건강 및 노쇠 : 신체, 심리, 사회적 건강 • 건강노화지표 : 바이오마커(26년부터 추가)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

경희대 "한국고령자 및 돌봄인력 돌봄로봇 코호트" (2019–2027, 산업부·복지부)

- 과제명 : 사람중심 스마트 양팔 이승 보조로봇 개발, 사용자 중심의 돌봄로봇 실증플랫폼 연구
- 지원기관 : 산업부(2019–2024), 복지부(2023–2027)

조사 목적	• 노인돌봄인력의 돌봄부담경감 및 돌봄인력부족 관련 돌봄로봇(이승보조로봇) 수요, 기술수용 및 요인 파악
조사 대상	• (돌봄인력)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돌봄인력 320명 • (시니어)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시니어 300명
조사 기간	• (돌봄인력) 2019년, 2023년, 2024년, 2026년 • (시니어) 2024년부터 격년으로 실시
조사 변수	• 기술수용요인 : 유용성, 편의성, 이용의향, 태도 등 • 돌봄로봇 : 9종 등 다양한 돌봄로봇 및 돌봄기술 태도 • 디지털격차요인 : 기술효능감, 기술스트레스 등 • 건강 및 노쇠 : 신체, 심리, 사회적 건강 • 돌봄인력 직무특성 : 직무만족도, 소진, 이직의도 등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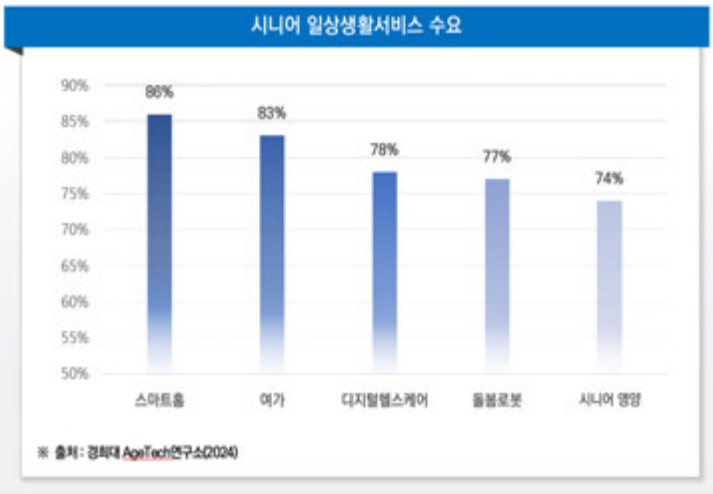
AgeTech 수요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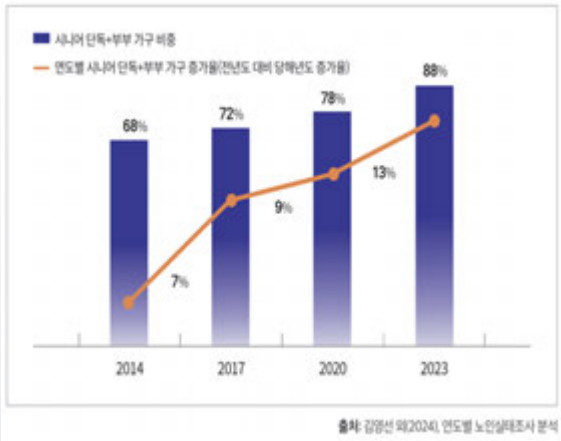
– 시니어 관점
– 돌봄인력 관점

1 [시니어] AgeTech 수요조사결과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AgeTech 수요조사결과] 스마트홈, 여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높음
- [1인가구] 연도별로 시니어 단독 및 부부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노인1인+부부가구는 전체의 8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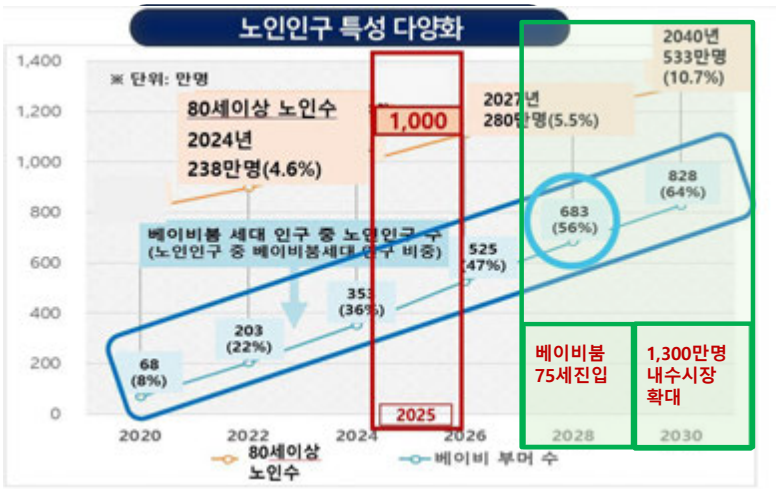
42

1-2 [시니어] 2030년 1,300만명 내수시장 확대 및 80세이상 초고령자 증가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2028-2030년 : 시니어산업 중요한 시점(2028년 베이비붐세대 75세 진입, 2030년 1,300만명)
-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 : 2020년부터 만 65세 진입하여, 2028년 전체 노인의 56%로 확대
  : 75세가 되는 2030년, 전체 노인인구의 64% 에 해당
- 80세 후기노인 인구수 : 24년 238만명(총인구의 4.6%), 2030년 307만명(전체인구의 6%), 2040년 533만명(10% 초과)
  85세이상 인구 : 2023(102만명) → 2027(137만명) → 2030(15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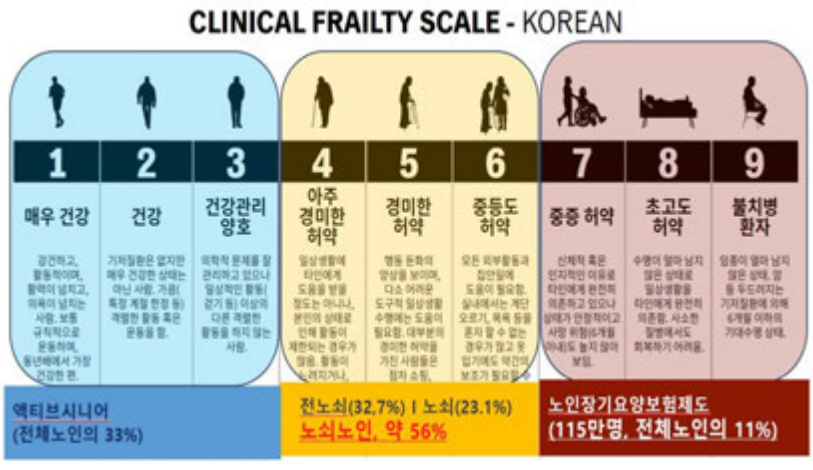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1-3 [시니어] 기대수명-건강수명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 노쇠 관리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기대수명 83.7세로 OECE국가 중 3위로 높음(OECD, 2026) , 건강수명(65.5세/68.5세) 11-18년 격차
- 노쇠(Frailty) : 건강과 장애의 중간단계 (아직 질병코드는 아님) * 노화에 반드시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는 아닌 것
  근감소증(Sarcopenia) :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 기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질병코드) *가장 흔한 원인은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량 부족, 운동 방법의 저하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2026), 보건복지부(2026)

*출처: Rockwood K et al.(2005),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1-4 [시니어] 돌봄기술(복지용구, 돌봄로봇) 수용 영향요인 : 노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시니어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복지용구·돌봄로봇 모두, 노쇠 수준(건강–전노쇠–노쇠)에 따라 이용의향 영향요인이 달라짐
- 동일한 '돌봄기술'이라도 노쇠 단계별로 작동하는 예측요인이 다르므로, 노쇠단계 및 돌봄기술 유형에 따라 맞춤형 보급·교육·지원 전략 필요

고령자 노쇠에 따른 복지용구 예측요인 연구

구분	변인	건강노인 (N=226)		전노쇠 (N=212)		노쇠 (N=62)	
		B	β	B	β	B	β
태도적 요인	인지된 유용성	.160	.165*	.265	.276***	.086	.089
	인지된 편의성	.350	.415***	.120	.149*	.170	.165
	사용에 대한 태도	.190	.163*	.235	.201**	.526	.399**
기술적 요인	기술불안	.010	.015	-.028	-.030	-.059	-.063
	기술자기효능감	.120	.124*	.331	.382***	.068	.077
	촉진조건	.050	.073	-.021	.034	.192	.245
건강 요인	삶의 만족도	-.040	-.123*	-.003	-.010	.007	.021
	일상생활활동수준	-.020	-.012	-.085	.049	.058	.093
	주관적 건강	.070	.051	-.169	-.133*	-.044	-.033
	사회적 관계	.050	.071	-.020	-.027	.031	.037
	노화에 대한 태도	-.010	-.020	.017	.066	.007	.028
	인지능력	.080	.053	.107	.062	.034	.034
통제변인		연령·성별·교육·배우자·취업·소득					
R^2 (adj R^2)		.650(.620)		.637(.603)		.657(.513)	
F		21.23***		18.79***		4.57***	

*p<.05, **p<.01, ***p<.001

※ 출처 : 김영선 외(2023), JMIR

고령자 노쇠에 따른 돌봄로봇 예측요인 연구

구분	변인	건강노인 (N=233)		전노쇠 (N=151)		노쇠 (N=53)	
		B	t	B	t	B	t
태도적 요인	기술에 대한 태도	.155	2.269*	.174	2.222*	.236	1.868
기술적 요인	기술자기효능감	.165	4.630***	.122	2.477*	.091	1.365
	기술불안	-.609	-17.91***	-.726	-16.79***	-.676	-9.83***
	기술스트레스	.055	.718	.001	.012	.088	.631
건강 요인	삶의 만족도	-.006	-.135	-.123	-2.210*	-.084	-.947
	일상생활활동수준	-.401	-1.625	.103	.874	-.206	-2.207*
	주관적 건강	.010	.171	.057	.999	.011	.110
	사회적 지지	-.042	-.980	.060	1.519	.075	1.122
	노화에 대한 태도	.036	.541	.107	1.466	.265	2.040*
(상수)		4.345	8.839***	4.016	9.139***	3.424	4.707***
R^2 (adj R^2)		.794(.785)		.823(.812)		.896(.873)	
F		95.308***		72.814***		40.706***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AgeTech 코호트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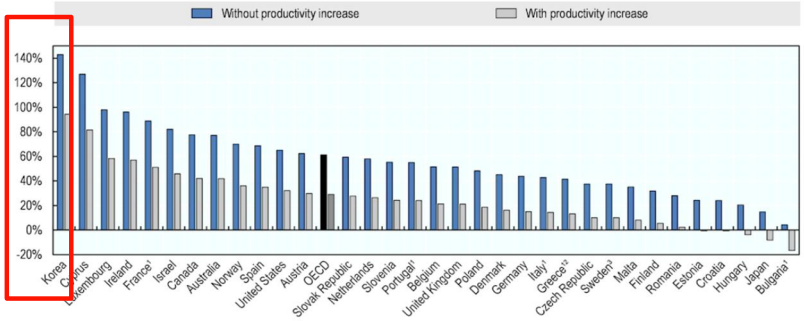
2 [돌봄인력] 사회문제 : 미래인력부족 및 신체적 부담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장기요양 돌봄인력 공급문제 해결 방향
  - 기술(technology) 더 스마트한 사용 촉진,
    인력구성 혼합(workforce skill mix) 개선,
    노인이 잘 나이들도록(age well) 돕는 것
    돌봄인력에게 기술의 활용을 통해 생산성 증진 가능
- OECD국가중 한국이 노인돌봄인력 가장 부족한 국가
  * 2040년까지 140% 이상충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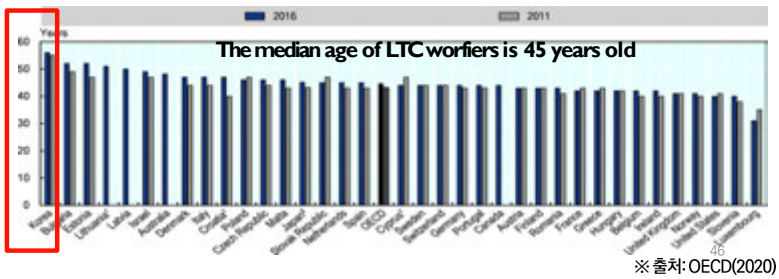
Figure 1.5. **An additional 60% LTC workers are needed by 2040**

Number of additional LTC workers needed by 2040 to keep the ratio constant as a share of the total number of workers in 2016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OECD(2020) 재구성

- 돌봄인력의 고령화
  - 45세이상 중고령 돌봄인력 가장 높음 (OECD, 2020)
  - 50세이상 중고령 돌봄인력 90% 차지 (장기요양실태조사, 2023)
  - 돌봄인력 신체부담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 출처: OECD(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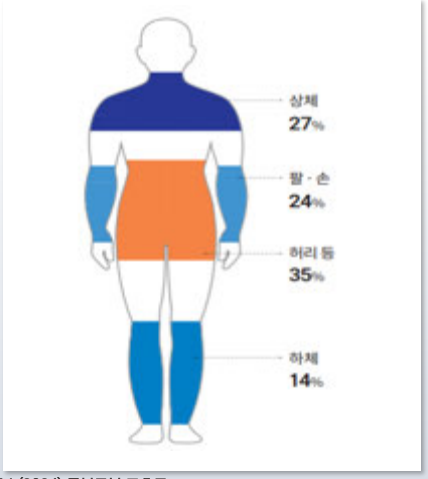
46

2-2 [돌봄인력] 수요조사(1) 신체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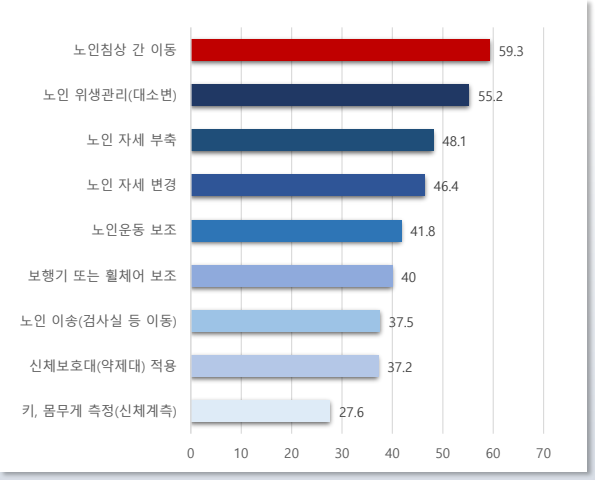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노인돌봄인력 62%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호소
  - **허리·등(35%), 상체(27%),** 팔·손(24%), 하체(14%)순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인력 돌봄업무에 따른 통증은, 노인침상간 이동(59.3%) 등 이승 및 이동 관련 업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직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통증부위



돌봄업무 통증정보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돌봄로봇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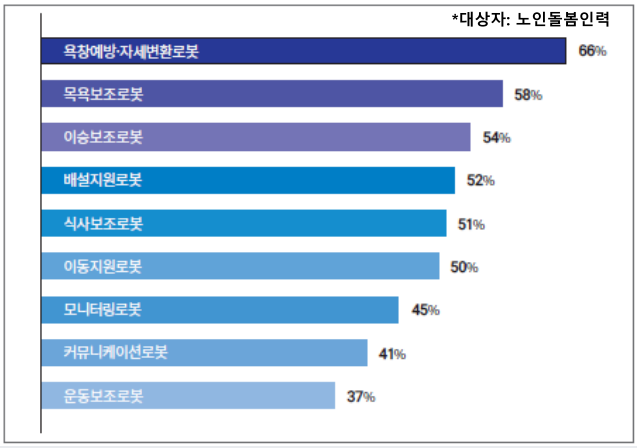
47

2-3 [돌봄인력] 수요조사(2) 이용의향 및 구매의향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노인돌봄인력의 돌봄로봇 유형별 이용의향
  - 거동이 어려운 시니어를 돌볼 때 돌봄로봇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남
  - 욕창예방·자세변환로봇에 대한 이용의향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위로 목욕보조로봇(58%), 이승보조로봇(5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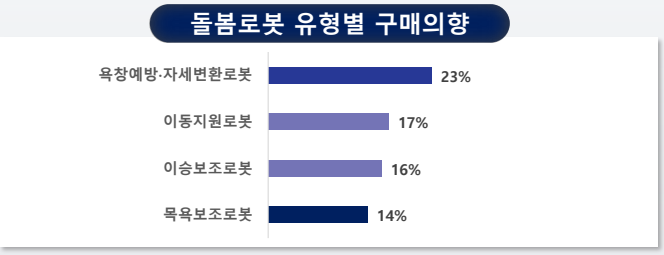
돌봄로봇 유형별 이용의향



돌봄로봇 유형별 대여의향



돌봄로봇 유형별 구매의향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돌봄로봇 코호트

48

1-4 [돌봄인력] 수요조사(3) 근골격계 통증 유무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돌봄인력과 없는 돌봄인력 모두 기술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돌봄로봇 수용이 높게 나타남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돌봄인력은 기술 활용에 자신감이 높고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돌봄로봇 수요가 높으며
- 근골격계 통증이 없는 돌봄인력은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수요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근골격계 통증 유무에 따른 돌봄인력의 돌봄로봇 수용 영향요인

구분	변인	전체집단 (N=314)			근골격계 통증 유 (N=181)			근골격계통증 무 (N=133)		
		B	β	t	B	β	t	B	β	t
기술적 요인	기술자기효능감	2.685	0.405	7.21***	2.800	0.430	6.09***	2.625	0.384	3.97***
	기술스트레스	−0.613	−0.176	−3.26**	−0.766	−0.219	−3.29**	−0.401	−0.114	−1.14
직무요인	신체적 부담	−0.471	−0.022	−0.38	−1.465	−0.045	−0.62	−0.751	−0.043	−0.42
	심리적 부담	0.338	0.018	0.31	−0.356	−0.017	−0.23	1.416	0.090	0.86
	직무만족도	0.008	0.003	0.05	0.071	0.023	0.32	−0.016	−0.006	−0.07
	직무스트레스	0.126	0.076	1.42	0.150	0.082	1.20	0.052	0.035	0.39
건강요인	주관적 건강	0.248	0.106	2.00*	0.199	0.092	1.38	0.269	0.097	1.06
	우울	0.030	0.007	0.13	0.502	0.110	1.61	−0.487	−0.118	−1.37
(상수)		70.638		5.42***	69.296		3.83***	76.289		3.25**
R^2 (adj R^2)		.305(.287)			.359(.329)			.263(.215)		
F		16.76***			12.04***			5.52***		

*p<.05, **p<.01, ***p<.001

※ 출처: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돌봄로봇 코호트

49

2

피지컬AI 돌봄로봇 수요분석결과

- 재가급여 대상
- 시설급여 대상

조사 개요 및 조사결과(요약)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재가] 재가노인 및 종사자

재가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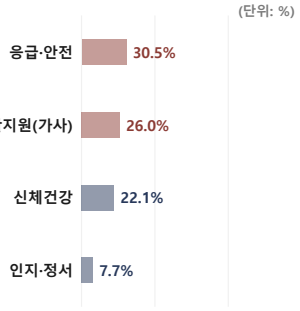
조사 개요

조사대상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	**104명**
연령	75세 미만 49명 / 75세 이상 55명
조사기간	'26. 9. 2 ~ 9. 4

조사 결과 (요약)

재가노인 피지컬AI 수요

(단위: %)



지역사회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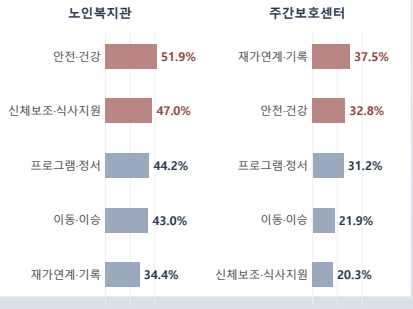
조사 개요

조사대상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등 종사자
응답자	**123명**
조사기간	'26. 9. 2 ~ 9. 4

조사 결과 (요약)

지역사회종사자 피지컬AI 수요(지역사회환경)

(단위: %)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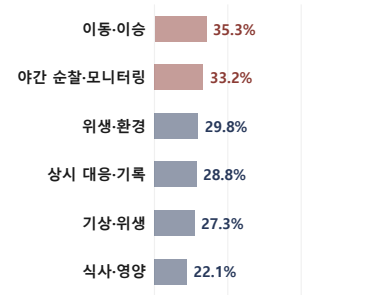
조사 개요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응답자	**115명**
조사기간	'26. 8. 26 ~ 9. 13

조사 결과 (요약)

장기요양시설 피지컬AI 수요

(단위: %)



※ 그래프 숫자 = ① 돌봄로봇(피지컬AI)+② 돌봄로봇(피지컬AI는 아님)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1 [재가] 고령자 가정환경에서의 피지컬 AI수요 : 고령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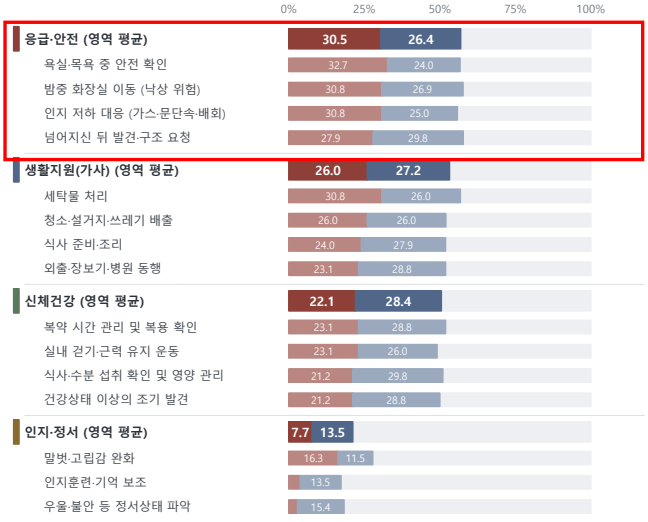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응급·안전' 분야에서 돌봄로봇(피지컬AI)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순위에서도 '욕실·목욕 중 안전 확인' 등 응급·안전 분야 항목이 상위에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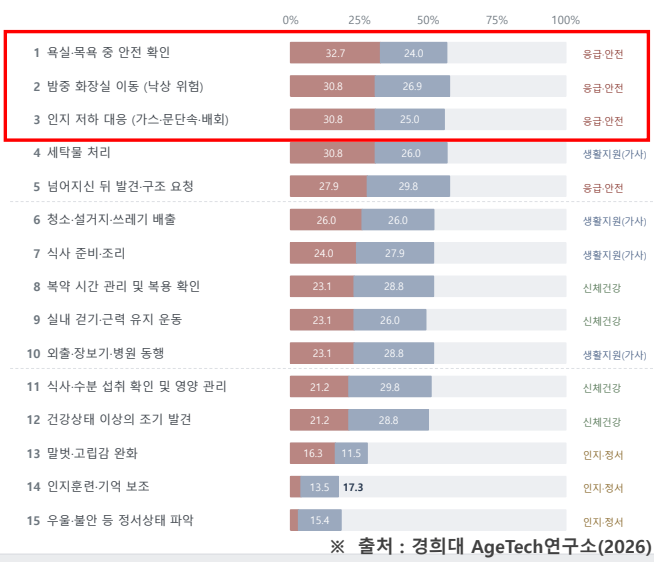
돌봄로봇(피지컬AI) 돌봄로봇 감지·알림 / 사람 영역

(단위: %)

분야별 순위



전체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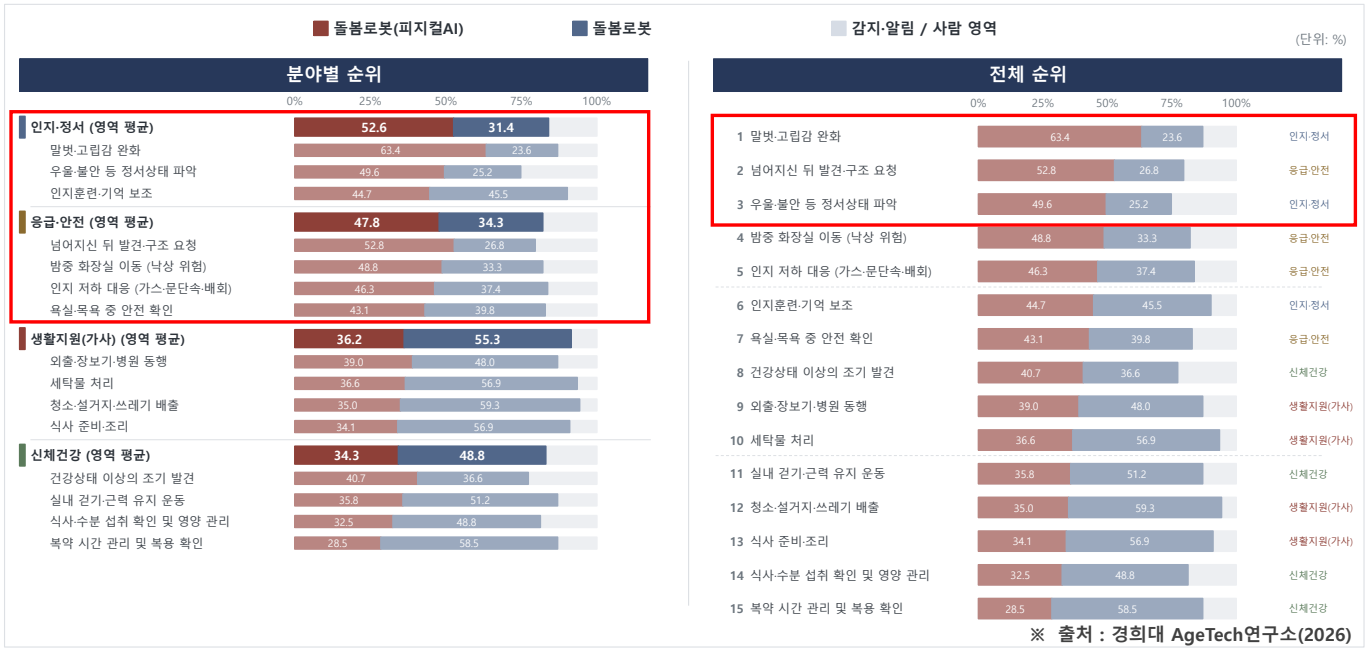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1-2 [재가] 고령자 가정환경에서의 피지컬 AI수요 : 노인돌봄인력 응답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종사자가 생각하는 가정환경에서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로봇(피지컬AI) 분야는 인지·정서 및 응급·안전으로 나타남
- 특히 '말벗·고립감 완화'(63.4)와 '넘어지신 뒤 발견·구조 요청'(52.8)에서 돌봄로봇(피지컬AI) 수요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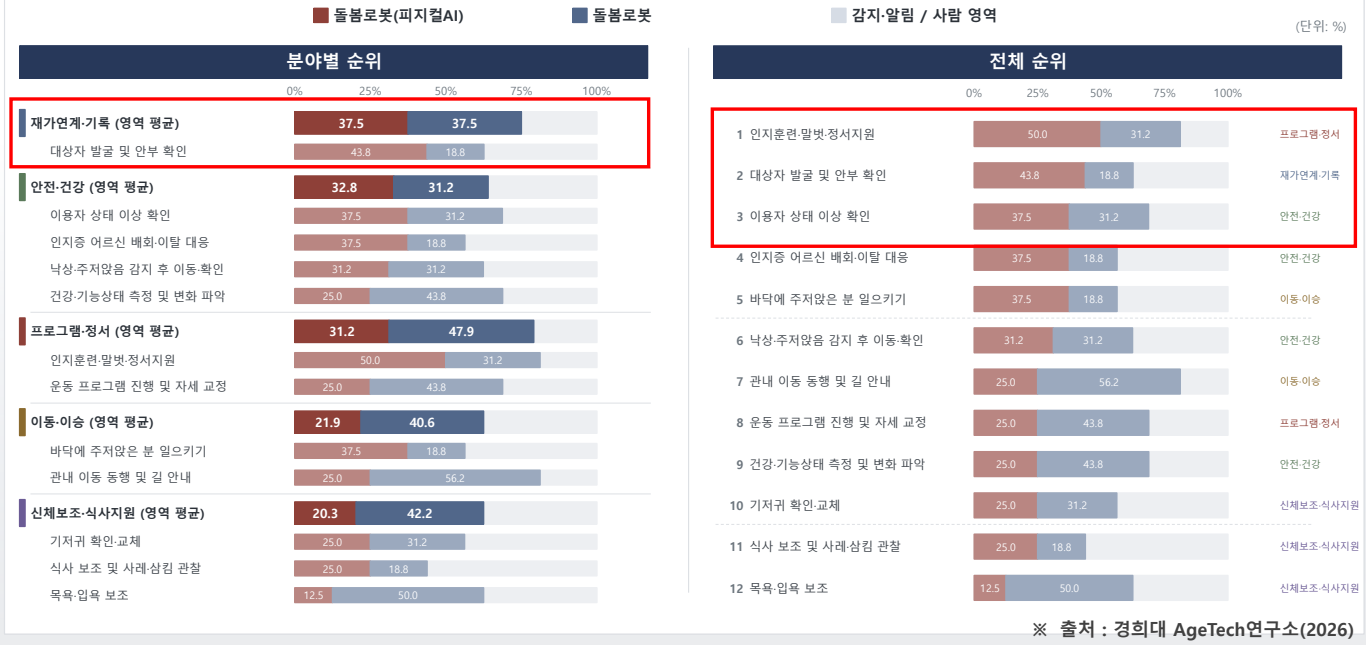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1-3 [재가] 주간보호센터에서의 피지컬 AI수요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주간보호센터에서 필요한 돌봄로봇(피지컬AI)은 '재가연계·기록'과 '안전·건강' 분야가 높게 나타났으며,
- 전체 순위에서는 '인지훈련·말벗·정서지원'(50.0), '대상자 발굴 및 안부 확인'(43.8)이 상위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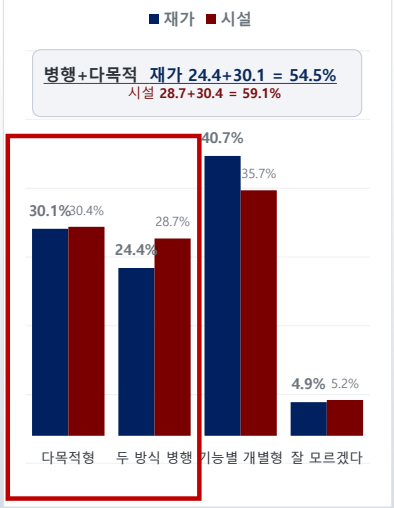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1-4 [재가] 피지컬AI 돌봄로봇 구성방식 : 다목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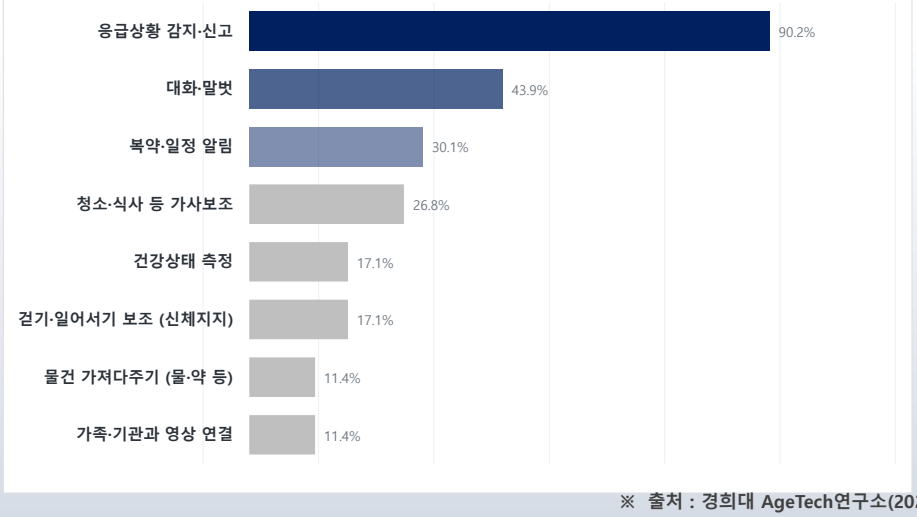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시설은 개별형(35.7%)이 다목적형(30.4%)보다 다소 높으나, 병행 포함 시 다목적 요구는 시설(59.1%)이 재가(54.5%)보다 높음
- 다목적 피지컬AI돌봄로봇에 대하여 재가 종사자는 응급상황 감지·신고(90.2%), 대화·말벗(43.9%) 등의 기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피지컬AI 돌봄로봇 구성방식 선호



[재가] 다목적 피지컬AI 돌봄로봇 선호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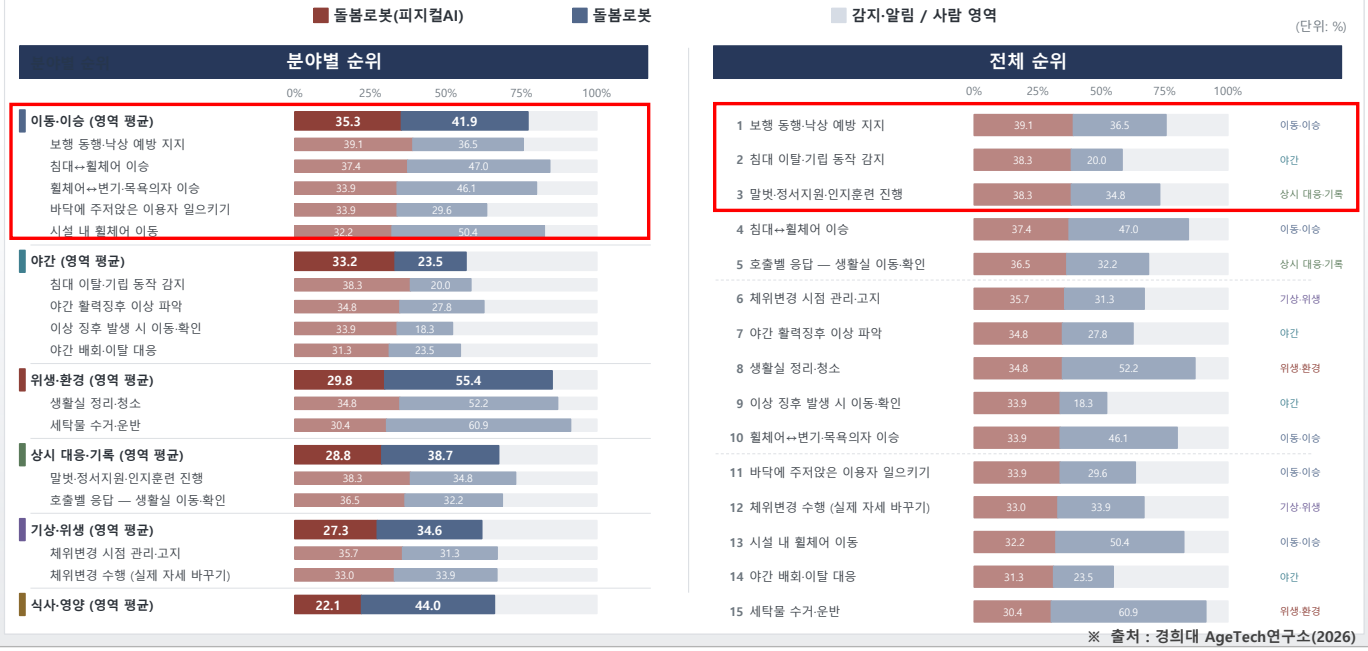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55

2 [시설] 노인요양시설환경에서의 피지컬 AI 수요 : 노인돌봄인력대상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노인요양시설의 돌봄로봇(피지컬AI) 수요는 '이동·이승'(35.3)·'야간'(33.2) 분야가 가장 높고, 전체 순위 최상위는 '보행 동행·낙상 예방 지지'(39.1)
- 야간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피지컬AI가 아닌 돌봄로봇 수요 비중이 더 높으며, 특히 위생·환경(55.4), 식사·영양(44.0)에서 두드러짐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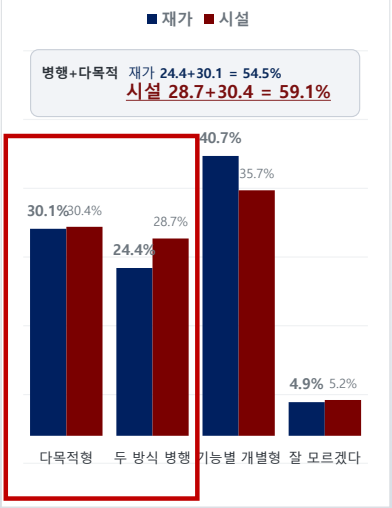
56

2-2 [시설] 피지컬AI 돌봄로봇 구성방식 : 다목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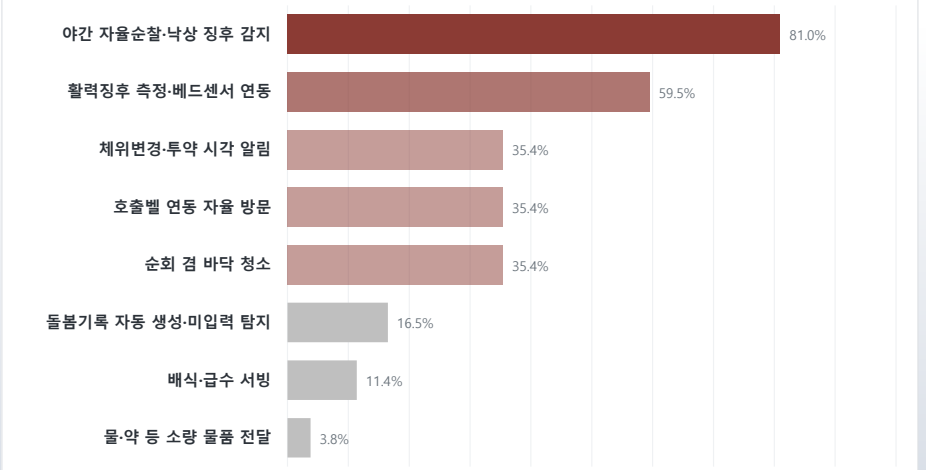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시설은 개별형(35.7%)이 다목적형(30.4%)보다 다소 높으나, 병행 포함 시 다목적 요구는 시설(59.1%)이 재가(54.5%)보다 높음
- 다목적 피지컬AI돌봄로봇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는 야간 자율순찰·낙상 징후 감지(81.0%), 활력징후 측정 등(59.5%) 등의 기능을 선호함

피지컬AI 돌봄로봇 구성방식 선호



[시설] 다목적 피지컬AI 돌봄로봇 선호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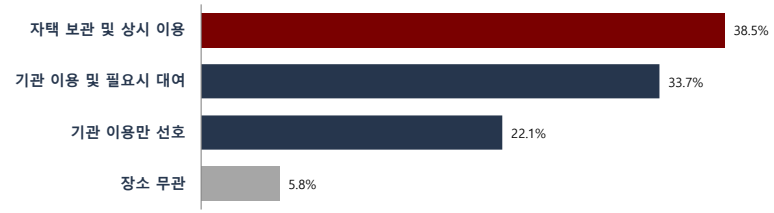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3 [고령자+재가] 피지컬 AI 관련 디지털리터러시(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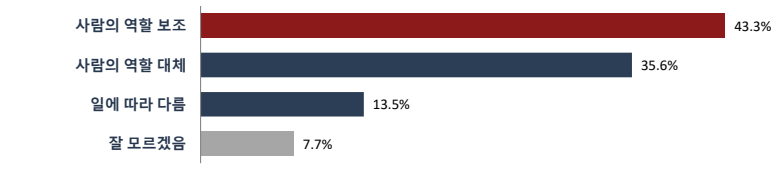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피지컬AI 돌봄로봇의** 이용장소는 자택에 보관, 상시 이용하는 의향이 38.5%, 사람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능수준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음
- **피지컬AI 돌봄로봇** 재가 이용 시 우려되는 점은, 사용법의 어려움 41.3%, 로봇과의 접촉 31.7%, 사람과의 교류감소 29.8%, 비용부담 28.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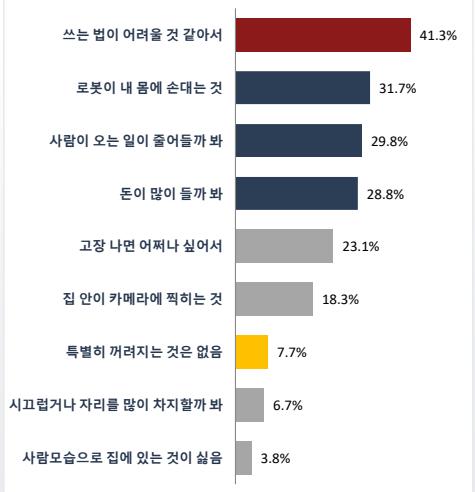
피지컬AI 돌봄로봇 이용 장소 선호



피지컬AI 돌봄로봇 역할기대



피지컬AI 돌봄로봇 이용시 우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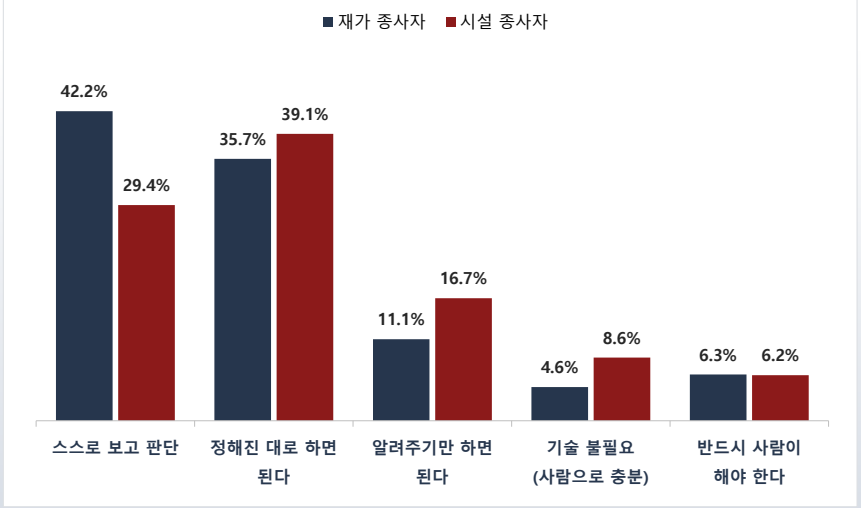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3-2 [노인돌봄인력] 피지컬 AI 관련 디지털리터러시(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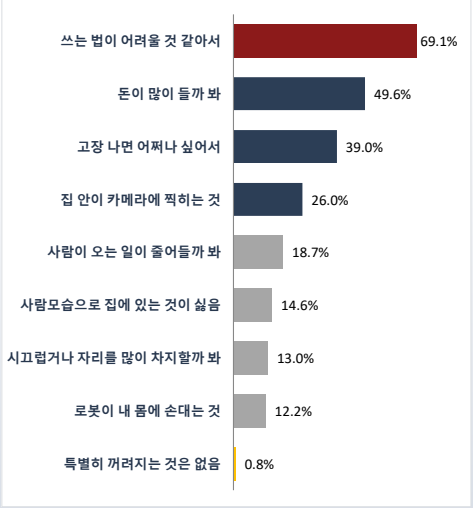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피지컬 AI 돌봄로봇 필요 기능수준에 대해** 재가 종사자가 자율적 판단에 의한 피지컬AI수요가 시설종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피지컬 AI 돌봄로봇 이용시 우려사항에 대해** 고령자·종사자 모두 '사용법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나,
  재가 종사자는 비용·고장 등 실무적 부담을, 고령자는 로봇과의 접촉(31.7%)·사람과의 교류감소(29.8%)를 더 크게 우려함

피지컬 AI 돌봄로봇 필요 기능수준



피지컬 AI 돌봄로봇 이용시 우려사항 (재가급여 종사자 대상)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59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IV 한-일 협력을 위한 AgeTech·시니어산업 아젠다 제언

1. AgeTech 새로운 시니어소비자 특성
2. 한일 대규모 실증-공동연구-비즈니스모델
3. AgeTech·돌봄기술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펀드 구축

3 한-일 협력 AgeTech-시니어산업 공동아젠다 [예시]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기반으로 보건·인구·사회정책 협의체에서 고령화-AgeTech 공동 의제 지속 논의

한·일 저출생·고령화 국장급 양자회담 (25.11.5) → 제 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 (25.11.6) →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25.12.13-14) →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 (25.12.15)

공동이슈 AgeTech : 초고령화, 노인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양국의 투자 확대

시장수요 확대
빠른 고령화 속도, 고소득시니어의 증가로 AgeTech 산업에서의 높은 가능성

돌봄인력 부족 대응
노인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과 돌봄로봇 R&D 도입 및 확장

돌봄기술 국가적 투자 확대

일본	제 7차 과학 및 기술기본계획에서 돌봄시스템 전체를 변경하는 디지털 전환(DX) 계획 발표(2026.3월 예정)
한국	AgeTech(돌봄기술) 전략 등 본격적 국가지원 논의진행(2026.상반기) 새정부 국정운영계획(202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AgeTech전략(2025.3)

아젠다 1 양국 강점분야 공동연구, 글로벌 실증, 서비스모델-비즈니스모델 연구

- (예시1: 로봇) 일본의 선제적 돌봄로봇 R&D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 한국-일본 공동 돌봄로봇 개발 및 실증
- (예시2: 데이터) 한국의 전국민 장기요양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기반 AgeTech 월드모델 개발 및 적용

아젠다 2 양국 정부간 정책 공유를 넘어, AgeTech 기업투자펀드 구축-기술표준 협력까지 확장된 민관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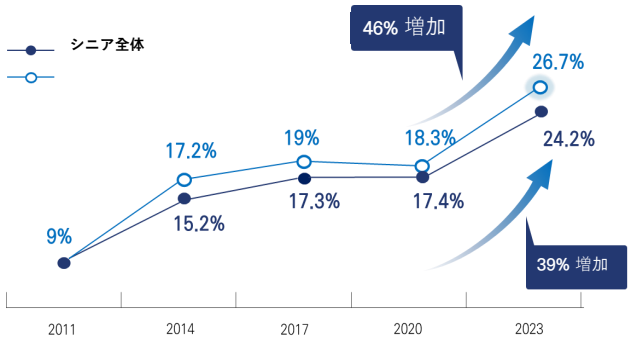
1 AgeTech 새로운 시니어소비자 특성

1 [한국_연구결과] 시니어 인식 변화 : 새로운 시니어,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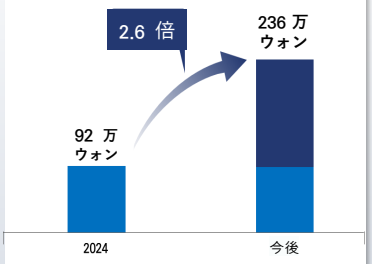
- (나를 위해 재산을 쓰겠다는 시니어) 10년 동안 3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새 39% 증가, 액티브시니어는 46% 증가
- (시니어 지출 의향) 향후 지출규모를 현재보다 2.6배 늘리겠다는 의향 보임
- (시니어 AgeTech Literacy) COVID-19 이후 높아졌으며, 특히 전체 시니어에 비해 중산층시니어가 더 높게 나타남

시니어, 나를 위해 재산을 쓰겠다는 비율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연도별 노인실태조사 분석

시니어 소비의향 전망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AgeTech 코호트

시니어 디지털 활용능력 (AgeTech Literacy)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AgeTech 코호트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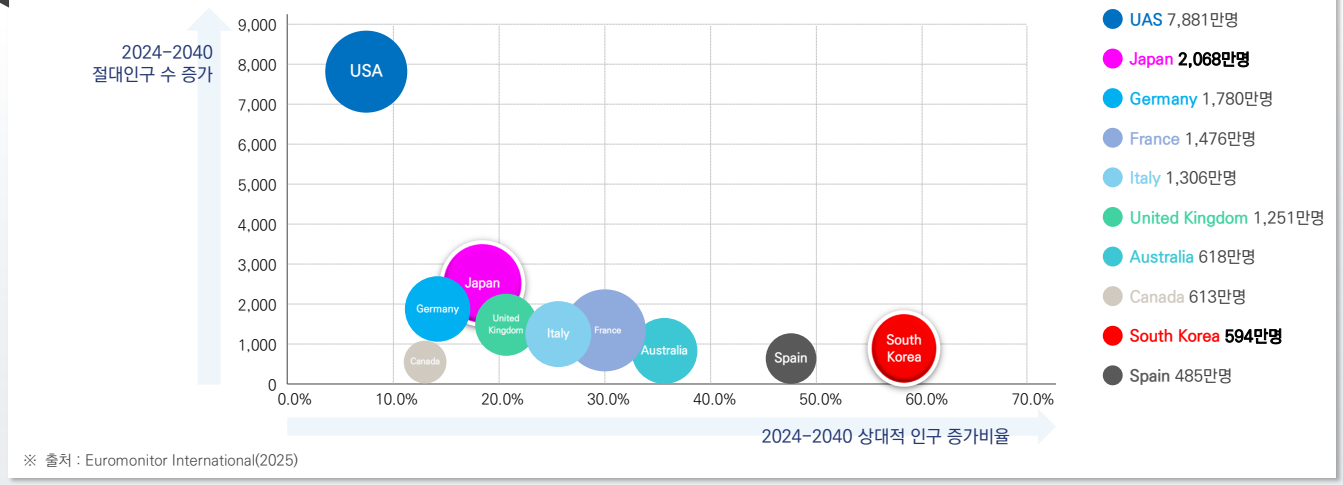
2 한국 시니어소비자 수요 급증 및 고소득 시니어 증가

AgeTech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2040년 고소득 시니어 비율증가 1위 한국으로 전망
  - 고소득 시니어 절대 인구 수 : 인구수는 미국이 가장 높으며,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 시니어 인구 증가율 : 한국이 고소득 시니어 증가율 60%로 가장 높을 것, 스페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예측함

상위 10개국 고소득 시니어 소비자 규모 전망 (2024-2040)

* 고소득 시니어 : 60세 이상 인구 중, 국가 평균 소득의 200% 이상 소득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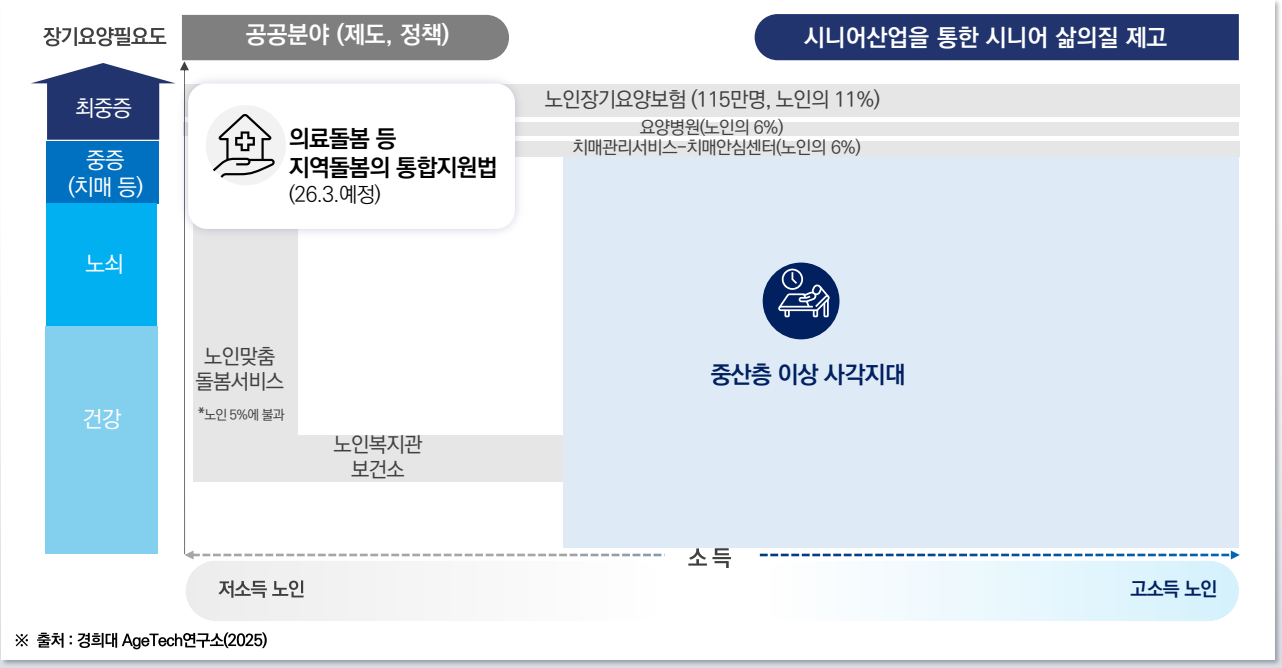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2025)

64

3 새로운 타겟 영역 : 새로운 시니어 – 새로운 수요 파악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65

4 노인이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2023 노인실태조사 결과)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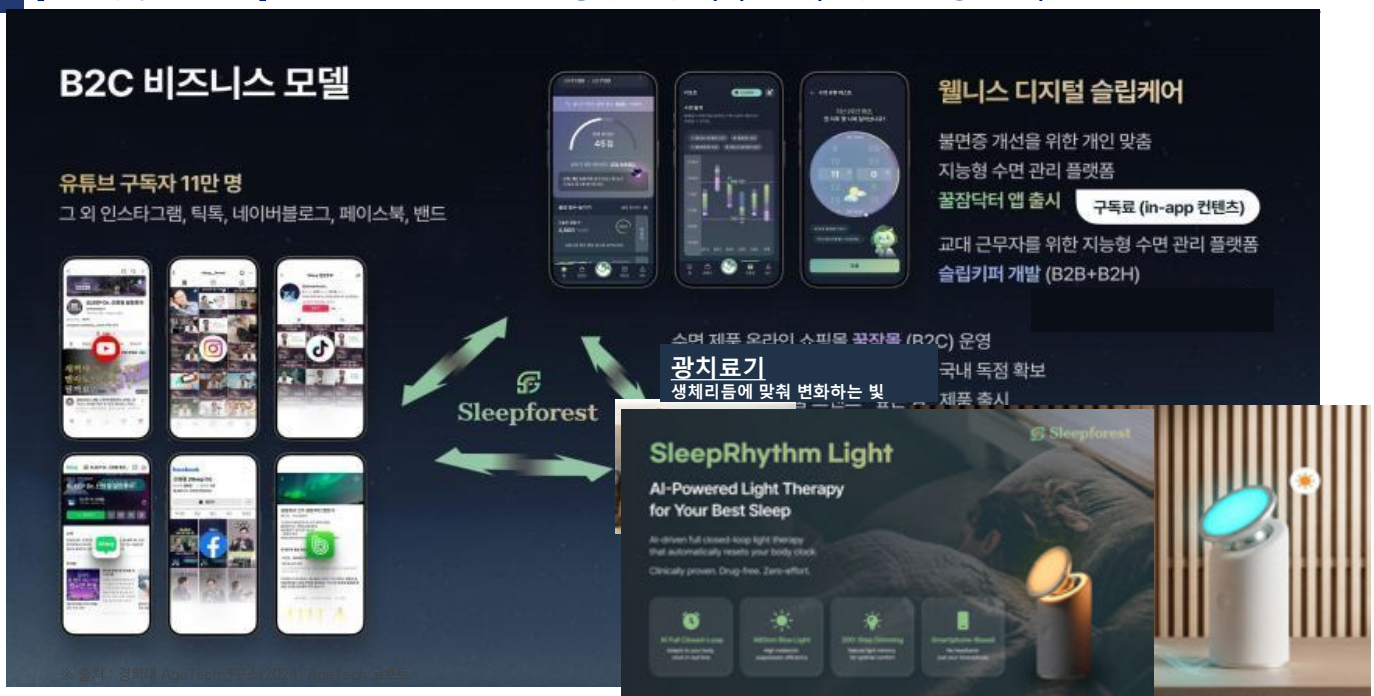
>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

- (2023 노인실태조사)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67.9%로 가장 높음, 2020년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76.8점으로 가장 높았음

[표] 노인이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단위 : %)

구분	노인이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
일상생활 지원(가사, 간병, 목욕, 요양, 식사 지원 등)	67.9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62.7
안전 지원(정기적 안부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연계 지원 등)	62.2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62.1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56.8
상담 서비스(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44.2

예시 [시니어특화 서비스] 수면모니터링을 넘어선 불면증해결솔루션(앱)+기기(스마트램프/광치료기)+수면식품+보험상품/서비스



※ 출처 : 슬립포레스트(2026) https://sleepforest.net/

2

한일 대규모 실증–공동연구–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용자중심 돌봄기술 접근성 고려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Digital/AgeTech Literacy

1 [시니어] AgeTech 수요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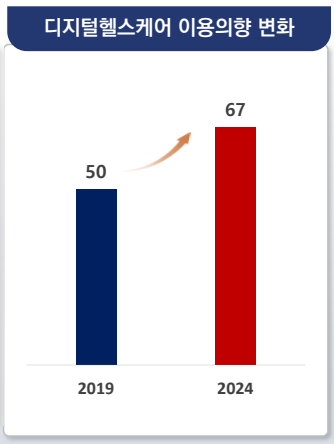
시니어의 기술 이용의향 : 디지털헬스케어기기>돌봄로봇>온라인금융거래 순으로 의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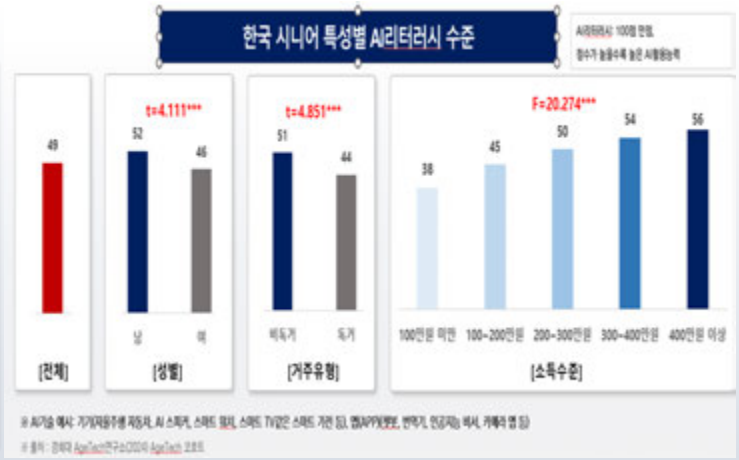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고령소비자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이용의향은 '19년 50점→ '22년 67점으로 증가 ※ 이용의향 = 5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의향이 높음
- (돌봄로봇) '24년 61점으로 보통수준의 이용의향 나타냄
- (디지털금융) 고령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이용의향은 낮지만,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49점 → 56점)

시니어 전반적인 AI리터러시는 보통 수준이며, 성별, 독거,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존재함

- 전체 49점, 남성 일수록(52점), 비독거일수록(51점), 고소득일수록 AI 리터러시 높음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19, 2022, 2024) AgeTech 코호트

1-2 [시니어] AgeTech 수요 :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하였으나, 스트레스도 증가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효능감도 증가하였으나, 기술스트레스도 증가

- (기술에 대한 태도) 고령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태도 인식변화는 '22년 57점→ '24년 57.7점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줌
- (기술효능감) 고령소비자의 기술 자기효능감 수준변화는'22년 51.6점→ '24년 52.2점으로 증가하여, 기술을 잘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함
- (기술 스트레스) 고령소비자의 기술스트레스에 대한 태도 수준변화는'22년 65.5점→ '24년 66.5점으로 증가

한국 시니어의 기술관련 요인 변화수준



100점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술에 태도
※ 2022·2024년은 동일 대상



100점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기술효능감 보유
※ 2022·2024년은 동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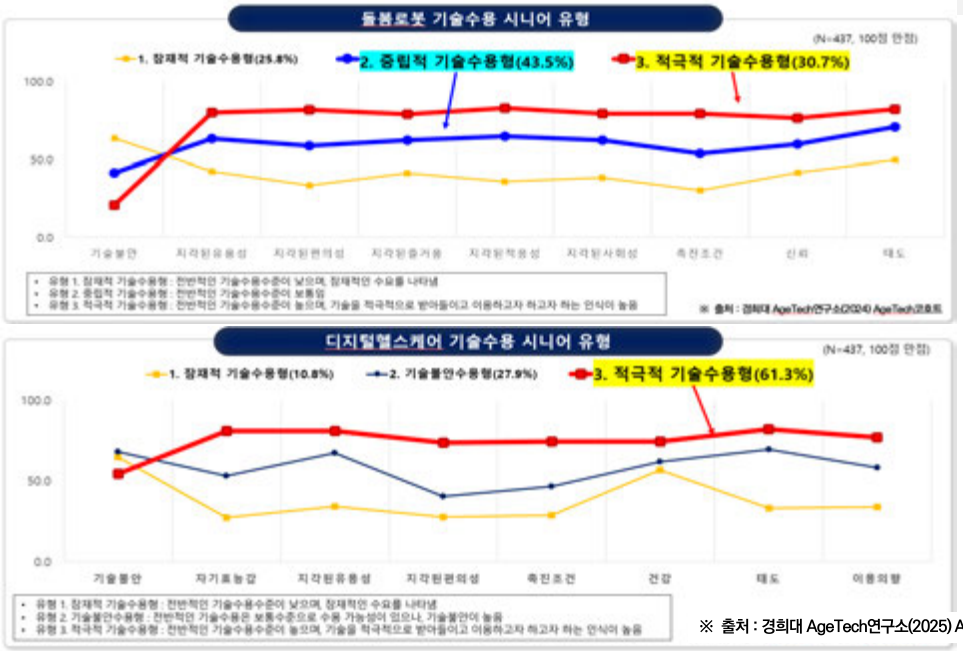
100점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기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2022·2024년은 동일 대상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2,2024) AgeTech 코호트

1-3 [시니어] AgeTech 이용을 원하는 시니어 특징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돌봄로봇] 중립적 기술수용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돌봄로봇에 대한 적극적 기술수용 제고 위한 노력 필요
> [디지털헬스케어]"적극적 기술수용형" 61.3%로 가장 높은 비중하여,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많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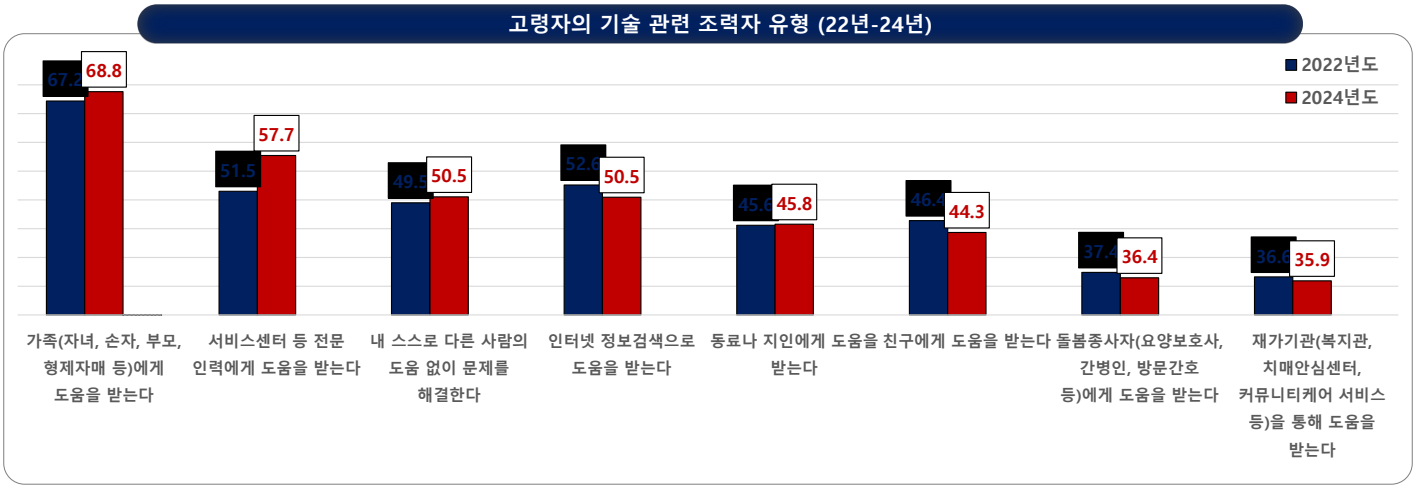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AgeTech코호트

1-4 [시니어] AgeTech 기술관련 조력자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시니어 기술관련 조력자

- 고령자는 기술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자녀, 손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2년도에 비해 24년에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서비스 센터 등 전문 인력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2, 2024) AgeTech코호트

2 [노인돌봄종사자 측면] 돌봄로봇 이용의향 변화 및 기술수용 유형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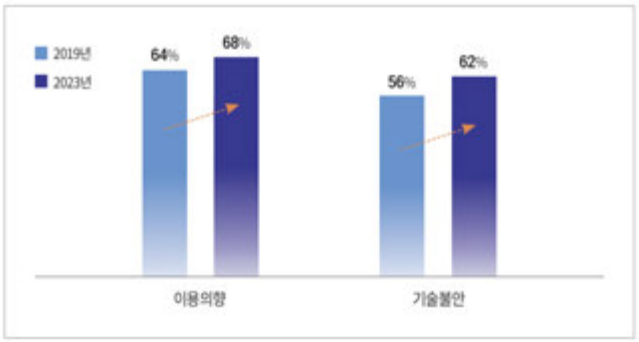
> 노인돌봄인력(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의 돌봄로봇 이용의향 집단비교분석결과

- 돌봄로봇 이용의향은 상승 : 2019년(64%) → 2023년(68%), 동시에 돌봄로봇에 대한 기술불안 상승 : 2019년(56%) → 2023년(62%)
- 돌봄로봇에 대한 이용의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증가하는 기술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균형잡힌 새로운 서비스모델 필요

> [돌봄로봇] "적극적 기술수용형"이 가장 많으나, "기술불안수용형"의 비중 또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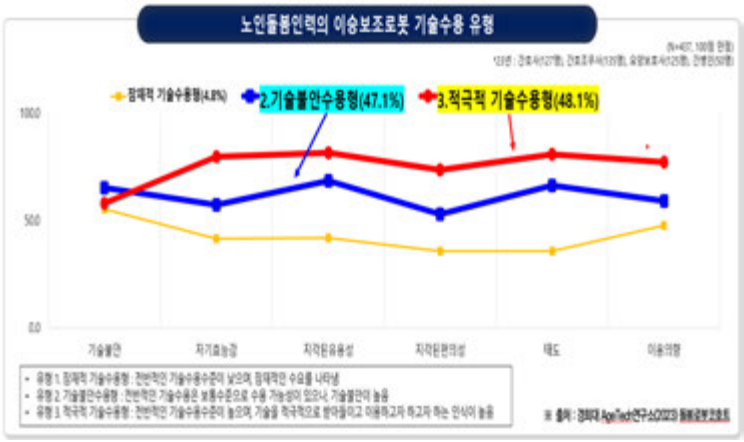
- **"적극적 기술수용형" 48.1%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돌봄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는 돌봄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확인**
- **"기술불안수용형"이 47.1%를 차지함에 따라 이승보조로봇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집단이므로 불안감을 낮추는 전략 필요**

노인돌봄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 돌봄로봇 의향 변화



* 노인돌봄인력(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대상으로 분석 (100점만점)

노인돌봄인력의 이승보조로봇 기술수용 유형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4) 돌봄로봇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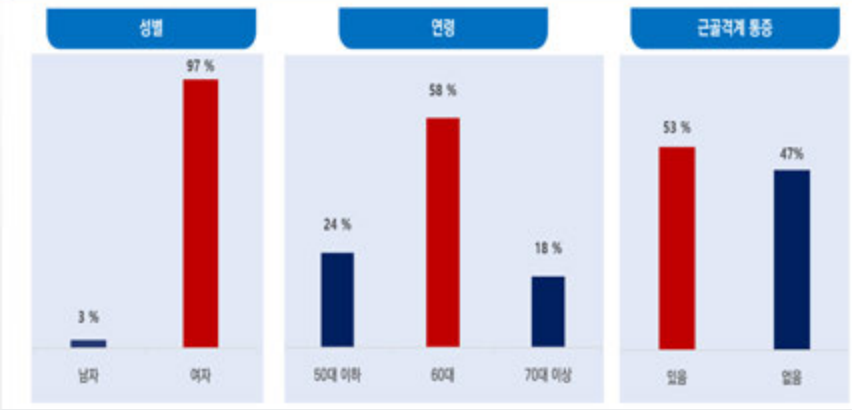
73

2-2 [노인돌봄종사자] 돌봄기술 교육시 고려사항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돌봄로봇 필요도가 높은 돌봄인력 집단** : 여성일수록, 60대 일수록,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수록 돌봄로봇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줌
- 기술효능감, 기술불안, 기술스트레스, 신체적 부담 등에 따라 수요가 달라져, 노인돌봄종사자 교육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

[시니어 돌봄로봇 소비자] 돌봄로봇 필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



근골격계 통증 유무에 따른 돌봄인력의 돌봄로봇 수용 영향요인

구분	변인	전체집단 (N=308)		
		B	β	t
기술적 요인	기술자기효능감	0.430	0.548	11.34***
	기술불안	-0.132	-0.165	-3.63***
	기술스트레스	-0.013	-0.110	-2.29*
직무요인	신체적 부담	0.047	0.066	1.12
	심리적 부담	0.025	0.038	0.63
	직무만족도	0.124	0.096	1.92
건강요인	주관적 건강	0.012	0.031	0.61
	우울	0.067	0.048	0.94
(상수)		1.515		2.74**
R^2 (adj R^2)		.439(.414)		
F		17.68***		

*p<.05, **p<.01, ***p<.001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6; 2024) 돌봄로봇 코호트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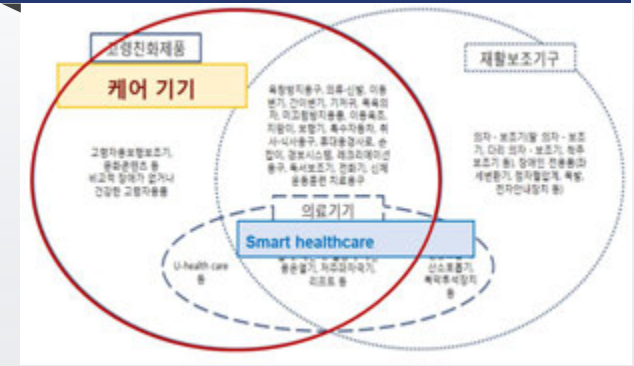
3 AgeTech·돌봄기술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 펀드 구축

1 [제도] 복지용구 : 전반적인 제도 정비 및 지역중심의 사업 지원 필요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 [용어] (협의) 복지용구 → (광의) high-end 세련된 수용도 높은 용어 (가칭) "케어기기(care device)"로의 용어 변경 고려
- [범위] 복지용구 : 재가급여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확대 필요
  - 시설급여 : 노인 분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까지 확대 필요
  - 보험료 또는 일반재원 등 재원에 대한 별도 논의는 필요
- [규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허용된 품목만 급여 인정) →기능·안전성 중심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진입 허용, 예외적 제한) 전환
- 공적 급여로의 연계 사전준비 : 지자체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 제안
  일반재원 적극적 활용 : 로봇산업진흥원보급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서비스R&D 등
  - 수가 적용 : 검토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인력보호] No Lift Policy 적용 검토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돌봄인력의 작업부하 최소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니어/환자 이송 과정 중에 노인/환자를 수동으로 들지 않도록 편의장비를 사용하는 것

시니어의료기기의 범위



	거동불편노인의 일상생활지원	돌봄자의 돌봄부담 경감	
환경	가정(재가)	시설	병원
공적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연계 (복지용구 예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연계 (시설 보급지원)	
사회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등과 연계 로봇산업진흥원 보급사업	로봇산업진흥원 보급사업	
민간서비스	(B2C) 중산층 대상 비즈니스모델	(B2G, B2B)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혹은 예비급여 민간보험	(B2G, B2B) 민간급여
	렌탈형태	렌탈 혹은 구매 형태	렌탈 혹은 구매 형태

※ 출처 : 경희대 AgeTech연구소(2025)

76

2 노인돌봄기술 AI 윤리와 신뢰 중시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모델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WHO「보건분야 AI의 연령차별」정책

- (AI의 연령차별) 데이터에 각인된 차별, 디지털 격차, 배제된 설계, 자원배분 결정으로 인해 고령자 연령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
- (AI윤리 고려사항) 이에 따라 AI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코드에 심거나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 지 않도록 하는 8가지고려사항 제시

WHO의 고령자 AI윤리 위한 8가지 고려사항

1. 고령자에 의한·고령자와 함께하는 참여적 설계 : 교육·훈련 기회 제공, 여러 세대의 프로그래머 유지, 연령뿐 아니라 성별·인종·능력의 교차성 반영
2. 연령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 과학팀 : 데이터 선정·검증·적용을 맡는 팀 자체를 연령·인구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
3. 연령 포용적 데이터 수집 : 고령자가 과소대표되면 규모 대비 초과 표집, 정부 지원 데이터 허브의 대표성 확보, 데이터 협동조합을 통한 당사자 관리
4.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리터러시 투자 : 고령자뿐 아니라 의료진·돌봄자 대상. 모니터링 시 '무엇을 왜 감시하며 누가 그 정보를 쓰는지'를 반드시 알려야하며, AI 교육과정을 기존 보수교육에 통합
5. 동의권과 이의제기권 : AI는 인간 의사결정을 ' 보조 ' 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림. 고령자는 AI 사용에 동의·거부·철회할 수 있어야 하고, AI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보장
6. 고령자와 함께하는 거버넌스·규제 : 윤리위원회·규제기관·표준제정기구에 고령자 참여, 소스코드·데이터 입력·분석방식의 투명성 요구, 정부 주도 AI 감사실시
7. 연구 확대 : 새로운 적용마다 확산 이전에 기회와 위험을 검토, 연령차별과 인종·성차별의 교차 영향 연구
8. 견고한 윤리 절차 : 대학·비영리·기업의 설계 단계에서 윤리 쟁점을 앞세우고, 개발 후에는 고령자에 대한 긍정·부정 영향평가 실시

※ 출처 : WHO(2022)



경희대학교 AgeTech연구소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강연 III

일본 시니어비즈니스의 동향과 사업기회



키이 노부유키(紀伊信之)

일본종합연구소 고령사회혁신그룹 부장

日本総研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의 동향과 사업 기회

개호보험 적용 범위 밖의 시니어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2026.11.5

주식회사 일본총합연구소 리서치·컨설팅 부문
고령사회 이노베이션 그룹
키이 노부유키

次世代の国づくり

자기소개

키이 노부유키

주식회사 일본총합연구소
리서치 · 컨설팅 부문
고령사회 이노베이션 그룹
부장 · 프린시펄





전문 분야
민간기업의 사업 전략, 신제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전략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거쳐
현재는 돌봄·시니어 분야의 조사·연구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실적
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 조사·연구 사업(치매, 개호보험 비급여 서비스, 돌봄 기술, 일·가족돌봄 양립 지원 등)
민간기업의 돌봄·고령자 관련 컨설팅(제약, 보험, 생활서비스, 통신, 사회복지법인 등)

위원 활동 등
내각부 「규제개혁추진회의 건강·의료·돌봄 워킹그룹」 전문위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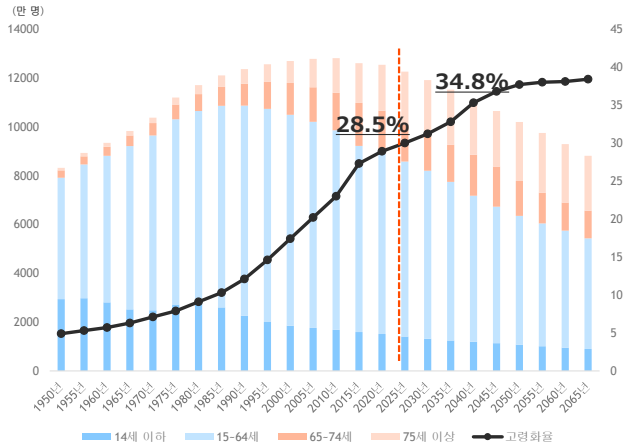
저서
『초고령사회에 도전하는 희망의 시니어 비즈니스』(공저) 외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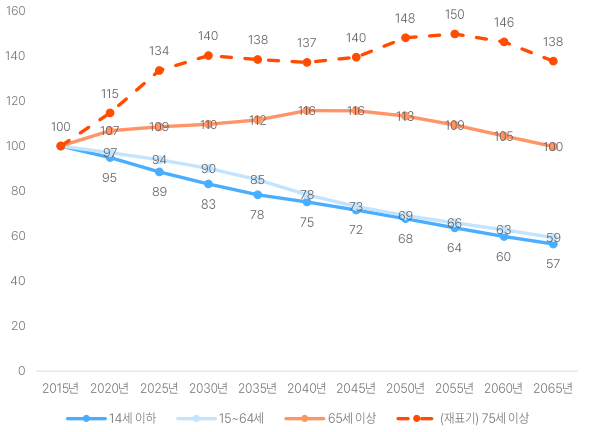
고령화 현황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중심은 '고령자 급증'에서 '경제활동 세대 급감'으로 이동
2055년 이후에는 고령자 인구도 감소할 전망

일본의 장래 인구 추계



연령대별 인구 증감(2015년=100)



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를 바탕으로 일본총합연구소 작성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2040년을 향한 일본의 고령화 현황

고령화는 '사회문제 심화'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초래
=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시장화(외부화)

고령화 심화	치매 증가	독거 고령자 증가	돌봄 인프라 부족	가족 돌봄 부담 증가
고령자 인구	치매·경도인지장애	1인 가구 고령자	돌봄·간호 인력 부족	일·돌봄 병행자
3,930만 명	**1,200만 명**	**1,000만 가구**	**94만 명**	**318만 명**
(고령화율 34.8%)	(고령자의 약 30%)	(고령자의 약 40%)	(수급 격차 심각)	(가족 돌봄 제공자의 40%)
2040년, 약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약 3.3명 중 1명이 치매·MCI	고령자의 40%가 혼자 거주	돌봄 종사자 약 57만 명 부족	경제적 손실 9조 2천억 엔 (2030년)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고령자 인구 구성

요지원·요개호 인구가 700만 명을 넘는 한편,
공적 개호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레일·프리프레일 인구도 약 1,800만 명 존재

65세 이상 인구 **3,622** 만 명 (2024년 7월)※1

건강한 고령자	노쇠(프레일)·노쇠 전 단계	요지원	요개호
1,111만 명※4	1,793만 명※3	206만 명※2	512만 명※2

※1 총무성 통계국「인구추계」2024년 7월호
※2 후생노동성「개호보험사업 상황보고」(잠정치), 2024년 7월분
※3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조사 결과(프레일 8.7%, 프리프레일 40.8%)를 65세 이상 인구에 적용. 프레일 315만 명, 프리프레일 1,478만 명으로 합계 1,793만 명 추산
https://www.tmghig.jp/research/release/2020/0903.html
*프레일에는 '요지원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4 65세 이상 인구에서 프레일·프리프레일, 요지원, 요개호 인구를 차감하여 산출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개호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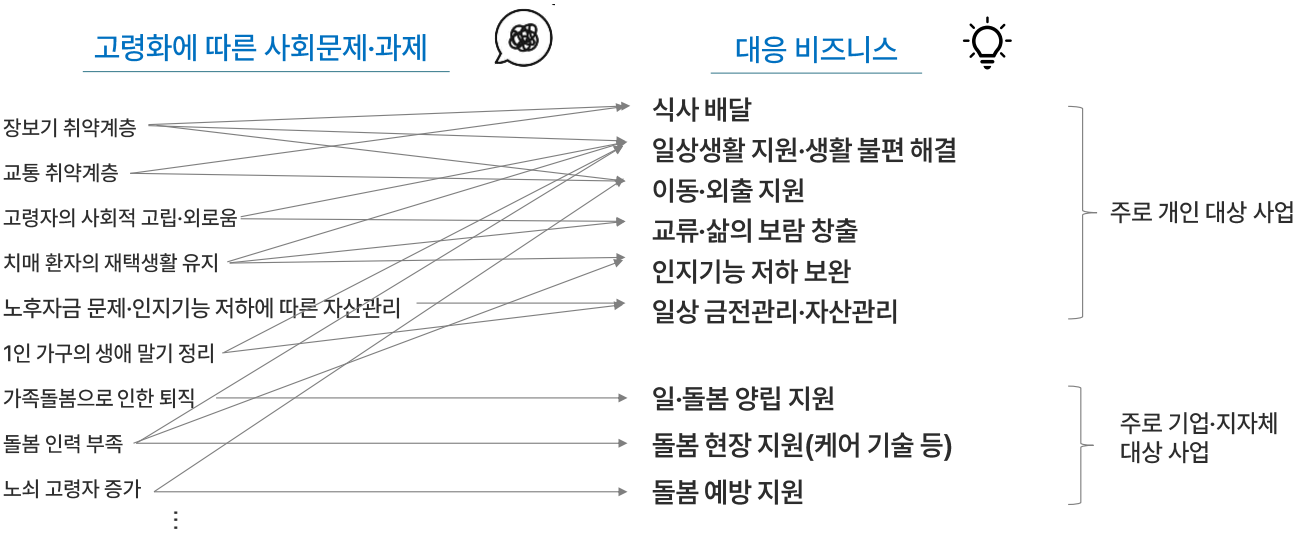
공적 개호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활동이 많습니다.
또한 긴급 대응이나 장시간의 돌봄·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적 개호보험 적용 대상	공적 개호보험 적용 제외
[일상생활 지원] ■ 청소·정리 등: 이용자 거주 공간의 청소·정리, 세탁, 쓰레기 배출 ■ 장보기: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 식사 준비: 이용자의 일상 식사 조리·준비·정리	[일상생활 지원] ■ 청소·정리 등 : 동거 가족의 세탁, 공용 공간 청소·정리 : 정원수 가지치기·제초, 화초 물주기 ■ 장보기: 기호품 또는 이용자 가족의 물품 구매 ■ 식사 준비: 특별한 수고가 필요한 조리, 이용자 가족을 위한 요리
[이동 지원] ■ 외출 동행·보조: 병원 방문 시 동행·보조	[이동 지원] ■ 외출 동행·보조 : 병원 내부에서의 보조 : 경조사 참석을 위한 외출 : 여행 동행·보조
[기타] ■ 지켜보기: 자립생활 지원 활동 중 지켜보기·말 걸기	[기타] ■ 지켜보기: 단순 지켜보기, 정기적인 안부 확인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문제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는 관점을 바꾸면 사업 기회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민간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1) 식사 배달

고령자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령자 대상 식사 배달 시장이 성장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2,400억 엔으로 추정

사업자	특징
와타미	외식업체이자 업계 최대 사업자. 매출 402억 엔(2025년 3월 결산), 전국 516개 점포 '안심 서비스'라는 유료 옵션으로 안부 확인 및 생활 문제 해결 서비스도 제공
시니어 라이프 크리에이트	프랜차이즈 방식. 매출 150억 엔(2025년 2월 결산), 전국 약 350개 점포
실버라이프	프랜차이즈 방식. 여러 브랜드의 가맹점이 900개를 초과. 매출 149억 엔(2025년 7월 결산) 단백질 조절식·무스식 등 식이 제한 및 다양한 식사 형태에 대응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2) 일상생활의 불편 해결

생활 지원 수요는 매우 큽니다. '가족이 해오던 일'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약 18%
2040년,
1인 고령자 가구 비율

535만 명
장보기가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자

30%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남성 독거 고령자

	주요 이용 상황	인력	시간당 요금	기타
이치로	야간·긴급 시 돌봄 보조	전문인력	3,190엔~	등록 인력 1만 명 이상
클라우드 케어	외출 동행 가사 지원	일부 전문인력	2,500엔~	
고요키키 (심부름 서비스)	정리·수납 가사 지원	학생 등	4,000엔~	
더스킨 라이프케어	장시간 지켜보기	비전문인력	4,400엔~	전국 95개 거점
헬퍼링크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비전문인력	1,500엔~	지바시와 협력
MIKAWA21	인정 전 가사 지원	비전문인력	3,000엔~	약 250개 가맹사

출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총합연구소 작성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생활 지원·식사 배달 업계에도 협회 설립

개호 관련 서비스 사업협회(CSBA)가 출범하여 표준화 체계 구축을 추진

2025.2	협회 설립(법인 100곳 이상)
2025.5	생활 지원·식사 배달 가이드라인 공개
2025.10	인증제도 운영 개시

목적: 인지도 향상, 올바른 선택 환경 조성 신뢰 기반 구축



'100세 인생 지원' 인증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3) 외출·이동 지원

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보기·교류·진료 등 일상활동의 전제 조건

연 25만~29만 명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2020~2023년)





535만 명
장보기가 어려운 75세 이상(3대 도시권 414만 명)

아이신 '초이소코'
- 예약형 합승 이동 서비스
- 전국 90여 지역에서 운영

하쿠호도 '놋카루'
- 주민 차량을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4) 삶의 보람·사회참여·삶의 질(QOL) 향상

단순히 '지원하는 시장'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장'으로

38.5% → 23.1%
삶의 보람을 충분히 느끼는 60세 이상 비율(2013→2021년)

- 여행·스마트폰 활용
- 학습·교류·취미
- 취업·사회참여







SPI 아에루 클럽
- 여행 도우미가 여행을 지원

AgeWELL JAPAN
- 스마트폰 교실에서 말벗 서비스로 확장

우키하노타카라
- 고령 여성들이 일하는 '할머니 카페'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5) 돌봄 예방·노쇠 예방

요개호 상태 이전의 고령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종합사업과 자부담 서비스 결합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여전히 획일적 프로그램과 사업모델이 많아 혁신할 여지도 큼.

1,793만 명
프레일·프리프레일 인구 추정치

6.2%
지역 모임·교류 장소 참여율

andMORE(미야자키현 고바야시시)
종합사업 + 자부담 장보기 지원

구마모토 건강지원연구소
프로그램 수료 후 자부담 서비스로 40~50% 연계

쇼핑 재활
장보기 자체를 재활활동으로 활용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즐거움·동료·외출·장보기 등 '계속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6) 치매 친화·고령친화 시장

다이고





사진 제공: 다이고

린나이·사이부가스



출처: 린나이 보도자료

치요다



출처: 치요다 보도자료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6) 치매 친화·고령친화 시장

사업 기회는 돌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

경제산업성의 지원 아래 당사자 참여형으로 치매 친화·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제품·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오렌지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참여 기업·단체(58개 기업·단체)

朝日カルチャーセンター / アデッソ株式会社 / イトーヨーカドー / welzo / Otsuka 大塚製薬 / Sheer Happiness / つなぎ / SOCC / 東和薬品 / TOTO / TOPPAN / 株式会社 小谷常 / KAERU / Kittoi / 牛乳石鹸 / GROOVE X / TOYOSHIMA / TOYOTA / 豊橋鉄道株式会社 / Travelcareふくおか / ナチハマ / GROOVER / 経済産業省 / CogSma / COCOWAKOKO / Cosmotec / 日本介護美容セラピスト協会 Maris COSMETICS / KNOCK ON THE DOOR / Hubbit / Pharmarise GROUP / 再春館製薬所 / 西部ガス Rinnai / さくらほりきり / 主婦の友社 / FELISSIMO オールライト研究所 / 北國銀行 / MAGEVER / MARUMITSU / SMBC / ·Y·U·K·A·I· / SAFETY NET LINKAGE / みまもりあいプロジェクト / SEKISUI 積水メディカル株式会社 / セブン&アイFood Systems / ZOJIRUSHI / softdevice inc. / universal sound design / 今日を愛する。LION / Remote Robotics / LOOVIC / RENAISSANCE / SoftBank / 第一興商 / DAIGO / 太陽生命少子高齢社会研究所 / Chiyoda / YKK Little Parts. Big Difference.

オレンジイノベ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 主催·参画団体·事務局

経済産業省 / 厚生労働省 / JDWG / 公益社団法人 認知症の人と家族の会 / 日本総研

経済産業省「2025年度 第2回 認知症民間協議会·認知症イノベーション アライアンス ワーキンググループ」事務局 資料 一部 修正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7) 일·가족돌봄 양립 지원

일·돌봄 병행자 300만 명 시대: 기업 대상 '양립 지원 사업'의 등장

돌봄 사업자의 전문성을 기업 대상 서비스로 확장
고객 범위가 본인에서 가족, 나아가 가족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확대



돌봄 전문성과 기업 고객 접점을 활용	기업 인사관리 전문성 활용
도쿄해상일동 베터라이프서비스 주식회사 보험 고객망 × 돌봄사업 전문성	체인지웨이브 그룹 경영·조직변화 지원 → LCAT
쓰쿠이 주식회사 돌봄 노하우 → 요리소이 컨시어지 for Business	인터넷 인피니티 주식회사 케어매니지먼트 온라인 → 와카루카이고
SOMPO 웰빙 주식회사 돌봄·건강경영 전문성 → 웰비오 Biz	

출처: 경제산업성「일·가족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경영자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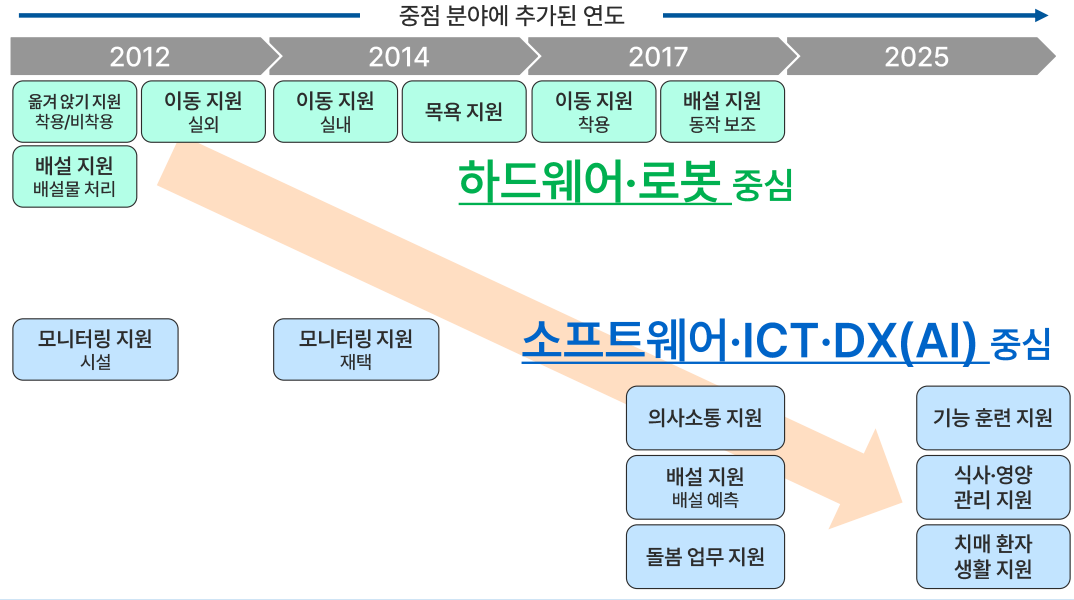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8) 돌봄 현장 지원: 로봇에서 ICT로

중점 분야가 하드웨어(돌봄 로봇)에서 소프트웨어(돌봄 기술)로 전환

예: 착용·탈착에 10여 분 걸리는 파워슈트는 현장에서 널리 보급되지 못함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8) 돌봄 현장 지원: 돌봄사업 기반 지원

영세·중소 사업자가 많은 돌봄업계의 공통 인프라 구축에 사업 기회가 존재

중소 사업자가 지역별로 분산



기능 통합

공통 플랫폼 서비스
조달·식사·IT·송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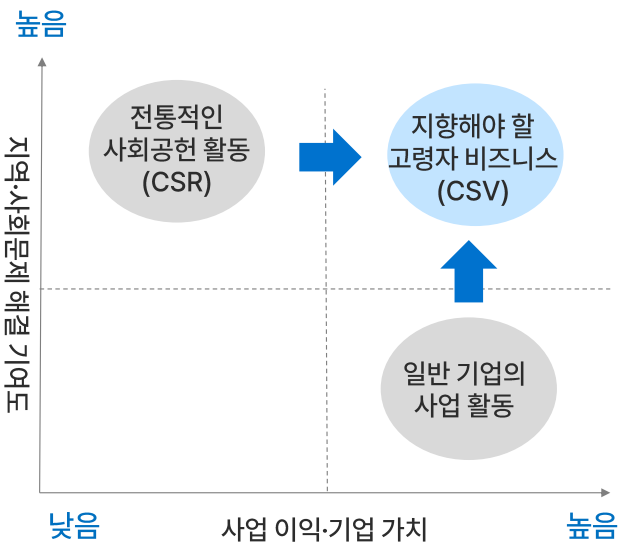
사업화
규모의 경제
서비스 고도화

조달·구매	식사 제공	정보 시스템	송영·이동 지원
			
가켄HD × 일본생명 공동구매 플랫폼	SOMPO 케어 솔루션즈 델리팩	비브리드 / 호무사포	소셜 무버 CareDrive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고령자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수익 확보 과제

고령자 비즈니스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어도 수익화는 별개의 과제입니다.



이용자 부담(B2C) 모델

● 경제력에 따라 이용자가 제한 = 양극화
- 60대 이상이 가계자산의 64.5% 보유
- 그중 자산 2,000만 엔 이상 1/4, 저축 없음 30%

● 수요 창출·고객 확보의 높은 장벽
- 신제품 정보가 고령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움
- '체념'과 '사양' 때문에 수요가 잠재화

지자체 부담(B2G) 모델

● '예방' 사업 예산이 적음
- 돌봄 : 예방 = 24 : 1(특정 지자체 사례)
- 종합사업 예산에는 상한이 있음

● '비용 대비 효과'를 설득하기 어려움
- 시정촌 부담은 12.5%, 수혜 주체는 분산
- PFS(성과연동형 위탁)는 전국 연간 50건 미만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경제산업성 추진 '산업·복지 공동가치 창출' =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 설계

각 참여자가 가치를 얻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됩니다.

지역 주민·이용자	기업·돌봄 사업자	지자체·지역사회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안심감과 삶의 질(QOL)이 높아집니다.	고객 접점·수익 기회·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돌봄 예방, 고립 방지, 지역포괄돌봄 체계가 강화됩니다.

지역문제에서 출발해 각자가 지닌 강점을 결합합니다.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사례 1: 웰시아 약국 '우에탄호'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성을 강화

서비스	식품·생활용품·의약품 이동판매 + 온라인 건강 상담
지자체	정차 장소 지정, 주민 대상 홍보 지역단체와의 조정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센터	안부 확인·서비스 이용 지원에 협력
사업 확대	전국 35개 지자체 도입 (2025년 7월)



이동판매 차량 '우에탄호'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사례 2: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지자체가 주민과 기업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마케팅'

대형 목욕시설의 셔틀버스를
돌봄 예방·교류 공간으로 활용

코프 아이치와 협력해 장보기 이후
배송 서비스 제공

지자체가 주민의 필요를 파악해
기업과 주민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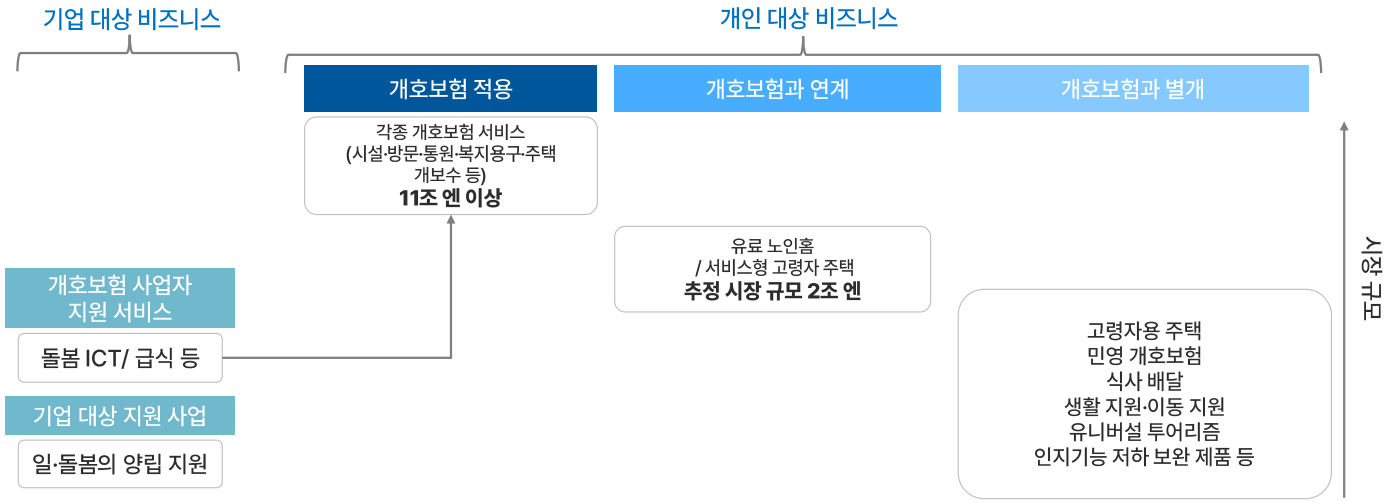


기업과 협력해 마련한 다양한 '지역 교류 장소'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정리: 고령화와 함께 성장하는 웰에이징 산업

개호보험 적용 서비스와 고령자 시설·주거뿐 아니라 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웰에이징(WELL AGING) 산업의 가능성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일본총합연구소
리서치·컨설팅 부문

고령사회 이노베이션 그룹

부장·프린시펄 키이 노부유키

이메일: kii.nobuyuki@jri.co.jp
전화: 080-1203-5178(직통)

주식회사
일본총합연구소

〒141-0022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2-18-1 오사키 포레스트 빌딩

〒550-0001
오사카시 니시구 도사보리 2-2-4 도사보리 다이빌딩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일본총합연구소에 있습니다.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日本総研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2026韓日シニアフォーラム

日本におけるシニアビジネスの動向と事業機会
介護保険外のシニアビジネスを中心に

2026.11.5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
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部門
高齢社会イノベーショングループ
紀伊　信之

次世代の国づくり

自己紹介

紀伊　信之　きい　のぶゆき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
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部門
高齢社会イノベーショングループ
部長　プリンシパル





専門分野
民間事業者向けの事業戦略、新商品・サービス開発、マーケティング戦略全般等のコンサルティングを経て、介護・シニア分野の調査研究・コンサルティングに従事。

主なプロジェクト実績
経済産業省・厚生労働省の調査研究・プロジェクト（認知症、保険外サービス、介護テクノロジー、仕事と介護の両立支援等）

民間事業会社の介護・高齢者関連のコンサルティング（製薬、保険、生活サービス、通信、社会福祉法人等）

委員等
内閣府「規制改革推進会議　健康・医療・介護ワーキンググループ」専門委員　な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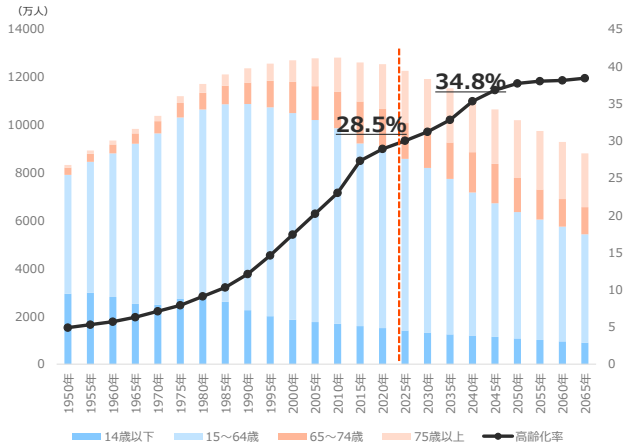
著書
「超高齢社会に挑む希望のシニアビジネス」（共著）　ほか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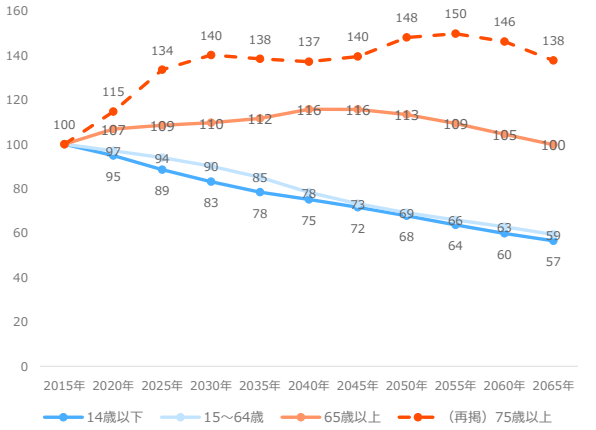
高齢化の状況

少子高齢化により、生産年齢人口は一貫して減少
今後は「高齢者の急増」から「現役世代の急減」に人口動態の局面が変化
その後2055年を境に高齢者の人口も減少していく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各階層の人口増減（2015年を100とした場合の増減）



出所：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より日本総研作成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2040年に向けた日本の高齢化の状況

高齢化の進展は、「社会課題の深刻化」と「市場拡大」を同時にもたらす
＝家事や生活支援等の市場化（外部化）

更なる高齢化

高齢者人口

3,930万人

（高齢化率34.8%）

2040年、
約3人に1人が65歳以上

認知症増加

認知症・軽度認知障害

1,200万人

（高齢者の約30%）

高齢者の
約3.3人に1人
が認知症・MCI

独居高齢者増加

一人暮らし高齢者

1,000万世帯

（高齢者の約40%）

高齢者の**40%**が
一人暮らし

インフラ不足

介護・看護人材不足

94万人

（需給ギャップ大）

介護職員
約57万人不足

家族負担増加

ワーキングケアラー

318万人

（家族介護者の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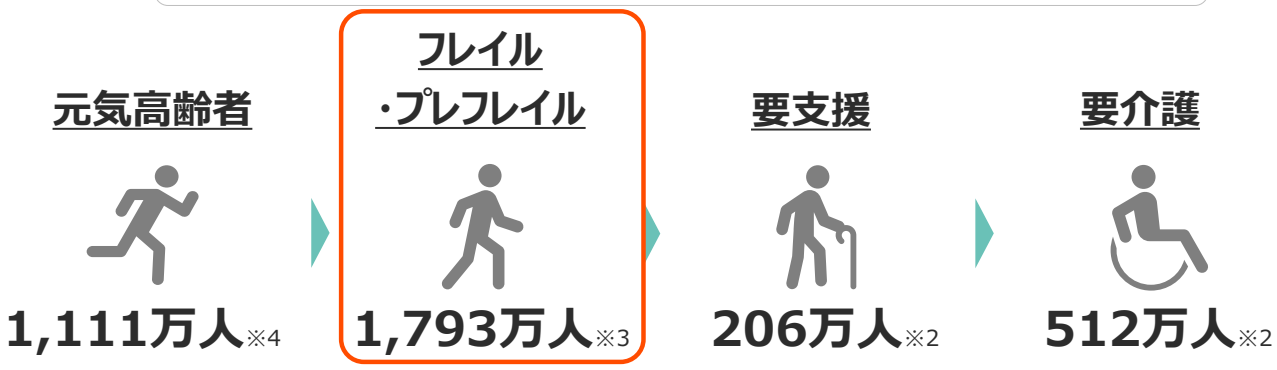
経済損失 **9.2兆円**
（2030年）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高齢者の内訳

要支援・要介護者が700万人を超える一方で、公的介護保険の対象とならないフレイル・プレフレイル層が1,800万人弱存在する

65歳以上人口 **3,622万人**（2024年7月）※1



※1 総務省統計局 人口推計 2024年（令和6年）7月報
※2 厚生労働省 介護保険状況報告（暫定） 令和6年7月分
※3 東京都健康長寿医療センター調査の「フレイル8.7%、プレフレイル40.8%」より、65歳以上人口をかけて、フレイル315万人、1,478万人 あわせて1,793万人と試算
https://www.tmghig.jp/research/release/2020/0903.html
※フレイルに「要支援者」は含まれていないものとして試算
※4 65歳以上人口から、フレイル・プレフレイル、要支援、要介護を差し引いて算出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介護保険のサービスでできること/できない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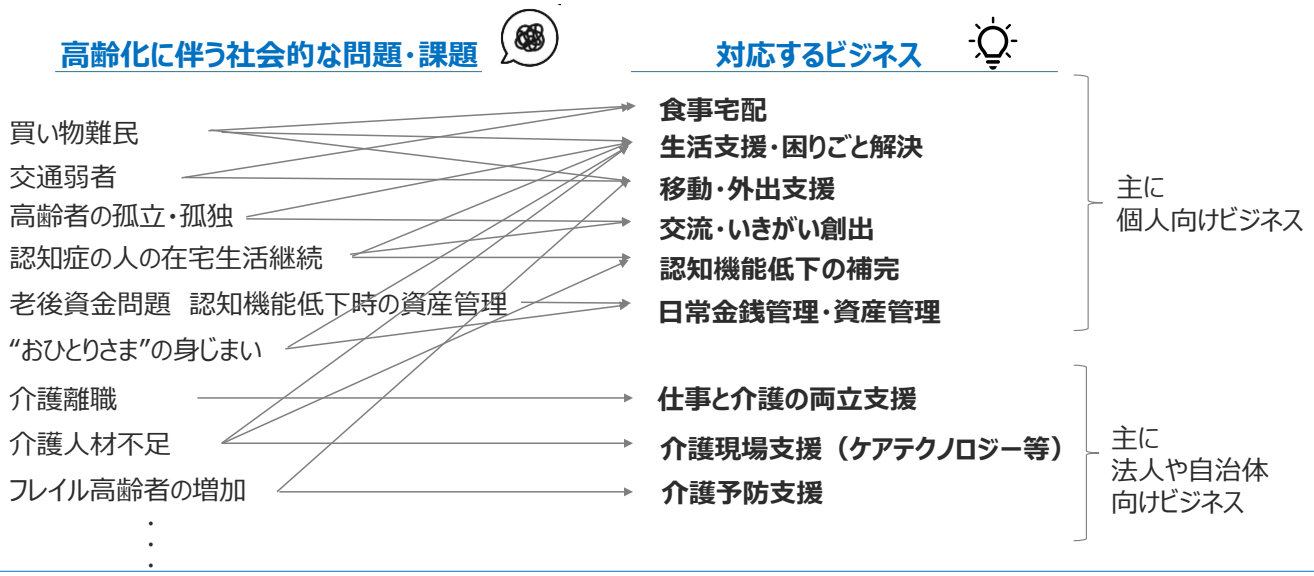
公的介護保険サービスの対象にならないことが多いことに加え、介護保険サービスでは急な対応や長時間の介助や付き添いには対応できない、という限界がある

公的介護保険サービスの対象になるもの	公的介護保険サービスの対象にならないもの
【生活支援】 掃除・片付け等 • 利用者にかかる範囲の居宅の掃除片付け、洗濯、ゴミ出し 買い物 • 利用者の日常生活に必要な物品の買い物 調理 • 利用者の日常の食事の調理、準備、片付け	【生活支援】 掃除・片付け等 • 利用者の同居家族分の洗濯や、共用部分の掃除、片付け • 庭木の剪定や草むしり、花木への水やり 買い物 • 嗜好品や、利用者家族分の物品の買い物 調理 • 特別な手間をかけて行うもの、利用者家族に向けた料理
【移動支援】 外出介助 • 病院への介助	【移動支援】 外出介助 • 病院内での介助 • 冠婚葬祭等への参加のための外出 • 旅行への同行、介助
【その他】 見守り • 自立生活支援に伴う活動の見守りや声掛け	【その他】 見守り • 単なる活動の見守り、定期的な安否確認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高齢化に伴う社会課題＝見方を変えれば、ビジネスチャンス

高齢化に伴う様々な社会課題は、見方を変えればビジネスチャンスである
実際に、日本では様々な領域で、民間ビジネスが成長している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1）食事宅配

高齢者人口の増加を背景に、高齢者向けの食事宅配が成長
2025年では約2,400億円の市場規模だと推計されている

事業者	特徴
ワタミ	外食事業者。業界最大手。売上402億円（2025年3月期）全国516店舗 「あんしんサービス」として、有償オプションでみまもりや生活トラブル解決サービスも提供。
シニアライフクリエイト	フランチャイズ方式。売上150億円（2025年2月期）全国約350店舗
シルバーライフ	フランチャイズ方式。複数のブランドで加盟店は900店を超える。売上149億円（2025年7月期） たんぱく調整食やムース食など、栄養制限や多様な食形態にも対応。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２）暮らしの困りごと解決

生活を支える手助けは需要大 「家族が担ってきたこと」がビジネスに

約18%
2040年、単身高齢者世帯の割合

535万人
買い物が困難な75歳以上

3割
頼れる人がいない高齢独居男性

	主な利用シーン	人材	単価（1時間）	その他
イチロウ	深夜・緊急時介助	専門職	3,190円~	登録1万名超
クラウドケア	外出付添い家事支援	一部専門職	2,500円~	
御用聞き	片付け家事支援	学生等	4,000円~	
ダスキンライフケア	長時間の見守り	非専門職	4,400円~	全国95拠点
ヘルパーリンク	外出付添い家事支援	非専門職	1,500円~	千葉市と連携
MIKAWA21	認定前の家事支援	非専門職	3,000円~	加盟約250社

出所）各種情報を基に日本総研作成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生活支援や食事宅配の業界団体も発足

介護関連サービス事業協会（CSBA）が発足し、仕組みづくりが進む

2025.2	協会発足（100法人以上）
2025.5	生活支援・配食のガイドライン公開
2025.10	認証制度の運用を開始

目的：認知度向上・適切な選択環境・信頼の仕組みづくり



100年人生サポート認証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３）外出・移動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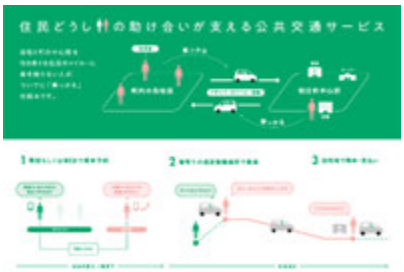
移動は目的ではなく、買い物・交流・受診など生活行為の前提

25～29万人/年
75歳以上の運転免許返納（令和2～5年）

535万人
買い物が困難な75歳以上（3大都市圏で414万人）



アイシン「チョイソコ」
予約型の乗合送迎。
全国90以上の地域で展開



博報堂「ノッカル」
住民のマイカーを活用した公共交通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４）生きがい・社会参加・QOL向上

「支える」だけでなく「人生を豊かにする」市場へ

38.5%→23.1%
生きがいを十分感じる60歳以上（H25→R3）

- 旅行・スマホ活用
- 学び・交流・趣味
- 就労・社会参加



SPIあ・える倶楽部
トラベルヘルパーで旅を支援



AgeWELL JAPAN
スマホ教室から話し相手へ



うきはの宝
高齢女性が働く「ばあちゃん喫茶」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５）介護予防・フレイル予防

要介護になる前の層をどう支えるか。総合事業×自費の組み合わせにチャンス
まだまだ画一的なプログラム、ビジネスモデル→イノベーションの余地大

1,793万人
フレイル・プレフレイル層の推計

6.2%
通いの場の参加率

andMORE（宮崎県小林市）
総合事業＋自費の買い物支援

くまもと健康支援研究所
卒業後の自費受け皿で4～5割継続

ショッピングリハビリ
買い物そのものをリハビリに





「正しいから」では続かない
楽しさ・仲間・外出・買い物など「続ける理由」が必要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６）認知症・高齢者フレンドリー市場

大醐





写真提供：大醐

リンナイ・西部ガス



出所：リンナイ プレスリリース

チヨダ



出所：チヨダ プレスリリース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６）認知症・高齢者フレンドリー市場

課題・チャンスは介護に限らず、暮らしのあらゆる場面に広がる

経済産業省支援のもと、「当事者参画型」での認知症（高齢者）フレンドリーで
「誰もが使いやすい」製品・サービスの開発が進む

令和７年度　オレンジイノベ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　実践企業・団体（58企業・団体）

朝日カルチャーセンター／アデッソ株式会社／イトーヨーカドー／welzo／Otsuka 大塚製薬／Sheer Happiness／つなぎ／SOCC／東和薬品／TOTO／TOPPAN／株式会社 小谷常／KAERU／Kittoi／牛乳石鹸／GROOVE X／TOYOSHIMA 豊島株式会社／TOYOTA／豊橋鉄道株式会社／Travelcareふくおか／ナチハマ／GROOVER／経済産業省／CogSma／COCOWAKO／Cosmotec／日本介護美容セラピスト協会 Marisコスメティクス／KNOCK ON THE DOOR／Hubbit／おぼえている手帳／Pharmarise GROUP／再春館製薬所／西部ガス Rinnai／さくらほりきり／主婦の友社／オールライト研究所／北國銀行／MAGEVER／MARUMITSU／SMBC／YUKAI ENGINEERING／SAFETY NET LINKAGE／みまもりあいプロジェクト／SEKISUI 積水メディカル株式会社／セブン&アイ Food Systems／ZOJIRUSHI／softdevice inc.／universal sound design／今日を愛する。LION／Remote Robotics／LOOVIC／RENAISSANCE／SoftBank／第一興商／DAIGO／太陽生命少子高齢社会研究所／Chiyoda／YKK Little Parts. Big Difference.

オレンジイノベ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　主催・参画団体・事務局
経済産業省／厚生労働省／JDWG／公益社団法人 認知症の人と家族の会／日本総研

経済産業省「令和7年度第2回 認知症官民協議会 認知症イノベーションアライアンスワーキンググループ」事務局資料を一部改変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７）仕事と介護の両立支援

ワーキングケアラー300万人時代：法人向けの「両立支援ビジネス」が勃興

介護事業者の知見を、法人向けサービスへ
顧客は本人だけでなく、家族、そして家族が勤める企業へ



出所）経済産業省
「仕事と介護の両立支援に関する経営者向けガイドライン」

介護の知見や法人接点を活用	企業人事の知見を活用
東京海上日動ベターライフサービス株式会社 保険顧客網×介護事業の知見	**株式会社チェンジウェーブグループ** 経営・組織変革支援→LCAT
株式会社ツクイ 介護ノウハウ→よりそいコンシェル for Business	**株式会社インターネットインフィニティー** ケアマネジメントオンライン→わかるかいご
ＳＯＭＰＯウェルビーイング株式会社 介護・健康経営の知見→ウェルビオBiz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８）介護現場支援：ロボットからICTへ

重点分野はハード（介護ロボット）からソフト（介護テクノロジー）へ転換

例：着脱に十数分かかるパワースーツは現場で普及せず



重点分野に追加された年

2012 / 2014 / 2017 / 2025

メカ

- 移乗支援 装着/非装着
- 移動支援 屋外
- 移動支援 屋内
- 入浴支援
- 移動支援 装着
- 排泄支援 動作支援
- 排泄支援 排泄物処理

ハード・ロボット中心

- 見守り支援 施設
- 見守り支援 在宅

ソフト・ICT・DX（AI）中心

- コミュニケーション
- 排泄支援 排泄予測
- 介護業務支援
- 機能訓練支援
- 食事・栄養管理支援
- 認知症生活支援

ICT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８）介護現場支援：介護事業の基盤支援

中小事業者が多い介護業界の基盤整備に事業化余地

中小事業者が点在

機能を集約

共通基盤サービス
調達・食事・IT・送迎な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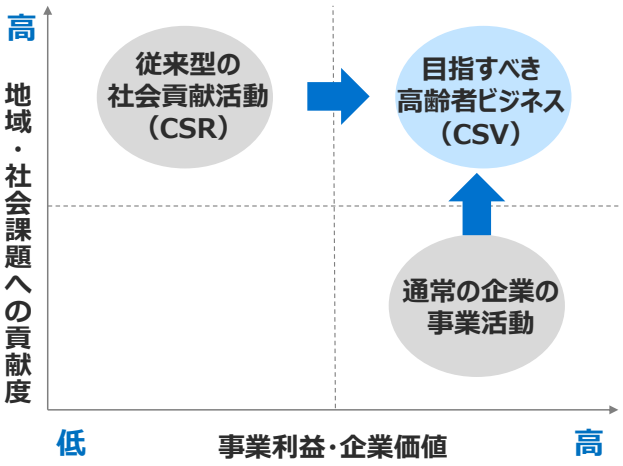
→ **事業化** 規模の経済 高度化

調達・購買	食事提供	情報システム	送迎
学研ＨＤ×日本生命 共同購買プラットフォーム	SOMPOケアソリューションズ デリパック	ビーブリッド ほむさぽ	ソーシャルムーバー CareDrive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高齢者ビジネスにおける収益確保に向けた課題

高齢者ビジネスは儲かりにくい…ニーズがあっても収益化は簡単ではない



利用者負担（B2C）モデル

●経済力で利用者が限られる＝二極化

- 60代以上が家計資産の**64.5**%
- うち資産2,000万円以上が1/4／**貯蓄なしが3割**

●需要喚起・利用者獲得のハードル

- 新製品の情報が届きにくい
- 「諦め」「遠慮」で需要が潜在化

自治体負担（B2G）モデル

●「予防」の予算が小さい

- **介護：予防＝24：1**（ある自治体の例）
- 総合事業は予算キャップあり

●「費用対効果」が訴求しにくい

- 市町村負担12.5%＝**受益者が分散**
- **PFS**（成果連動型委託）は全国で**年間50件弱**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経済産業省が推進する「産福共創」＝「三方良し」の事業デザイン

それぞれが価値を得るから、取組が続く

住民・利用者	企業・介護事業者	自治体・地域
暮らしの不便が解消され、安心とQOLが高まる	顧客接点・収益機会・地域での信頼を得る	課題解決・介護予防・孤立防止・地域包括ケアの充実

地域課題を起点に、それぞれの強みを持ち寄る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事例1：ウエルシア薬局「うえたん号」

補助金に頼らず、地域（自治体）と組むことで継続性を高める

サービス	食品・日用品・医薬品の移動販売 ＋オンライン健康相談
自治体	停留所の設定・住民への周知 ・地域団体との調整
社協・包括	見守りや利用支援で協力
展開	全国35自治体に導入 （2025年7月）



移動販売車両「うえたん号」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事例2：愛知県豊明市

自治体が住民と企業をつなぐ「ローカルマーケティング」

スーパー銭湯の送迎バスを、
介護予防・交流の場として活用

コープあいちと連携し、
買い物後の配送サービスを展開

自治体が住民ニーズを把握し、
企業と住民をつな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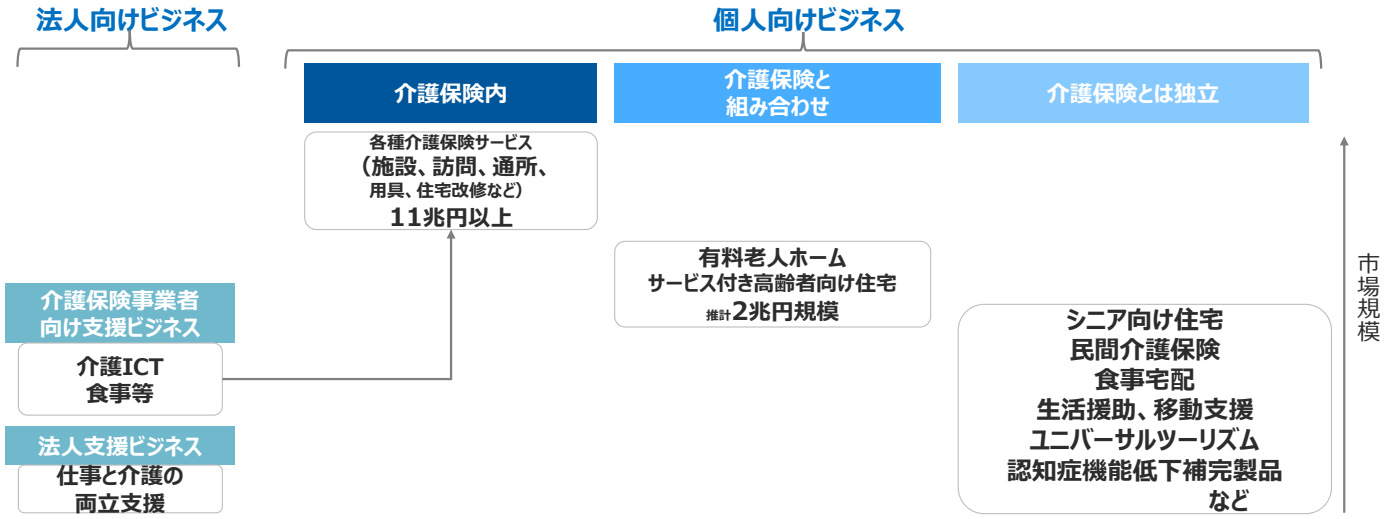


企業と連携した多様な「通いの場」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まとめ：高齢化に伴い成長するWELL AGING産業

介護保険内サービスや高齢者向けの施設・住まいに加え、
高齢化に伴う様々な社会課題を解決し得る様々なビジネスが生まれつつある
＝WELL AGING産業の可能性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
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部門

高齢社会イノベーショングループ

部長・プリンシパル　紀伊 信之
E-mail: kii.nobuyuki@jri.co.jp
Tel: 080-1203-5178（直通）

株式会社
日本総合研究所

〒141-0022
東京都品川区東五反田2丁目18番1号　大崎フォレストビルディング

〒550-0001
大阪市西区土佐堀2丁目2番4号　土佐堀ダイビル

本資料の著作権は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に帰属します。

Copyright (C) 2026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사례발표 II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야마기와 사토시(山際聡)

주식회사 미라이 프로젝트 대표이사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일본의 개호보험 비급여 서비스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2026 한일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2026년 11월 5일

발표: 야마기와 사토시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발표 순서

1. 회사 소개 및 사업 전개
2. 시장과 그 배경
3. 사업 소개
4. 돌봄미용 사업 소개　(방문미용 사업 / 교육기관 사업)
5. 향후 활동과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의 미래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1 회사 소개 (기업 개요)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미라이프로젝트
사업 내용	돌봄 × 미용 사업 (교육기관·방문미용 등)
설립	2015년 11월 19일
소재지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1-15-15 다가미 진구마에 빌딩 2층
직원 수	110명(2026년 9월 기준)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야마기와 사토시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사업 전개

4대 사업: 고령자도 미용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 구축



일본 전국 8개 거점 운영

도쿄(하라주쿠·요요기)
요코하마·오미야·나고야
오사카(신사이바시·우메다)·후쿠오카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care sweet

포기했던 미용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환경

미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마음과 몸에 활력을 주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메뉴



케어 네일
Care nail

케어 에스테틱
Care aesthetic





헤어 케어
HAIR care





케어 메이크업
Care make up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교육부터 시설 도입까지 통합 운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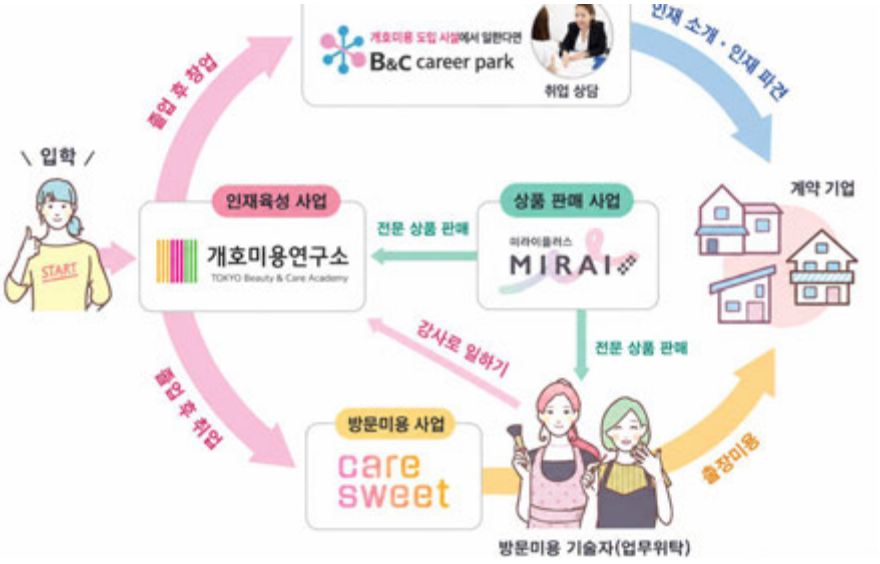
① 전문 인력 양성

↓

② 일자리 연계

↓

③ 시설의 정기 서비스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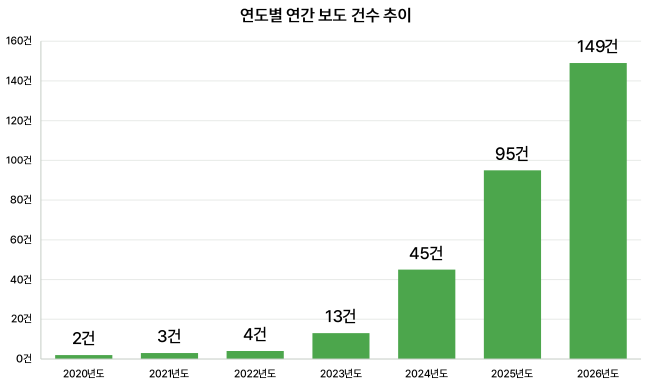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홍보 성과

언론 보도

확산되는 돌봄미용

전국의 TV·신문·온라인 매체에서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돌봄미용과 당사의 사업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 사례

【TV】
- 후지TV「Live News 잇!」
- TBS「N스타: 강력 추천 인물」
- NHK「오후 LIVE 뉴스」
- 후지TV「논스톱!」
- TV아사히「슈퍼 J 채널」
- 니혼TV「news every.」
- TV아사히「굿! 모닝」
- TV아사히「이케가미 아키라의 뉴스 해설」
- NHK WORLD-JAPAN「BIZ STREAM」
- 중국중앙TV「천하재경」
- 지바TV「news 지바」

【신문】
- 요미우리신문(지면·온라인·지역판 등 총 3건)
- 아사히신문(지면·온라인·지역판 등 총 3건)
- 니혼게이자이신문(지면·석간·사이타마판 등 총 3건)
- 마이니치신문(오사카판 등 총 2건)
- 산케이신문(오사카 석간 등 1건)

【온라인】
- 요미우리신문 온라인
- 아사히신문 디지털
- 지지닷컴
- 지지통신 뉴스
- 지지 메디컬
- 닛테레 NEWS NNN
- 테레아사 NEWS
- 도쿄신문 디지털

【잡지】
- 개호비전
- BRAVO My Life
- 주간 후쿠오카경제
- 고령자주택신문
- 실버산업신문

※이 밖에도 다수의 보도 실적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홍보 성과

SNS 확산

인지도·정보 발신력 확대(SNS 성과)

전체 팔로워 수

85,764 명

돌봄미용 관련 인기 영상도 다수!

누적 조회 수

약 6,083만 회

※ 최근 1년간 조회 수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홍보 성과

인지도 조사

‘돌봄미용’ 인지도 34.5%!
관련 용어에 대한 일반 인지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봄미용 인지도	케어뷰티스트 인지도	care sweet 인지도	돌봄미용연구소 인지도
34.5%	**18.9%**	**16.9%**	**17.8%**
+9.9 pt	+4.9 pt	2026년 신규 조사 항목	2026년 신규 조사 항목
2025년: 24.6%	2025년: 14.0%	2025년: —	2025년: —
잘 안다 + 어느 정도 안다	잘 안다 + 어느 정도 안다	내용도 안다 + 본 적 있다	내용도 안다 + 본 적 있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불과 1년 동안 돌봄미용 인지도(잘 안다+어느 정도 안다)가 24.6%에서 34.5%로 약 10%p 상승했습니다.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에서 12.6%로 약 1.7배 늘었습니다.
교육기관 확대, 방문 서비스, 일본돌봄미용협회 설립, 인증제도 정비 등 당사가 주도한 업계 인식 개선 활동이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2 시장과 배경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사회적 배경(돌봄 인력 문제)

일본의 돌봄 인력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

채용난과 이직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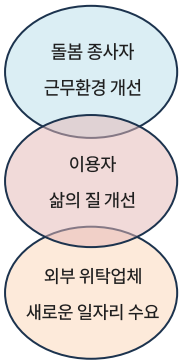
신체적 부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용자를 지원해야 해 한 사람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정신적 부담
여가 프로그램 기획, 이용자와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정신적 피로가 쌓입니다.

인력 수급 격차 해소 방안(당사 제안)

하드웨어 측면
· AI 도입을 통한 효율화
· 로봇 도입을 통한 노동 절감

인력 운영 측면
· 업무 분담 확대(외부 위탁)
· 돌봄미용 등 외부 전문 서비스 도입



외부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요양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적 보험 비급여 서비스 도입은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3 새로운 개호보험 비급여 서비스 방문미용「care sweet」

care sweet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방문미용「care sweet」

고령자에게 전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비급여 서비스가 '돌봄미용 서비스'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헤어살롱 시술 제공
(커트·염색·펌)

「방문 헤어커트 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종합 뷰티 시술 제공
(메이크업·네일·에스테틱·아로마 등)

「케어뷰티 서비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care sweet

돌봄미용 도입의 3가지 장점

돌봄미용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소통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설 전체의 가치를 높입니다.







마음에 공감하는 돌봄 실현

돌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마음에 공감하는 돌봄'을 비급여 서비스인 care sweet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소통 활성화

미용을 매개로 대화가 늘어 이용자의 의사 표현과 외출 의욕이 높아집니다.
직원 간 소통도 활발해집니다.

인근 시설과 차별화

일상 돌봄에 더해진 '고품질 미용 체험'은 다른 시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자 선택 이유가 됩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연간 미용 프로그램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설날·새해맞이		히나마쓰리·봄		어버이날 (일본의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새해맞이 따뜻한 핸드 케어	봄맞이 편안한 풋 케어	벚꽃빛 립 만들기	벚꽃 네일 케어·컬러	어머니의 날 메이크업·사진	생기 있는 외모 관리 강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칠석·여름축제		경로의 날			크리스마스
시원한 부채 만들기	시원한 헤드 스파	경로의 날 기념 메이크업·사진	보습 네일 오일 만들기	촉촉한 프리미엄 핸드 케어	크리스마스 특별 에스테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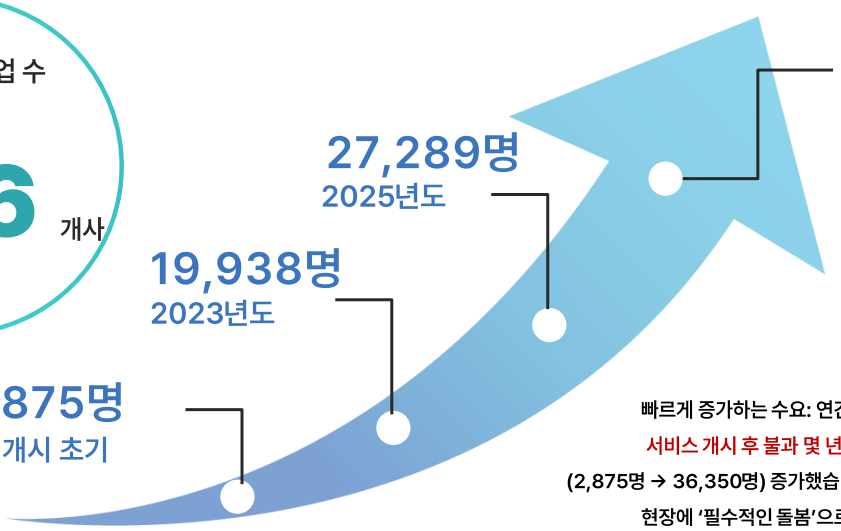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정량적 성과 데이터

연간 시술 인원

신규 계약 기업 수

726 개사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 연간 시술 인원 36,000명 돌파.
서비스 개시 후 불과 몇 년 만에 시술 인원이 약 12.6배
(2,875명 → 36,350명) 증가했습니다. 돌봄미용은 단순 여가활동을 넘어
현장에 '필수적인 돌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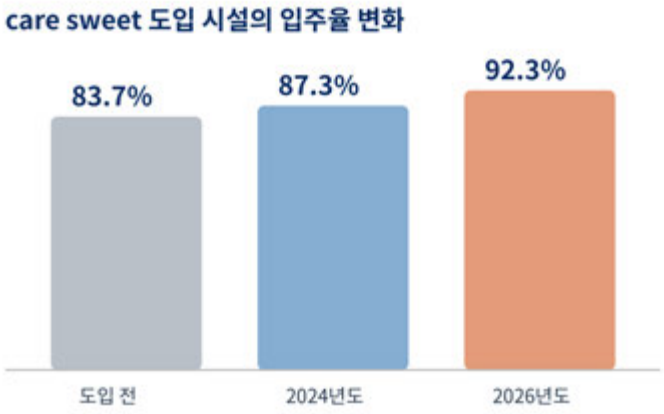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정량적 성과 데이터 ※ 당사 서비스 도입 시설의 실적 변화 사례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경쟁 시설과 차별화해 입주율 상승

미용 서비스가 시설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다른 시설에 없는 '돌봄미용'을 도입하면 시설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care sweet 도입 전후 입주율

8.6 %p 상승

※ 공익재단법인 개호노동안정센터 「2025년도 개호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사업소 조사)」에 근거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정량적 성과 데이터 ※ 당사 서비스 도입 시설의 실적 변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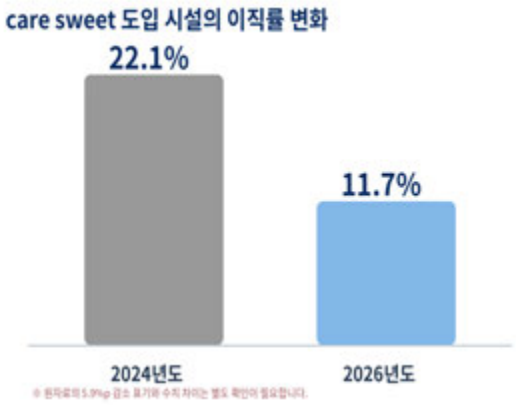
직원 이직률 크게 개선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행사 효과로 현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이직률이 대폭 낮아져 직원의 장기근속에 기여했습니다.

care sweet 도입 전후 이직률

10.4 %p 감소

※ 공익재단법인 개호노동안정센터 「2025년도 개호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사업소 조사)」에 근거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4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돌봄미용연구소」

介護美容研究所
TOKYO Beauty & Care Academy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돌봄미용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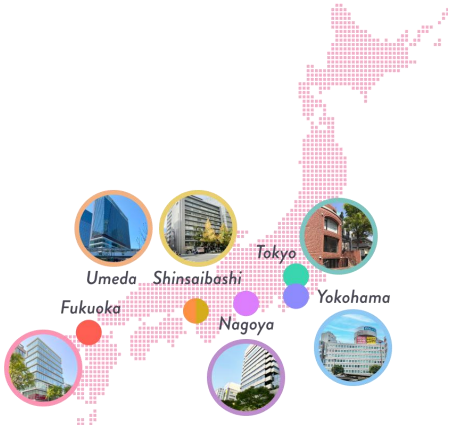
돌봄미용 전문가가 직접 방문

개호미용연구소
TOKYO Beauty & Care Academy

- **돌봄미용 전문 인력 배출 5,000명 이상!**
  일본 최초 돌봄미용 전문 교육기관인 돌봄미용연구소의 재학생·졸업생은 2026년 5,000명을 넘어섰으며, 3년 후에는 1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 **현장에 바로 투입할 실무형 인력 양성 과정!**
  간호사, 개호복지사, 물리치료사(PT), 작업치료사(OT) 등 돌봄 종사자뿐 아니라 미용사, 네일리스트, 피부미용사 등 미용업 종사자와 비전공자까지 폭넓게 수강합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돌봄미용이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와 돌봄의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돌봄미용연구소」

교육과정

평균 15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재학 중 반드시 현장 실습을 경험하도록 구성해
졸업 직후부터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개월] 기초	[6개월] 표준	LABO 응시 자격 있음 [8개월] 상급(한정)	LABO 응시 자격 있음 [1년] 상급
자격 취득 없음	케어뷰티스트 인증 자격	케어뷰티 마이스터 인증 자격(특정 영역)	케어뷰티 마이스터 인증 자격
12주(48회) / 현장실습 3회	22주(88회) / 현장실습 5회	28주(112회) / 현장실습 9회	38주(152회) / 현장실습 11회
● 개호/의료 현장에서 일상 속에 개호미용을 도입할 수 있는 기초 기술 및 지식을 습득	● 전문가로서 고령자 대상 미용 시술/레크리에이션 기술 및 지식을 인증. ● 케어뷰티스트로서 하나의 강점을 만들고 비즈니스의 기반을 습득	● 특정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중장기 플랜 수립부터 실행까지의 실적을 인증. ● 중장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진정한 "밀착 케어"를 습득	●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중장기 플랜 수립부터 실행까지의 실적을 인증. ● 케어뷰티스트로서 토털 뷰티를 익히고 다양한 고객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
care sweet는 등록 불가	care sweet 수료 과목 분야에 한해 수주 가능	care sweet 수료 과목 분야에 한해 수주 가능	care sweet 모든 분야의 안건 수주 가능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교육사업의 추가 성과

학회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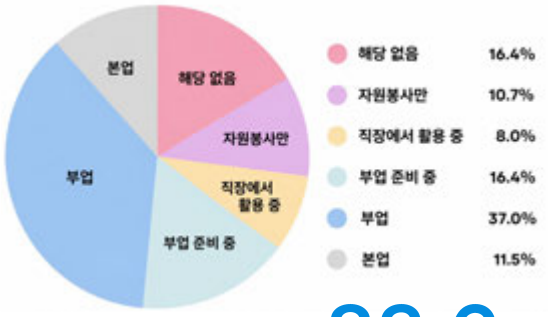
돌봄미용 실증연구 결과를 일본치매케어학회에서 발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돌봄미용이 고령자 돌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2024년 6월 15~16일 도쿄국제포럼에서 열린 제25회 일본치매케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졸업생 활동 현황

배움으로 끝나지 않는 높은 현업 정착률



돌봄미용 관련 활동을 하는 수료생 **83.6%**

※ 본업·부업 등 직업 활동 정착률: 48.5%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시설 방문, 직장 내 돌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료 직후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5 향후 전개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돌봄미용의 추가 확산을 위한 활동

일반사단법인 일본개호미용협회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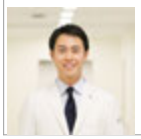
2026년 1월 사단법인 일본돌봄미용협회(JCBA) 설립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자문위원회(일부 발췌)

일반사단법인 일본개호미용협회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소속·이름	전문 분야·주요 경력
	가마타 미노루 명예고문 스와중앙병원 명예원장 / 일본 체르노빌 연대기금 고문 외	지역포괄케어를 선도한 의사·작가. 2021년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인 30인에 선정.
	우라카미 가쓰야 이사 돗토리대 의학부 치매예방학 교수 외	치매·알츠하이머병 예방연구의 대표적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바야시 데루코 이사 미·파인연구소 대표 / 아마테라스 아카데미아 대표이사 외	일본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 고세이 이사이자 미·파인연구소 설립자.
	가와시마 유헤이 이사 도쿄 사이세이카이 중앙병원 피부과 / 네일웰빙협회 이사 외	손발톱 질환, 중증 아토피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과 미용피부과 진료에 종사.

	소속·이름	전문 분야·주요 경력
	야마기와 사토시 대표이사 미라이프로젝트 대표이사 사장	돌봄과 미용을 결합한 '돌봄미용(케어뷰티)'을 일본 전국으로 확대.
	아미야 도시카즈 고문 고령자주택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외	『고령자주택신문』 창간·발행에 참여하며 돌봄·의료 분야 취재 활동.
	하부키 사유리 자문위원 아모르파티 대표 / 국제인재혁신기구 연수고문	기업 대상 돌봄 세미나와 돌봄 종사자 연수 등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
	나카하마 다카유키 자문위원 Salud 대표 / NPO Ubdobe 이사 외	복지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확산하고 복지 인력을 늘리기 위한 활동.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일본돌봄미용협회(JCBA) 설립

일반사단법인 일본개호미용협회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6 마지막 메시지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조이스팬의 관점: '장수에서 삶의 질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즐겁게 살았는가'



Lifespan 수명 — 길이
몇 년을 살았는가

Healthspan 건강수명 — 건강
건강하게 산 기간은 얼마인가

Joyspan 기쁨의 기간 — 질
기쁨을 누리며 산 기간은 얼마인가

기쁨과 건강·장수의 관련성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안자
노년학자
케리 버나이트 박사
Dr. Kerry Burnight
저서 『Joyspan』(2025)

여기서 JOY(기쁨)란
순간적인 즐거움만이 아니라 만족감·감사·삶의 의미처럼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기간은 수명 및 건강과도 깊이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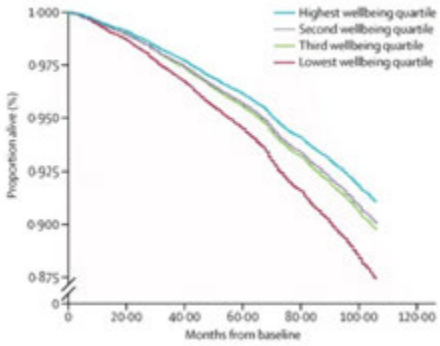
출처: Kerry Burnight, 『Joyspan』(2025). 그림: 이 책의 관점을 소개한 대만 강연자료(2026.9.18), p.48. 사진: Shifting Culture Podcast Ep.327.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기쁨'과 장수의 관계

주관적 행복(웰빙)과 생존율의 관계(고령자를 8.5년간 추적)

연구 ① The Lancet(2015)



세로축: 생존자 비율 / 가로축: 추적 기간(개월) 하늘색=행복도가 가장 높은 집단, 빨간색=가장 낮은 집단

연구 ①에 따르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느끼는 정도와
생존율이 높은 현상 사이에 연관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 ② BMJ(2016)에 따르면
삶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3차례 조사 모두에서 '높은 즐거움'을 보고한 사람은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보정 사망위험비가 낮았습니다.
(영국 50세 이상 9,365명).
24% 차이

'기쁨'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이 연구는 돌봄미용의 수명 연장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 ① Steptoe A, Deaton A, Stone AA.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ageing. The Lancet 2015;385(9968):640-648. / 연구 ② Zaninotto P et al. BMJ 2016;355:i6267 (HR 0.76 [95% CI 0.64-0.89]). 둘 다 관찰연구로 인과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기쁨을 키우는 네 가지 기둥

기쁨의 시간은 일상의 선택과 행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제안: 노년학자 케리 버나이트 박사
『Joyspan』(2025)

Grow 성장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Connect 연결되기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가꾸어 갑니다.

Adapt 적응하기
변화에 맞춰 나다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Give 나누기
경험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활용합니다.

출처: Kerry Burnight, 『Joyspan』(2025)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작성. 네 가지를 실천한다고 반드시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비급여 서비스가 만들어 갈 미래 사회

돌봄미용을 비롯한 비급여 서비스가 지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고령사회'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Grow 성장하기



새로운 색과 스타일을
직접 선택합니다.

Connect 연결되기



시술자·가족·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Adapt 적응하기



신체 상태에 맞춰
미용을 즐기는 방법을 찾습니다.

Give 나누기



경험과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우리가 늘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수명이 아닙니다.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마지막 메시지

한국에서의 현장 도입, 공동 협력을 환영합니다!

◇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실행 단계

(A) 사업제휴를 통해 교육·도입·품질관리를 지원

(B) 현장의 변화와 사업 조건을 기록·평가

◇ 검토할 과제

1. 한국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용자·가족·시설·행정기관?
2. 한국 실정에 맞는 인력양성·자격·시술 범위 설계
3. 시설 도입의 장애요인과 해결 방안



한국에 맞는 모델을 함께 설계합시다!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감사 인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hasegawa.k@mirapro.net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介護美容”が変える
シニアビジネスとケアの未来

～日本における介護保険外サービス展開について～

2026 韓日シニアビジネスフォーラム

2026年11月5日

発表：山際聡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議題

1.会社紹介＆事業展開

2.市場とその背景

3.事業のご紹介

4.介護美容事業のご紹介　（訪問美容事業　/スクール事業）

5.今後の活動と新しいシニアビジネスの未来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1　自己紹介（会社概要）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会社概要

会社名	株式会社ミライプロジェクト
事業内容	「介護×美容」事業（スクール/訪問美容 等）
設立	2015年11月19日
所在地	東京都渋谷区神宮前1-15-15 タガミ神宮前ビル2F
社員数	110名（2026年9月時点）
役員	代表取締役社長　山際 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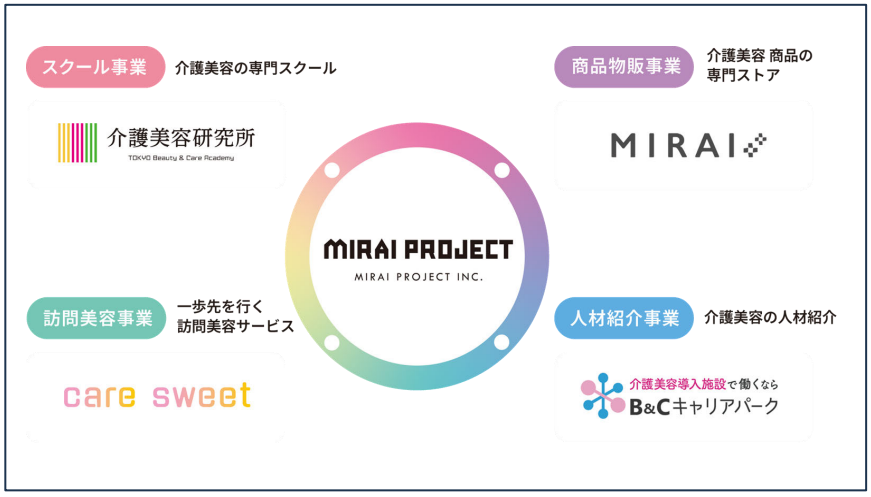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事業展開

4つの事業～高齢者に美容が届く社会の仕組み作り～



日本全国8拠点に展開

東京（原宿／代々木）
横浜／大宮／名古屋
大阪（心斎橋／梅田）／福岡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care sweet

諦めていた美容が日常になる環境へ。

諦めていた美容が、日常になる環境へ。
毎月1～2回の定期訪問で現場を伺い、
心と身体を動かす「美容」サービスをお届けします。

SERVICE MENU



ケアネイル
Care
nail

ケアエステ
care aesthetic



HAIR
ヘアケア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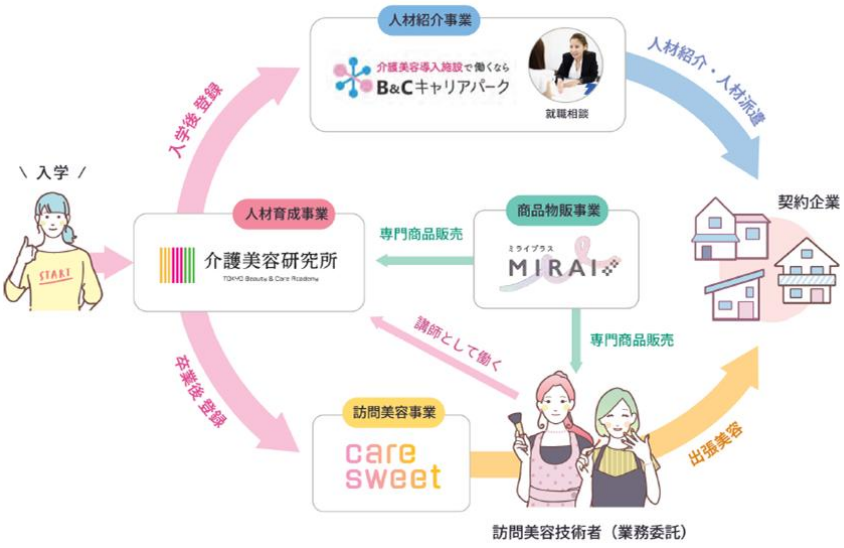


ケアメイク
Care
Make up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教育から施設導入まで、一体で仕組みをつくる

①人材を育て
⇩
②仕事につなぎ
⇩
③施設で継続サービスに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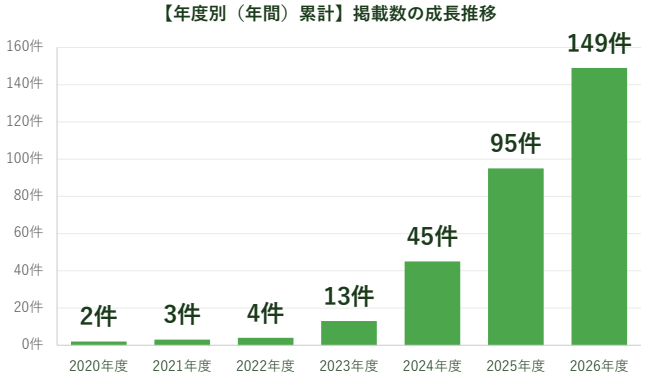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広がる介護美容

豊富なメディア掲載実績、全国のTV、新聞、WEBの各メディアに掲載。
介護美容と当社の事業は、
社会から非常に高い関心を集める注目のテーマとして定着しつつあります。



【年度別（年間）累計】掲載数の成長推移



掲載一部抜粋

【TV】
- フジテレビ「Live News イット！」
- TBS Nスタ「激推しさん」
- NHK「午後LIVE ニュースーン」
- フジテレビ「ノンストップ！」
- テレビ朝日「スーパーJチャンネル」
- 日本テレビ「news every.」
- テレビ朝日「グッド！モーニング」
- テレビ朝日「池上彰のニュースそうだったのか!!」
- NHK WORLD - JAPAN「BIZ STREAM」
- 中国中央テレビ ニュース「天下財経」
- 千葉テレビ「news千葉」

【新聞】
- 読売新聞（紙面・WEB・地域版など計3件）
- 朝日新聞（紙面・WEB・地域版など計3件）
- 日本経済新聞（紙面・夕刊・埼玉版など計3件）
- 毎日新聞（大阪版など計2件）
- 産経新聞（大阪夕刊など1件）

【WEB】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 朝日新聞デジタル
- 時事ドットコム
- 時事通信ニュース
- 時事メディカル
- 日テレNEWS NNN
- テレ朝NEWS
- 東京新聞デジタル

【雑誌】
- 介護ビジョン
- BRAVO My Life
- 週刊ふくおか経済
- 高齢者住宅新聞
- シルバー産業新聞

※その他掲載多数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広報実績

SNSの広がり

認知・発信力の拡大（SNS実績）

総フォロワー数

85,764 人

介護美容でのバズ動画も多数！

総再生数

約6083万 回

※直近1年間の再生数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介護美容"が変えるシニアビジネスとケアの未来

広報実績

認知度調査

「介護美容」の認知度は34.5%！
関連したキーワードの一般認知度は大きく伸びている。

介護美容 認知率	ケアビューティスト 認知	care sweet 認知	介護美容研究所 認知
34.5%	18.9%	16.9%	17.8%
+9.9pt	+4.9pt	2026新設問	2026新設問
2025年: 24.6%	2025年: 14.0%	2025年: —	2025年: —
知っている＋少し知っている	知っている＋少し知っている	内容も知っている＋見たことある	内容も知っている＋見たことある

2025年から2026年のわずか1年で、介護美容の認知率（知っている＋少し知っている）は24.6%から34.5%へ約10pt上昇。
「知っている」明確層は7.6%から12.6%へ1.7倍に増加しました。
スクール展開・訪問サービス・日本介護美容協会設立・認定制度整備など、当社が主体となって行ってきた業界啓発活動の積み重ねが、この認知拡大を生み出しています。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2　市場と背景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社会背景（介護人材問題）

日本の介護人材不足は慢性的傾向

人材リクルート難、離職となる原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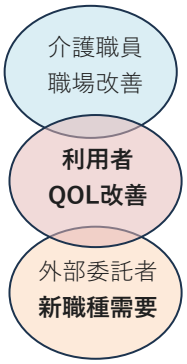
肉体的な面
少ない人数で多くの利用者を支えるため、一人あたりの作業量が増加しがち。

精神的な面
レクリエーションの企画や、利用者・家族への細やかな気配りによる精神的疲労。

需給ギャップを埋めていくためには（当社想定）

ハード面
・AIの導入による効率化
・ロボットの導入による省力化

ソフト面(ヒト)
・分業の推進（外部委託）
　＊介護美容等の外部サービス導入



外部の専門会社のサービスを活用する事は、介護施設経営において必須手段になりつつある。

公的保険外サービスの導入は、人材不足の解決手段としても、大きく注目をされている。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3 新しい保険外サービス 訪問美容"care sweet"

care sweet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訪問美容"care sweet"

高齢者に専門の美容施術を提供する、2種類の保険外サービスが「介護美容サービス」

高齢者向けのヘアサロン施術を提供する
（カット／カラー／パーマ）

「訪問ヘアカットサービス」



高齢者向けのトータルビューティー施術を提供する
（メイク／ネイル／エステ／アロマ etc..）

「ケアビューティーサービス」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care sweet

介護美容を導入する3つのメリット

単なる美容の枠を超え、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増加やQOL向上をもたらす「介護美容」。
これらが複合的に作用し、施設全体の価値を高めます。







寄り添うケアの実現

介護現場が求める「心に寄り添うケア」を、保険外サービス「care sweet」とタッグを組んで実現可能にします。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活性

美容を通じた会話の創出により、ご利用者の発語・外出意欲が増加。スタッフ間の会話量も増大します。

近隣施設との差別化

通常のケアにプラスされた「高品質な美容体験」が、他施設にはない独自の強み・選ばれる理由になります。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年間美容プログラム

"介護美容"が変えるビジネスとケアの未来

お正月・新春		ひな祭り・春		母の日	父の日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新春あったかハンドトリートメント	立春やすらぎフットケア	桜色リップ作り	桜ネイルケア＆カラー	母の日メイク＆フォト	いきいき身だしなみ講座
七夕・夏祭り		敬老の日			クリスマス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涼やか扇子づくり	清涼クールヘッドスパ	敬老記念メイク＆フォト	潤いネイルオイル作り	贅沢しっとりハンドトリートメント	聖夜のご褒美エス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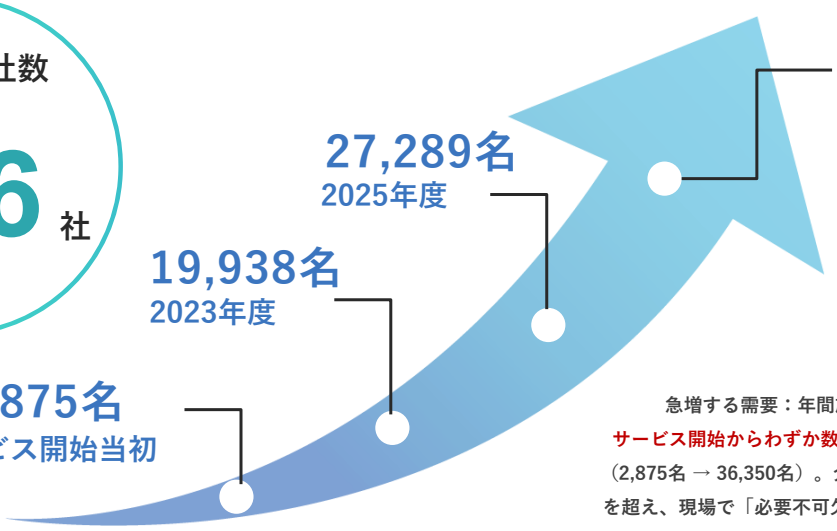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定量的なデータ紹介

年間施術人数

新規契約社数

726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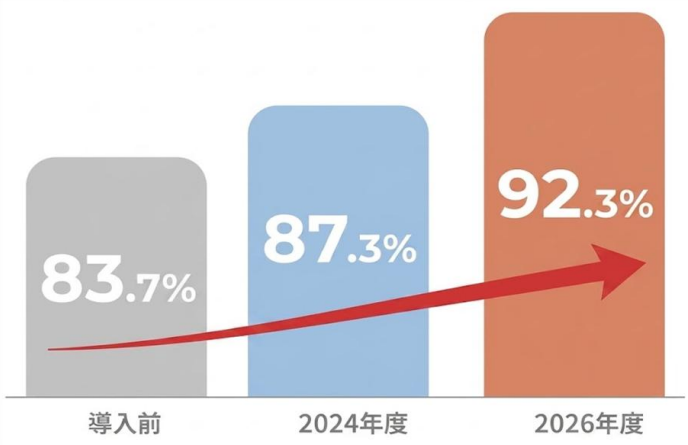
急増する需要：年間施術人数 36,000名突破。
サービス開始からわずか数年で施術人数は約12.6倍に拡大（2,875名 → 36,350名）。介護美容は単なるアクティビティを超え、現場で「必要不可欠なケア」として急成長しています。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定量的なデータ紹介 ※当社サービス導入施設の実績 推移例

他社との差別化により
入居率が向上

美容が施設選定の「決定打」に。
他施設にはない「介護美容」を取り入れることで、施設ブランディングが大きく向上。



「care sweet」導入前後の入居率

8.6 %UP

※公益財団法人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が発行した「令和7年度介護労働実態調査 結果報告書（事業所調査）」に基づく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定量的なデータ紹介 ※当社サービス導入施設の実績 推移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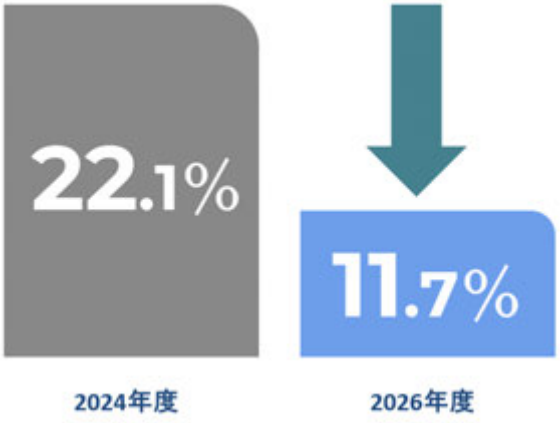
スタッフ離職率の大幅な改善

ご利用者様の満足度向上とイベント効果により現場の雰囲気が劇的に改善。約２年で離職率が大幅に低下し、スタッフの定着に寄与

「care sweet」導入前後の離職率

10.4 %DOWN

※公益財団法人 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が発行した「令和7年度介護労働実態調査 結果報告書（事業所調査）」に基づく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4 専門人材を育成する「介護美容研究所」

介護美容研究所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専門人材を育成する「介護美容研究所」

介護美容のプロが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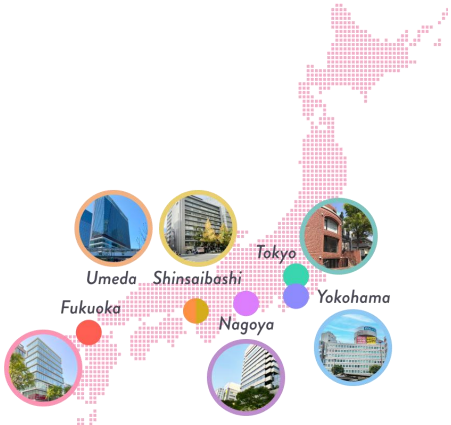
介護美容研究所
TOKYO Beauty & Care Academy

- **専門技術者の輩出実績は5,000名以上！**
  介護美容研究所（日本初の専門スクール）の在校生、卒業生は
  2026年で5000名を超え、3年後には1万人に到達する見込み。

- **即戦力人材育成の社会人スクール！**
  多彩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持つ受講生、看護師、介護士、PT、OTなどの
  ケア従事者から、美容師、ネイリスト、エステティシャン、等の美容従事者、
  さらには未経験の方まで、幅広い層の方が受講しています。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専門人材を育成する「介護美容研究所」

"介護美容"が変えるシニアビジネスとケアの未来

カリキュラム

教育時間平均 150時間 の履修カリキュラム
必ず現場の経験を積み、卒業後、即戦力となる実践的な
教育内容のため、在学中から現場実習を経験。



【3ヶ月】基礎

資格取得なし

12週 (48回) ／ 現場実習 3回

- 介護/医療の現場にて、**生活の中に介護美容を導入**することが出来る基礎的な技術及び知識を習得

caresweetは登録不可



【6ヶ月】標準

ケアビューティスト認定資格

22週 (88回) ／ 現場実習 5回

- プロとしての高齢者向け美容施術/レクリエーションの技術及び知識の認定。
- ケアビューティストとして1つの強みを作り、ビジネスの基盤を習得

caresweet
修了科目の分野のみ受注が可能



LABO受験資格あり

【8ヶ月】上級(限定)

ケアビューティーマイスター認定資格（特定領域）

28週 (112回) ／ 現場実習 9回

- 特定の分野において、1人ひとりに合わせた中長期のプラン策定から実施までの実績を認定。
- 中長期プログラムの提供で真の”寄り添うケア”を習得

caresweet
修了科目の分野のみ受注が可能



LABO受験資格あり

【1年】上級

ケアビューティーマイスター認定資格

38週 (152回) ／ 現場実習 11回

- 様々な技術を組み合わせ、1人ひとりに合わせた中長期のプラン策定から実施までの実績を認定。
- ケアビューティストとしてトータルビューティーを極め、様々な顧客に対応できる知識、技術を習得。

care sweet
全てのジャンルの案件を受注可能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学会発表（産学共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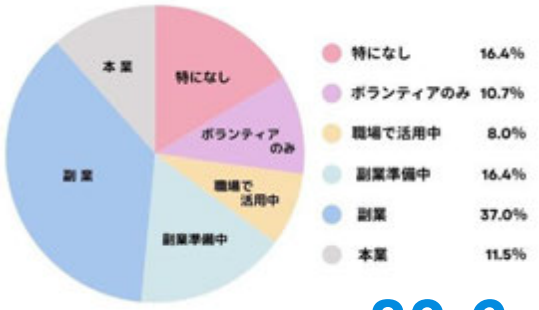
介護美容の実証研究を、日本認知症ケア学会で発表



2023年7月～2024年1月に介護美容が高齢者ケアに与える効果に関して実証研究を行い、結果を2024年6月15日、16日に東京国際フォーラムで開催された「第25回 日本認知症ケア学会大会※」で演題発表いたしました。

卒業生の活動状況

「学ぶだけ」で終わらせない高いキャリア定着率



介護美容の活動をされている方　83.6%

※職業(本業／副業)での定着率も：48.5%

資格取得にとどまらず、施設訪問や職場内ケアなどの多様なスタイルで、修了後すぐに社会還元・活躍する実績を構築。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5　今後の展開（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更なる普及を目指した活動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2026年1月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JCBA）を設立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アドバイザリーボード　（一部 抜粋）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所属/名前	専門分野/略歴
	**鎌田 實**　名誉顧問 諏訪中央病院名誉院長 / 日本チェルノブイリ連帯基金顧問 他	「地域包括ケア」の先駆けを作った医師・作家。2021年世界に貢献する日本人30人に選出。
	**浦上克哉**　理事 鳥取大学医学部保健学科認知症予防学講座(寄附講座)・教授　他	認知症・アルツハイマー病を専門とし、その予防に関する研究の第一人者として知られている。
	**小林照子**　理事 株式会社美・ファイン研究所代表 一般社団法人アマテラスアカデミア代表理事 他	日本のメークアップアーティストの第一人者。 元コーセー取締役、美・ファイン研究所創業者。
	**川島裕平**　理事 東京済生会中央病院皮膚科医ネイルウェルビーイング協会理事 他	爪疾患、重症のアトピー性皮膚炎や尋常性乾癬などの皮膚疾患の診療、美容皮膚科診療に従事。

	所属/名前	専門分野/略歴
	**山際 聡**　代表理事 株式会社ミライプロジェクト代表取締役社長	「介護」と「美容」を融合した新しいサービス「介護美容(ケアビューティ)」を全国に展開。
	**網谷敏数**　顧問 株式会社高齢者住宅新聞社代表取締役社長 他	『高齢者住宅新聞』の創刊・発行に携わり、介護・医療などをテーマに取材活動を行っている。
	**羽吹さゆり** アドバイザー アモールファティ代表 公益社団法人国際人材革新機構研修顧問 他	企業向けの介護セミナーや介護職員研修など多岐にわたる啓発・教育活動を展開する。
	**中浜崇之** アドバイザー 株式会社Salud代表 NPO法人Ubdobe理事　他	福祉のポジティブな視点での発信と福祉の担い手の増加に向けて様々な活動を行う。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JCBA）の設立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
Japan Care Beauty Association

協会機能

一般社団法人
日本介護美容協会

1	2	3
規範形成	資格認定	研究開発
ルールを整える	専門性を育てる	知見を積み重ねる
資格／認証制度	認定校制度	研究・活動報告
（2026年 開始予定）	（2027年 開始予定）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06 最後のメッセージ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JOYスパンという視点「長寿から人生の質へ」

「何年生きるか」ではなく、「何年を楽しんで生きたか」



Lifespan 寿命
何年生きるか
長さ

↓

Healthspan 健康寿命
健康な状態で何年生きられるか
健康

↓

Joyspan 喜びの時間
何年間を楽しんで生きたか
質

健康・長寿との関連が研究で示されている



提唱者
老年学者
ケリー・バーナイト博士
Dr. Kerry Burnight
著書『Joyspan』（2025）

ここでいうJOY（喜び）とは
その場の楽しさだけでなく、満足感・感謝・人生の意味といった、自分の内側にある感情。つらい状況の中でも感じられるもの。

3つは対立しない。喜びの時間は、長さや健康とも深く関係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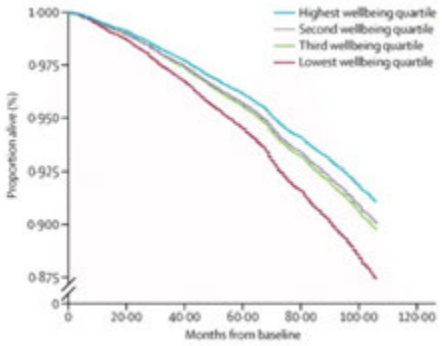
出典：Kerry Burnight『Joyspan』（2025）。図：同書の考え方を示した台湾講演資料（2026/9/18）p.48。写真：Shifting Culture Podcast Ep.327。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喜び」と長寿の関係

主観的な幸福（ウェルビーイング）と生存率の関係（高齢者を8.5年間追跡）

研究① The Lancet（2015）



縦軸：生存している人の割合／横軸：追跡した月数　水色＝幸福度が最も高い層、赤＝最も低い層

研究①より
生きがいを感じている人ほど、長く生きる傾向
人生に目的や意味を感じているか（生きがい）と、
生存している割合の高さが結びついていた

研究② BMJ（2016）より
人生の楽しみが続く人ほど、
長く生きる傾向
3回の調査すべてで「高い楽しみ」を報告した人は、
一度も報告しなかった人より、調整後の死亡ハザードが低かった（英国の50歳以上 9,365人）

24%
の差

「喜び」は気分だけの問題ではなく、生きることに関わる大切な要素
※研究結果の紹介。介護美容に延命効果があることを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

研究① Steptoe A, Deaton A, Stone AA.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ageing. The Lancet 2015;385(9968):640–648.（論文の図を引用）／研究② Zaninotto P, et al. BMJ 2016;355:i6267（HR 0.76［95%CI 0.64–0.89］）。いずれも観察研究であり、因果関係は確定していない。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喜びを育てる４つの柱

喜びの時間は、日々の選択と行動で育てられる



提唱：老年学者 ケリー・バーナイト博士
『Joyspan』（2025）

Grow　成長する
新しいことを知り、挑戦する。

Connect　つながる
人との関係を、自分から育てる。

Adapt　適応する
変化に合わせ、自分らしい
方法を見つける。

Give　与える
経験や力を、誰かのために
生かす。

出典：Kerry Burnight『Joyspan』（2025）の4つの柱をもとに作成。4つを実行すれば必ず長寿になるという保証ではない。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保険外サービスが作る、未来の社会

**介護美容をはじめとする保険外サービスの目指すところは、
本当の意味での「新しい高齢化社会」の実現といえます。**

Grow　成長する



新しい色や装いを、
自分で選ぶ

Connect　つながる



施術者・家族・職員との
会話が生まれる

Adapt　適応する



身体状態に合わせて、
美容を楽しむ方法を見つける

Give　与える



体験や喜びを、
誰かと分かち合う

私達が延ばしたいのは、ただの寿命ではありません。
喜びを感じながら、生きる時間です。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最後のメッセージ

韓国での社会実装に、共創は大歓迎！

◇ **知識および技術に関する教育・育成は不可欠。**
ステップ
(A) 教育・導入・品質管理を事業提携により支援
(B) 現場の変化と事業条件を記録・評価する

◇ **確認すべき課題点**
1. 韓国での費用負担
　本人・家族・施設・行政？
2. 人材育成・資格・施術範囲の韓国カスタマイズ
3. 施設導入の障壁とその解決法



韓国に適した仕組みを、共同設計！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御礼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hasegawa.k@mirapro.net

MIRAI PROJECT
MIRAI PROJECT INC.

Copyright (C) 2026 MIRAI PROJECT INC. All Rights Reserved.

KOREA-JAPAN SENIOR FORUM

BRAVO My Life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요일) 10:00 ~ 16:00

장소 :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2F)

CAREMOA 케어모아

i-Scream media

Man&tel 주|맨엔텔

이투데이

이투데이피엔씨